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결정사안】

전라북도 정읍, 장수, 군산 등 9개 시·군 지역에서 1949년 3월부터 1952년 9월까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좌익활동 및 부역하였다는 이유로 전라북도경찰국 및 각 경찰서와 지서의 경찰, 방위대 그리고 토벌작전 중이던 군인에게 연행되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최호범 등 62명 이상의 민간인이 1949년 3월부터 1952년 3월까지 전라북도 정읍, 장수, 군산 등에서 수복작전을 수행하던 전라북도경찰국 및 각 경찰서와 지서의 경찰, 방위대 그리고 토벌작전 중이던 군인에게 살해되었다.

2.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1년 10월 전라북도 부안지역에서 토벌작전을 펴던 경찰과 치안대는 행안면 삼간리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던 주민이 기계 수리를 위하여 밤새 불을 켜놓은 것에 대하여 빨치산과 내통하였다고 의심하고 주산지서로 연행하여 구금하였다가 살해하였다.

또 고창지역에서는 1950년 10월 말 마을 앞을 지나던 낫선 사람 3~4명을 마을에 들어오던 군인들이 보고 충격을 가하자 이에 놀라 뒷산으로 도망하던 청년 5명이 군인들에게 연행되어 살해된 사건도 있었다.

3. 고창지역에서 이강학이 사망한 사건 등 3건에 대해서는 살해과정의 불법성은 인정되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4.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희생사실이 확인 또는 추정되는 사람은 62명이다. 62명 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희생자는 43명이며 이 중 진실규명을 신청한 희생자는 36명, 진실규명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는 6명, 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는 18명이다.

5.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가해자는 전라북도경찰국 및 각 경찰서와 지서 경찰, 그리고 방위대 및 군인이었다. 가해경찰의 지휘계통은 전라북도경찰국장 → 각 경찰서장 → 지서장이었으며, 방위대 치안대였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군인이 민간인 희생사건과

제 7 권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의 가해자인 경찰과 군인들은 전북지역 수복 및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해당 희생자들을 인민군점령기 좌익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살해하였다. 사건발생 당시가 수복 후 혼란한 시기였다고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불법행위였다.

【전 문】

【사 건】 다-215 외 41건,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신청인】 최인옥 외 40명

【결정일】 2010. 6. 30.

【주 문】

- 다-215 등 39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 다-1486(1) 등 3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신청서 접수

신청인 최인옥(다-215호) 외 41명은 전라북도지역(정읍시, 장수군, 군산시, 무주군, 진안군, 고창군, 김제시, 익산시, 부안군, 남원시)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북지역 군경토벌작전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2007.01.23.) 및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2007.01.09.)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의 신청건수는 42건이며 진실규명대상자 수는 56명이다. 신청서 접수상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신청서 접수 상황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이름(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 관계	사망시기
정읍시								
1	215	2005.12.14	최인옥(崔仁玉)	최호범(崔虎範)	남	19	삼촌	1951.3~4.
2	216	2005.12.14	채봉건(蔡鳳乾)	채영달(蔡永達)	남	49	부	1951.1.9.
3	217	2005.12.14	최보순(崔普順)	최성대(崔成大)	남	20	오빠	1951.3~4.
4	6641	2006.11.8	한병호(韓秉縞)	한용수(韓鏞洙)	남	45	부	1951.3.
5	9568	2006.11.30	최금자(崔金子)	최인기(崔仁麒)	남	26	부	1951.3.
6	972	2006.1.26	김달수(金達洙)	김영출(金英出)	남	45	부	1951.2.20.
				김위도(金衛道)	남	19	형	1951.2.20.
7	10189	2006.11.30	안길회(安吉會)	안재성(安載晟)	남	30	부	1950.12.22.
8	9351	2006.11.30	신현갑(申鉉甲)	신복균(申福均)	남	37	부	1950.11.
장수군								
9	4799	2006.8.21	김규진(金奎鎭)	김호진(金浩鎭)	남	16	동생	1951.9.28.
10	6142	2006.10.23	김갑용(金甲龍)	김갑봉(金甲奉)	남	26	형	1951.1.
11	6546	2006.11.6	김중훈(金鍾勳)	김의철(金義喆)	남	44	부	1951.1.10.
12	6714	2006.11.10	이동석(李東奭)	이영호(李永浩)	남	36	부	1950.11~12.
13	7736	2006.11.24	이곤호(李坤浩)	이혁호(李赫浩)	남	23	형	1950.12.
군산시								
14	6828 ¹⁾	2006.11.15	채무길(蔡茂吉)	채판묵(蔡判默)	남	45	백부	1951.3.15.
				이동자(李東慈)	여	70	조모	1951.3.19.
15	7112	2006.11.21	고승우(高昇羽)	고신곤(高信坤)	남	32	부	1950.10.12.

제 7 권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이름(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 관계	사망시기
16	9375	2006.11.30	김양중(金良中)	김용길(金容吉)	남	26	부	1950.10.13.
무주군								
17	483	2006.1.6	유해수(劉海珠)	전씨	여	60	조모	1950.10.19.
				박성여(朴姓女)	여	35	모	1950.10.19.
18	6125	2006.10.23	박희용	박현모(朴顯謨)	남	30	부	1950.1.29
				박동열(朴東烈)	남	20	삼촌	1950.2.
19	9773	2006.11.30	양선모	김수근	남	18	주민	1951.11.18.
				김정갑(金正甲)	남	40	주민	1951.11.18.
진안군								
20	3089	2006.4.21	양재진(梁在振)	양재춘(梁在春)	남	24	형	1952.9.초순
21	9092	2006.11.30	이인선(李仁善)	이정옥(李正玉)	남	32	부	1950.10.23.
고창군								
22	4439	2006.7.25	유동란(庾東蘭)	임인택(林仁澤)	남	32	주민	1950.10.30.
				엄종섭(嚴種燮)	남	29	주민	1950.10.30.
				김병현(金炳鉉)	남	27	주민	1950.10.30.
				유홍종(劉弘種)	남	25	주민	1950.10.30.
				엄규섭(嚴奎燮)	남	23	주민	1950.10.30.
23	5294 ²⁾	2006.9.27	강성팔(姜聲八)	강응원(姜應遠)	남	40	부	1950.12.2.
			신길하(辛吉夏)	신휘철(辛徽喆)	남	32	조부	1950.12.2.
				한부덕(韓富德)	여	33	조모	1950.12.2.
24	6520	2006.11.2	정금순(丁錦順)	정만수(丁滿秀)	남	20	부	1950.12.20.
25	7629	2006.11.24	강승현(姜丞沘)	강봉원(姜奉遠)	남	36	부	1951.1.15.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이름(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 관계	사망시기
26	8946	2006.11.30	강태원(姜泰遠)	강금동(姜金同)	남	33	부	1951.1.6.
27	9208	2006.11.28	공보현(孔寶鉉)	공선종(孔琰鍾)	남	46	조부	1951.3.12.
				박복기(朴福己)	여	43	조모	1951.3.12.
28	9629	2006.11.30	김수완(金洙完)	김종철(金鍾哲)	남	27	부	1952.10.20.
29	9634	2006.11.30	김기모(金己某)	김홍채(金映采)	남	56	부	1951.1.2.
30	9655	2006.11.30	김요현(金堯炫)	김환용(金煥容)	남	52	부	1950.12.14.
31	9657	2006.11.30	김귀현(金貴鉉)	김원철(金元喆)	남	31	부	1950.12.29.
				김철주(金撤住)	남	21	당숙	1950.12.29.
32	9683	2006.11.30	이공우(李共雨)	손재만(孫在萬)	남	27	외삼촌	1951.3.10.
33	9700	2006.11.30	오유경	오인대(吳仁大)	남	21	조부	1950.12.13.
34	10603	2006.11.30	김명철(金明喆)	김판수(金判洙)	남	33	부	1951.1.중순
35	1486(1)	2006.2.13	이강춘(李康春)	이강학(李康鶴)	남	26	형	1950.8.
김제시								
36	6954	2006.11.16	윤성남(尹成南)	윤성학(尹聖學)	남	25	형	1949.3~4.
37	7579	2006.11.23	임소영(林昭英)	임종연 ³⁾ (林鍾年)	남	42	부	1949.4.경
				임종률(林鍾律)	남	27	숙부	1950.10.경
38	10140	2006.11.30	곽창원	곽동호	남	64	조부	1951.11.2.
익산시								
39	8967	2006.11.30	허문(許文)	허은(許銀)	남	28	부	1951.3.
부안군								
40	6792	2006.11.14	김인석(金仁錫)	김순옥(金順玉)	남	40	부	1951.10.30.
41	7546	2006.11.23	최점례(崔点禮)	최귀순(崔貴順)	남	38	부	1951.10.19.(음)

제 7 권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이름(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 관계	사망시기
남원시								
42	2187	2006.3.8	정춘조(鄭春助)	정득용(鄭得龍)	남	44	부	1950.7.26.

나.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은 군경이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들을 부역혐의자를 처벌한다면서 임의로 연행·총살하였고, 토벌작전을 벌이면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살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철도경찰 역시 인근 주민들을 연행하여 총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 신청인들은 인민군점령기 가족을 잃은 지서의 방위대원이 주민을 연행하여 지서 근처에서 총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포함된다고 보고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희생자 수와 희생자 신원, 가해이유, 사건배경, 군경의 작전상황, 가해주체, 지휘·명령체계 및 가해의 위법 여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3. 규명과제

이 사건의 규명과제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건의 실재 여부, 구체적인 희생경위, 희생자 수와 희생자 신원 파악이다. 또한 가해주체로 거론되는 군경의 소속 및 지휘·명령

- 1) 신청인 채무길은 채판묵 등 3명을 진실규명대상자로 신청하였으나 이 중 신청인의 부 채장묵은 기록(「자살동기 보고서」, 군산경찰서, 1951.4.2.)에 따르면 1951년 4월 2일 나포면 부곡리 임길홍의 집에서 체포되어 군산경찰서 나포지서로 압송 중 호수에 뛰어들어 자살한 것으로 보고되어 사건을 분리하였다.
- 2) 신청인 강성팔은 대표신청자로서 강응원 등 5명을 진실규명 신청하였으나 이 중 정건진과 김복순이 신청한 사건은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분리하였고 이 결정서에는 강성팔과 신길하가 진실규명 신청한 사건만이 포함되었다.
- 3) 다-7579호 진실규명대상자 임종연의 이명(異名)은 임호로, 진술인들은 이명으로 호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체계, 사건발생의 정황, 가해의 위법 여부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4. 조사방법

가. 신청인 조사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신청인 41명⁴⁾과 다-5294호의 신청인 정건진,⁵⁾ 김복순,⁶⁾ 신길하 등 3명을 포함하여 44명⁷⁾을 2008년 5월 21일부터 2010년 5월 18일까지 조사하였다. 신청인 주요 진술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신청인 주요 진술내용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정읍시								
1	215	최인옥 (1944)	최호범	삼촌	2008.5.21. 정읍시청 2009.8.31.	전문	진술 조서 전화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시 주민들 중 일부는 빨치산에 협조하였는데 그 사람들은 '도레미산' 에서 총살되었음. •당시 옹동지서 백〇〇이 빨치산에 협조한 사람들을 임의로 총살하였음. •최호범은 군인을 욕한 것으로 오인 받아 백〇〇이 연행하여 살해하였음. •백〇〇은 옹동면 소철미를 주민을 빨치산과 내통했다고 죽였고, 입산자 집은 소각하였음. •삼촌 시신은 조모, 고모, 채영달이 태인면에서 수습하였는데 채영달도 백〇〇에게 살해되었음. •최〇〇의 오빠 최〇〇는 빨치산 노래를 가르쳤다고 총살되었음.
2	6641	한병호 (1942)	한용수	부	2008.5.21. 진실화해위원회	시신수습 목적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안대(또는 방위대)가 마을에 들어와 밥, 술을 먹은 뒤 아버지를 비롯해 남자 4, 5명을 연행하였음. 가족이 수소문한 끝에 정읍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 4) 다-10140호 신청인 광창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신청인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희생자 광동호의 딸 광인수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다.
- 5) 신청인 정건진(진실규명대상자 정재국)의 경우 조사개시 후 다-5294(1)호로 분리되어(조사2팀-380, 2010.4.6)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 6) 신청인 김복순(진실규명대상자 김차석)의 경우 조사개시 후 다-5294(1)호로 분리되어(조사2팀-380, 2010.4.6)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 7) 신청인 정건진, 김복순의 진술은 다-5294호 사건의 주요 참고인 진술이므로 <표 2>의 신청인 주요 진술내용에 포함시켰다.

제 7 권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2	6641	한병호 (1942)	한용수	부	2008.5.21. 진실화해위원회	시신수습 목적	진술 조서	<p>듣고 확인하였지만 오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얼마 뒤 시신으로 발견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곡(哭)을 하라고 하여 울었던 기억이 있음. • 웅동지서에서 가까운 척천마을 방위대(치안대) 건물 구덩이에서 시신 20여구가 발견되었는데 한용수, 한영수, 한태수, 한상수, 김복만의 시신도 있었음. • 한용수는 여러 군데 총상을 입어 시신이 훼손되었음. • 아버지는 누가 죽였는지 모르나, 당시 좌익이나 빨치산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들은 백○○이 잡아다 죽였는데 대낮에 주인이 총 맞아 죽는 것도 보았음. • 아버지는 인민군점령기 반장이었으나, 특별한 활동을 한 적은 없었음.
3	9568	최금자 (1950)	최인기	부	2008.8.8.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상황이 밤에는 빨치산에 협조하고, 낮에는 군인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함. • 아버지는 주민의 밀고로 백○○이 마을에 들어와 매정리 정동부락으로 끌고 가 총살하였는데 주민 4, 5명과 함께 총살되었음. • 당시 최인기의 시신을 확인하고 거적으로 덮어 두었는데 다음날 없어졌다는 말을 최도범으로부터 들었음.
4	216	채봉건 (1944)	채영달	부	2008.5.22. 정읍시청 2009.6.19. 신청인 자택	최성대의 사망목적 ^{B)}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는 1954년 1월 7일 웅동지서 백○○과 술자리를 같이하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매정교 부근 빈집에 끌려갔고 동네사람들과 함께 백○○에게 사살되었다고 함. • 아버지 시신은 주민 두 명이 매정교 부근에 매장했다고 들었음. •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는 배우지 못해 직책을 맡아 활동한 적도 없이 심부름만 하였는데 돌아가셨다고 들었음. • 최○○가 북한 노래를 부른다고 백○○이 뒤에서 싸 죽이는 것을 목격함.
5	217	최보순 (1941)	최성대	오빠	2008.6.3. 웅동면사무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는 아이들에게 빨치산 노래를 가르쳤다고 백○○이 총살하였음. • 숙부도 백○○에게 총살당하였음. • 오빠의 시신은 아버지(1977년 사망)와 동네어른들이 매장하였는데 미혼이라 묘지는 없음.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6	10189	안길희 (1946)	안재성	부	2008.6.3. 정읍시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뽕치산이 마을의 지주 부부를 총살한 후 집을 불태웠는데, 이와 연루된 사람들이 경찰에 잡혀 사형당하거나 형을 살았음. • 경찰은 마을에 들어와 부역자 색출을 지속적으로 하였음. • 소성면에서 좌익세력 사건이 있자 부친은 신정리 고모 댁으로 피신하였는데 군인들 토벌작전 중 붙잡혀 외지 인이라 하여 석산마을에서 총살당함. • 부친과 같이 살해된 사람이 여럿이라고 들었으며 시신은 수습하였음.
7	972	김달수 (1952)	김영출 김위도	부 형	2008.9.17. 여주시 여서동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출과 김위도는 같은 날 철도경찰이 끌고 갔으며 '군령지' 에서 대장으로 살해되었음. • 김영출의 제삿날은 음력 1월 14일로, 끌려간 날에 맞추어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생각됨. • 김영출, 김위도는 행방불명된 조카 김○○가 공산당 활동을 한 것 때문에 잡혀간 것으로 보임. • 희생자들 시신을 찾으러 가려 했으나 조부가 말려 시신을 찾지 못하였음.
8	9351	신현갑 (1942)	신복균 (37세)	부	2008.9.24. 광주시 신청인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복균(신삼균)은 항지동 친척집에 있던 중 소성지서 방위대에 잡혀가 소성지서에서 사살되었다고 함. • 연동리 출신 방위대원 황○○는 좌익으로 의심 가는 주민들을 데려다 죽이는 데 앞장섰다고 함. • 어머니가 시신을 찾으려 노력하였지만 찾지 못하였음.

장수군

9	4799	김규진 (1926)	김호진	동생	2008.3.11. 장수군 산서면	사건현장 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5부대와 제18전투경찰대대가 합동으로 토벌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김호진이 총에 맞아 희생되었음. • 당시 이현상부대 패잔병들이 팔공산, 장안산 등에 은둔하고 있었고, 저녁에 마을에서 식량을 빼앗아 가곤 했음. • 김성진과 동네사람들이 현장을 목격하였고 집에 데려왔으나 사망함. • 산서면 관내 첫 마을에 들어갈 때는 군인과 경찰이 마을에 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총을 난사하며 들어갔음.
---	------	---------------	-----	----	-----------------------	------------	----------	--

제 7 권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10	6142	김갑용 (1930)	김갑봉	형	2008.7.8. 전주시 완산구청	연행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 김갑봉은 1951년 1월 8일 국민방위군에 소집되어 장수경찰서에 갔다가 형사에게 연행되었음. •당시 계북면에서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된 청년들이 다수 있었으나 김갑봉만 연행되었음. •김○○은 해방 후 남당당원으로 활동하였는데 1950년 말 장수경찰서에 자수하였음.
11	6546	김종훈 (1941)	김의철	부	2008.3.5. 장수군 산서면사무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의철은 1950년 12월 말, 부역자 자수기간 동안 동네사람 10여 명을 설득하여 함께 자수하였고, 산서지사에서 10여 일 수감되었다가 장수경찰서로 이감되었음. 1951년 1월 10일경 야간에 트럭에 실려 가다가 '싸리재' 에서 총살되었다고 함. •김의철은 면당위원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부역혐의를 받았음. •'싸리재' 희생자는 500여 명이라고 들었으며, 하월리 최강렬의 부모, 정남수의 부모, 최강현의 모, 이룡리 거주 이동석의 부친 이영호, 이근호의 형 이방호 등이라고 함. 시신은 찾지 못하였음.
12	6714	이동석 (1940)	이영호	부	2008.3.4. 대전시 유성구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영호는 전쟁 이전 장수군청 산림계 공무원이었으며, 인민군점령기 장수군 인민위원회에서 행정업무를 보았음. •소문에 이영호가 '싸리재' 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총살됐다고 함.
13	7736	이근호 (1936)	이혁호	형	2008.3.5. 대전시 유성구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혁호(방호)는 대한청년단 간부였고, 인민군점령기 분주소에서 일을 하고 인민위원회에 가담한 사실이 있으나 수복 후 자수하고 집에 있었음. •1950년 12월경 장수군 청년들이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될 무렵 소집에 응했다가 장수경찰서에 연행되었음. •장수국민학교에 소집되어 온 7개면 청년 중 17~18명 정도는 유치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사천으로 보내졌다는 얘기를 목격자들로부터 들었음. •유치장으로 잡혀간 사람 중 인민군 점령기 장학사를 했던 이○○(당시 25, 26세)는 풀려났음. •유치장에 있다가 이송시킨다고 자정 무렵 트럭에 실려 가던 중 싸리재에서 총살당한 것이라고 이용우에게 들었지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13	7736	이곤호 (1936)	이혁호	형	2008.3.5. 대전시 유성구청	전문	진술 조서	만 시신은 찾지 못하였음. • 김의철, 이영호, 산서면 하월리 최 강렬 부모, 장남수 부모, 최강현 모 등 이 살해되었음.
군산시								
14	6828	채무길 (1941)	이동자 채판목 채장목	조모 백부 부	2008.3.6. 군산시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들이 서포지서에서 사망하고, 본인, 모친, 고모, 백모 등은 고문을 당하였음. • 채판목은 일제강점기 폭력전과가 있어 전쟁직전 경찰서에 호출당하여 유치장에 갇혔으나, 후퇴하는 경찰이 살해하는 현장에서 살아나옴. • 9·28수복 후 빨치산 활동을 한 동생 채장목이 피신하자 경찰, 청년단이 가족을 서포지서로 연행하여 고문함. • 신청인은 사건 당시 10세로 경찰서에 몇 달간 있으면서 전기고문을 받고, 방망이로 어깨와 무릎을 맞았음. • 채판목과 조모는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였고 자녀들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모두 사망하였음.
15	7112	고승우 (1948)	고신곤	부	2007.10.25.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친 고신곤은 금융기관에 종사하였는데 인민군점령기에도 그 일을 한 것 때문에 인민군에게 협조하였다 하여 살해되었음. • 당시 원우리에 좌익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의 영향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좌익활동에 가담하였다고 함. • 군산(옥구)은 1950년 9월 미군이 수복 후 우익치안대에 치안권을 넘겼음. • 당시 좌익이 원우리 경찰 또는 우익단체 사람의 부인을 인민재판을 통해 잔인하게 죽였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좌익들을 죽인 것으로 보임.
16	9375	김양중 (1945)	김용길	부	2008.3.6. 군산시청	시신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당시 6세로 목 아래 총상을 입은 부친의 시신을 목격하였음. • 1950년 9월 수복이 되고 좌익활동을 하던 부친이 피신하였으나, 결국 회현지서로 연행되어 1, 2일 후 만경강 개펄에서 살해되었다고 함. • 김용길은 주만을 모아놓고 사상교육을 시키고 좌익사상을 연구하는 등 사상에 심취해 있었을 뿐 사람을 해치지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16	9375	김양중 (1945)	김용길	부	2008.3.6. 군산시청	시신목격	진술 조서	<p>는 않았다고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마을에서 희생된 사람이 7명이었는데 화현면 금광리 원당마을에 살 있던 두〇〇 대위의 숙부 두〇〇이 좌익에게 죽어 보복한 것으로 생각됨. • 김용길이 총살될 무렵에는 좌익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되었음.

무주군

17	483	유해수 (1942)	전씨 박성여	조모 모	2007.3.2. 전주시 덕진구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는 평야지역으로 빨치산이나 토벌군경에 의한 피해는 없었음. • 삼촌 유〇〇은 좌익운동 때문에 전쟁 전 체포되어 남원에서 수감 중 탈옥하여 빨치산이 되었음. • 수복 후 5사단으로 보이는 군대가 들어왔으며, 군인들은 치안유지활동을 했음. 좌익가족들은 군경의 감시를 받았는데, 안성면 담배창고에 20~30명을 감금해 놓고 함께 숙식을 했음. • 부친은 한 달 정도 감금되어 있다 남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셨으며, 조모와 모친은 풀려났고 부친도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음. • 부친은 빨치산이 출몰할 때마다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잡혀가 '빨치산과 내통 사실을 자백하라' 며 취조를 당하였음. • 1950년 10월 20일경 할머니와 어머니가 군인에게 끌려가 죽장부락 앞산에서 살해된 것을 주민에게서 들었음. • 시신은 사건 직후 흙으로 대충 덮어 놓았으며, 조모 시신은 찾지 못하였고, 모친 시신은 일부만 이장하였음.
18	6125	박희용 (1952)	박현모 박동열	부 삼촌	2008.8.27. 진술인 집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부, 고모, 모친에게 들었음. • 강압에 의해 빨치산에게 협조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경찰에게 다시 쫓기는 상황이었음. • 이장이었던 부친 박현모는 경찰에게 쫓기다가 평촌마을 앞산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살해당했으며 시신은 조부가 수습하였음. • 삼촌 박동열도 얼마 후 옹포리에서 죽었다고 알려졌음.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19	9773	양선모 (1936)	김수근 김정갑	이웃 이웃	2008.9.19. 신청인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수근은 신청인의 초등학교 선배로 사망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으며, 김정갑은 개인적 친분은 없었음. • 당시 무주구천동 일대는 빨치산본부가 있어 제18전투경찰대대 및 제5사단이 탈환하기 위해 들어와 주민들을 모아 놓고 취조하던 중 총살시켰음. • 당시 제18전투경찰대대는 심곡리에 들어와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부수고, 귀중품을 약탈하고 가옥을 불태웠음.

진안군

20	3089	양재진 (1938)	양재춘 정문표 김기성 김철주	형 이웃 이웃 이웃	2008.9.10. 신청인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재춘, 정문표, 김기성, 김철주는 어느 날 밤 장승지서 경찰이 와 잡아갔음. • 양재춘 등은 아무 이유 없이 잡혀갔는데 10일 후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음. • 양재춘의 처는 시신을 찾으려고 고타재 등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음. • 이들이 장승지서에서 진안경찰서로 넘어갈 때 옷을 찾아가라고 했다하며 옷에 고춧가루가 범벅이 되었다고 함. • 잡혀간 4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시신은 찾지 못하였음. • 양재춘은 백씨집안 일을 하였음. • 인민군점령기 마을사람들 중 인민위원장인 있었고, 치안대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어 감시 대상이었음. • 양재춘으로 인해 남은 가족이 감시를 받는다거나 불이익을 받는 등 별다른 피해는 없었음.
21	9092	이인선 (1938)	이정옥	부	2008.9.11. 대전 석교동사무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정옥 등은 전쟁 당시 경찰이 동네로 몰려들어 피신했으나 뒷산에서 잡혀 총살당했음. • 당시 저녁에는 빨치산이 괴롭히고 낮에는 유격대(경찰)가 들어와 있었음. • 주민에게서 이정옥의 사망사실을 듣고 뒷산에 가 시신을 확인하였음. 이종옥은 이금동, 안순영과 윗동네 사람 4명과 함께 총살당하였음. • 죽은 사람들은 모두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었으며 부역은 하지 않았음. • 아버지 제삿날은 음력 9월 12일이며, 사망하던 해는 1950년으로 알고 있음. • 희생자들은 모두 30~40대였음.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21	9092	이인선 (1938)	이정옥	부	2008.9.11. 대전 석교동사무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경찰 유격대들에게 밥을 해줬는데, 아버지 사망사실을 유격대원에게 말하자 안색이 변했으며, 그 이후로 경찰들은 신청인의 집에서 떠나 판집으로 이동하였음.

고창군

22	4439	유동란 (1936)	임인택 엄종섭 김병현 유홍중 엄규섭	주민	2007.8.24. 진실화해위원회	시신목격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주민 임인택, 엄종섭, 김병현, 유홍중, 엄규섭 등 5명이 희생되었음. • 1950년 10월 30일경 국군이 마을로 들어오자 젊은이들이 마을 뒷산으로 피난 갔는데 그중 5명이 이유 없이 총살되었음. • 시신은 가족이 백양동 뒷산에서 수습하였는데 시신 1구는 목격하였음. • 당시 총살한 부대는 고창중학교에 주둔한 부대였음.
23		강성팔 (1948)	강응원	부	2007.8.27.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응원 등은 남당부락 굴속에 숨어 있다 군경의 토벌과정에서 총살되었음. • 강응원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음. • 군경들은 마을주민을 총살한 후 영광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고 함.
24	5294	정건진 ⁹⁾ (1949)	정재국	부	2009.11.25. 대산면사무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인 정재국 등 마을 분들이 1950년 12월 2일 야경을 잘못 섰다는 이유로 대산지서 경찰이 아버지를 비롯해서 강응원, 신회철, 김차석, 한부덕, 등 다섯 분들을 지석리 인근 아산에서 총살시켰다는 말을 동네 분들로부터 전해 들었음. • 주민 이안근이 시신을 발견, 지계로 운구하여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함.
25		김복순 ¹⁰⁾ (1939)	김차석	부	2008.11.20. 신청인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응원과 김차석은 야경을 하다 진주한 군경들에게 잡혀 총살당하였음. • 당시는 죄익들에게 말만 잘못해도 가족까지 죽이던 때로 희생자들은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한 것임. • 신회철의 처는 강성팔, 김차석과 같은 장소에서 총살되었고, 나머지 두 사람의 희생경위는 알지 못함. • 무조건 피난가라고 해서 피난을 간 것으로 그 이유는 알지 못함. • 시신은 뒷산에서 수습하였음. • 사건 이전 무조건 마을을 비우고 피신하라고 하여 도망 다녔음.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25	5294	김복순 (1939)	김차석	부	2008.11.20. 신청인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 당시 마을 출신 ○○의 가족들 을 좌익 쪽에서 죽인 일이 있으며, 본 사건 이후에도 젊은이들이 영광경찰서 에 끌려가 죽은 일이 있었음.
26		신길하 (1961)	신휘철 한부덕	조부 조모	2007.9.3.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부모는 군인들이 수복할 때 영광 으로 피난가다 군경에게 총살되었음.
27	6520	정금순 (1949)	정만수	부	2008.7.1.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전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만수는 당시 고등학교 학생으로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실이 있음. •외사촌오빠인 성욱기는 아버지와 함 께 고창경찰서에 갇혀 있었는데 1950 년 음력 11월경 성욱기와 몇 명만 남겨 놓고 모든 사람을 경찰이 호명하여 트 렉에 실려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함.
28	7629	강승현 (1946)	강봉원	부	2007.8.29.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년 음력 12월 8일 고창군 대산 면 용두부락에서 영광 쪽으로 총성이 있어 성승면 암치 뒷산 생말골로 피난 을 갔다 군인들에게 잡혀 총살되었음. •강봉원의 사신은 어머니가 무서워서 찾으러 가지 못하였다고 함. •강봉원은 빨치산 활동은 하지 않았음.
29	8946	강태원 (1947)	강금동	부	2007.8.29. 진실화해 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산면 춘산리에 군인들이 들어와 집집마다 수색하여 강금동을 데려갔는 데 영광 북문재에서 총살시켰다고 함.
30	9208	공보현 (1969)	공선중 박복기	조부 조모	2007.9.3.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부인 공선중과 조모인 박복기가 거주하던 장성군 마을에 불이 나 고모 공태임이 살던 고창으로 피난해 있던 중 1951년 2월경 고창국민학교에 군경 들이 피난민들을 집결시키고 조사를 하였는데 그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돌려보내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은 고창경찰서로 연행되었음. •공태임은 고창국민학교에 같이 나갔 다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음.
31	9629	김수완 (1951)	김종철	부	2007.9.7. 고창군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림면 송암리 김종철은 강압에 의 해 빨치산에게 밥을 해준 사실이 있으 며 이들 중 한 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김종철이 고창경찰서로 연행된 후 이 후 소식을 듣지 못하였음. •김종철을 연행하기 전 경찰이 동네 어귀에 매달아 놓고 고문하였다고 함.
32	9634	김기모 (1933)	김홍채	부	2007.9.10.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전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홍채는 55세여서 피난을 가지 않 았는데 군인들이 들어와 주민들의 피 난장소를 말하라고 하였으나 모른다고 하자 마을 뒤 대밭에서 총살하였으며, 정취관의 어머니도 함께 죽었음.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33	9655	김요현 (1931)	김환용	부	2007.9.7. 고창군청 2008.10.31. 신청인 자택	시신 직접수습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 갔다 돌아온 이웃 주민들이 시신을 지게에 지고 와 매장하였음. • 김환용은 1950년 11월 2일 피난 간 후 돌아오지 않아 찾아다니다가 7일 후 마을 뒤 송림산에서 시신을 찾았음. • 총이 두개골을 관통하여 희생당함. 당시 군경작전이 많아서 군인들에 의해 희생당하였을 것임. • 김환용은 마을구장이었는데 빨치산 활동을 하지는 않았음. • 당시 마을은 좌익세력이 강하다 하여 젊은이들은 모두 군경을 피해 피난을 다니는 형편이었음. • 시신은 김요현이 수습하였음. • 김환용과 도산마을 최판도가 한 구덩이에 총살되어 있었음. • 인공시기가 끝나고 좌익에 깊이 가담한 사람들은 요시찰자로 잡혀가 행방이 묘연하였음. 희생자는 이후 토벌작전이 시작될 무렵 희생된 것임.
34	9657	김귀현 (1951)	김원철 김철주	부 당숙	2008.7.22. 무장면사무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21일(음)이 제삿날임. 피난 안 나가면 죽인다고 하여 두 분이 한 굴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아침에 발견되어 마을사람 7명과 같이 한재산으로 끌려가서 경찰에게 총살당하였는데 시신수습은 집안어른들이 하였음.
35	9683	이공우 (1947)	손재만	외삼촌	2008.6.12. 심원면사무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삼촌 손재만은 1951년 3월 10일(음2월 3일) 좌치 포위작전 때 군경토벌대에 의해 총을 맞고 도망 다니다가 사망하였다고 한다.
36	9700	오유경 (1972)	오인대	조부	2008.7.22. 고창군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부인 오인대는 학도병과 배석장교였다는 이유로 좌익들과 같이 집안에 굴을 파고 숨어 있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어 1950년 11월경 교흥리 유도리 인근으로 끌려가서 총살당하였음. • 조부 오인대가 잡혀갈 때 조모가 따라가서 총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
37	10603	김명철 (1945)	김판수	부	2007.8.24.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판수는 누명을 쓰고 군경에 끌려가 행방불명되었다고 함. • 경찰에 잡혀간 후 총살장소를 몰라 어머니가 선운사 골짜기 등에 시신을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하였음.
38	1486(1) ¹¹⁾	이강춘 (1936)	이강학	형	2007.9.12. 진실화해위원회 2008.11.19. 고창군 흥덕면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강춘은 빨치산 활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끌려갔지만 이강학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에 소환되었음. • 이강학의 안부를 묻기 위해 부안을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38	1486(1)	이강춘 (1936)	이강학	형	2007.9.12. 진실화해위원회 2008.11.19. 고창군 흥덕면	전문	진술 조서	에서 일하던 이강학을 찾아갔으나 이강학도 부안지사로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행방을 찾았으나 그 후 소식을 듣지 못하였음.

김제시

39	6954	윤성남 (1933)	윤성학	형	2008.3.4. 완주군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윤성학과 함께 전북도경에서 행방불명된 사람이 50여 명이었다고 함. • 윤성학은 임호와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을 하다 김제군 봉남면 건국준비위원회 활동 중 좌익으로 봉남지사에 체포되었다 전주지법에서 6개월형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에서 만기출소했음. • 감옥에서 같이 있던 친구인 김○○의 집에서 청하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그 후 소식을 모름. • 청하지서에서 김제경찰서를 거쳐 전북도경으로 인계되었다고 들었음. 당시 50여 명이 죽은 것은 나중에 알았음. • 윤성학은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을 했고, 이것이 인민위원회로 바뀌고, 지하조직일 때도 지속적으로 활동했음.
40	7579	임소영 (1941)	임종연 임종률	부 숙부	2008.3.4. 완주군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친 임종연은 일제시대 일본유학을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 투옥되었는데 해방 후 전평에 근무 중 1949년 봄 김제경찰서에 검거되었다 전북도경 유치장에 수감되어 희생됨. • 당시 부친이 전북도경 유치장에 수감된 사실은 알고 있었고 전쟁 발발 후 사망 소식은 큰아버지로부터 들음. • 임종률은 좌익, 부역 등의 활동사실은 없었지만 여순사건 후 김제경찰서에 7개월간 수감되었다 석방되었음. • 임종률(막내숙부)과 임석호(작은숙부)는 전쟁 발발 후 사상에 문제가 있다 하여 김제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전주로 이송 중 임석호는 탈출하여 살았고, 임종률은 전주에서 사망하였다고 들었음. • 제적부에 임종연의 이름이 임호로 기재되었음.

익산시

41	8967	허문 (1949)	허은	부	2008.8.27. 신청인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은은 마을이장이었는데 사랑방에서 동네청년들과 있다가 경찰의 검문에 걸려서 끌려간 후 돌아오지 않았음.
----	------	--------------	----	---	----------------------	----	----------	---

제 7 권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41	8967	허문 (1949)	허은	부	2008.8.27. 신청인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은이 잡혀간 후 눈을 팔아서 보내 주면 풀려날 수 있다는 전갈이 인편으로 왔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석달 뒤 총살시켰다는 연락을 받았음. • 진주의 어느 곳에서 총살당하였다고 하여 시신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음. • 희생자가 잡혀간 곳이 이리이나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기억하지 못함.

부안군

42	6792	김인석 (1937)	김순옥	부	2008.6.2. 부안읍사무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순옥은 정미소를 운영하던 중 다른 세 사람과 함께 총살당함. • 김순옥의 사망 전날 빨치산과 치안대가 상서면 간교와 주산면 둔계리 경계지역에서 교전하였음. 교전 중 치안대장 동생이 사망하여 그 보복으로 원둔계 주민을 총살하였다고 들었음. • 교전당일 밤 김순옥의 정미소에 발전기가 고장 나 밤새 불을 켜고 수리한 것이 발미가 되어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총살된 것으로 알고 있음.
43	7546	최점례 (1942)	최귀순	부	2008.6.2. 부안읍사무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리에 있는 한골마을에서 임노동으로 생활하였는데, 1951년 10월경 일을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잠복한 치안대에게 총으로 찔리고 두들겨 맞아 다음날 집에서 사망하였음. • 시신은 어머니와 마을이장, 주민 김래홍이 마을의 산자락에 묻었다고 함. • 최귀순은 농사를 지었을 뿐, 입산이나 부역활동은 하지 않았음. 제삿날은 음력 10월 18일임.

남원시

44	2187	정춘조 (1942)	정득용	부	2008.8.21. 운봉읍사무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득용은 장수 사치부락에 거주하였지만 남원 운봉에서 농사를 지었음. 군인들이 마을에 주둔하던 날 주민 2명과 군인들에게 잡혀서 살해되었음. • 세 사람 중 운봉면 매요리에서 남의 집살이 하던 사람은 군인의 선처로 살아났음. • 계엄 상황에서 정득용은 계엄임을 모르고 새벽에 논에 물 보러 다른 마을로 이동하다가 오인한 군인이 총살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희생사실이 알려지고 시신은 가족 친지가 수습하였음. • 당시 주둔 군인은 3연대 소속이라고 들은 적이 있음.
----	------	---------------	-----	---	----------------------	----	----------	---

나. 피해관련 참고인 조사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피해관련 참고인 조사를 2008년 5월 22일부터 2010년 5월 18일까지 하였다. 피해관련 참고인의 주요 진술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피해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정읍시							
1	215 216 9568	최호범 채영달 최인기	최도범 (남, 22)	주민	전문	2008.10.30.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너머에 빨치산본부가 있어 빨치산들이 밤에는 자주 마을로 들어왔고 낮에는 우익치안대 빨치산 협조 여부를 추궁하며 마을사람들을 두들겨 패곤 했음. • 마을사람들은 빨치산의 위협에 식량을 주고, 도로를 끊거나 전봇대 베는 일에 동원되기도 하였음. • 최인기, 채영달 등 4~5명이 치안대에게 끌려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음. • 당시 옹동지서 백○○이 옹동면 일대에서 악명 높았으며 치안대원과 함께 사람들을 잡아다 두드려 패고, 죽였음. • 인공시기 활약한 사람들은 수복 직후 모두 마을을 떠났음. • 백○○은 이후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맞고 어디론가 사라졌음.
2			김막례 (여, 26)	주민	전문	2008.10.30.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아버지 등이 좌익에게 죽임을 당하고 재산도 빼앗겼으나 재산은 인공이 끝나고 되찾았음. • 인공 때 경찰 및 그 가족을 죽인데 대해 인공이 물러난 뒤 유족이 되감았음. • 백○○은 당시 지서주임이었는데, 자신의 가족을 빨치산에게 잃었다고 함. • 백○○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옹동면

- 8) 채봉건은 최보순의 오빠 최○○가 당시 북한 노래를 부른다고 백○○이 길가에서 머리 뒤편에 총을 찌서 죽이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한다. 신청인 채봉건 진술조서(2008.5.22).
- 9) 신청인 정건진의 진술내용은 다-5294호의 진실규명대상자 강응원, 신휘철, 한부덕의 희생사실에 대한 주요 진술이어서 포함시켰다.
- 10) 신청인 김복순의 진술내용은 다-5294호의 진실규명대상자 강응원, 신휘철, 한부덕의 희생사실에 대한 주요 진술이어서 포함시켰다.
- 11) 다-1486호 진실규명대상자 이강환이 사망한 사실은 『광주·목포·순천·전주·군산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으로 분리되어 2010.5.25. 제134차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되었다.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2	215 216 9568	최호범 채영달 최인기	김막례 (여, 26)	주민	전문	2008.10.30.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산성리 정동부락에 4, 5명이 있었음. •마을에서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음.
3			양명섭 (남, 20)	주민	전문, 최성대의 총살목적	2009.6.19.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옹동지서 백○○이 최○○의 머리를 뒤에서 총으로 쏘 죽이는 것을 목격함. •전쟁 당시 사상을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사감을 갖고도 죽였음. •최호범은 도레미산에서 죽었으며, 채영달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정동마을로 잡혀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음.
4			홍일남 (남, 18)	주민	연행목적	2009.8.31. 참고인 자택 (전화녹취)	•전쟁 초 도레미산에서 우익인사가 빨치산으로 추정된 사람에게 살해되었음. •인공이 물러나고 여러 사람이 묶여서 정읍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음. •그중에는 아들이 빨치산 활동한 것 때문에 끌려간 사람도 있었음. •도레미산 고지에서 치안대 총에 맞아 죽은 시신 한 구를 보았는데 3~4일 방치되었음. 태인 사람은 아니었음.
5			신서균 (남, 9)	주민	시신, 총살목적	2009.9.8.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옹동면 산성리 우동마을에서 한씨집안 사람 4명, 산성마을 주민 1명 등 5명이 한구덩이에서 사망하였다고 들었음. •죽은 다섯 명은 모두 입산자는 아니었음. 시신은 가족이 수습하였음. •백○○이 권태일을 마을 모퉁에서 카빈과 장총으로 죽이는 것을 목격하였음.
6			조익환 (남, 10)	주민	전문	2009.9.8.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전쟁 당시 정동마을에서는 좌익과 우익의 다툼이 있었고, 인공 당시는 우익이 죽었고, 수복 후에는 야간에 죽는 일이 있었음. •당시 백○○이라는 경찰이 있었는데 술을 먹으면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여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음.
7			김현태 (남, 26)	주민	전문	2009.9.8.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태인 도레미산에서 지방좌익에게 집단으로 죽은 일은 알고 있으나 그 후에도 그런 집단적인 희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8			장호상 (남, 30)	옹동초교 교사	전문	2009.9.8.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옹동면에 좌익의 활동이 활발했는데, 지방좌익은 유엔군이 태인에 들어오기 직전 유엔군을 환영할 계획을 세우던 교사 등 옹동면 주민들을 잡아다 정동부락 앞에서 대총으로 찢러 죽였음. •낙동강까지 후퇴했다 수복 후 돌아온 백○○이 임의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있음.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8	215 216 9568	최호범 채영달 최인기	장호상 (남, 30)	옹동초교 교사	전문	2009.9.8.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〇〇이 좌익활동을 한 사람들을 일시에 몰아서 죽인 것을 들었으며, 그때 최호범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입산하였다가 자수한 사람들도 죽었음. •백〇〇의 패악을 그냥 볼 수 없어 방위대에게 잡히게 하도록 부탁하였으나 이미 도망간 후였음. •태인 도레미산에서 우익관련자들이 집단으로 인민재판을 통해 총살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집단적인 총살은 없었음. 	
9	972	김영출 김위도	김소수 (남, 10)	유족	전문	2008.8.25.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령에 사는 친척이 입산자였는데, 이 사람이 잡히자 김위도와 쪽지로 연락을 했다고 하여, 형 김위도와 아버지 김영출이 잡혀갔음. •아버지는 잡혀간 이유를 모르겠음. •잡혀간 날은 1951년 1월 13일(음력)로 정월대보름 전이어서 날짜를 기억함. •할아버지가 희생자들이 군령지로 찾아가 이들의 죽기 전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으나 시신은 찾지 못하였음. •신정동 정해마을에서도 군령에 의해 동네 젊은이들의 희생이 많았음. 	
10			김갑선 (여, 15)	유족	전문	2009.5.25.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영출, 김위도는 산사람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잡혀갔음. 전쟁 때 먼 친척 중 산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었는데 오빠인 김위도와 쪽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함. 아버지인 김영출은 젊다는 이유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잡아갔음. •인공 지나고 군인들이 마을로 들어와 아무 집이나 들어가 2명을 죽이는 것을 목격하였음. 그 후 아버지와 오빠가 산속으로 잡혀갔음. 	
11	6641	한용수	한병직 (남, 13)	친척	전문	2009.9.8.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안어른 4분이 같이 희생되었음. •당시는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이 다치는 상황이어서 빨치산에게 음식을 주는 등 협조하였음. •이러한 사실이 빌미가 되어 잡혀갔으며 당시 백〇〇이 악명을 떨쳤음. •시신은 몇 개월 후에 정동마을 치안대 있는 곳에서 찾아 수습하였음. 	
12			한병택 (남, 10)	친척	연행목격	2009.6.11.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네에서 당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자수하라고 해서 1950년 11월 19일 해질 무렵 자수하러 가던 중 치안대원 4, 5명이 부 한영수를 데려가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그 이후 돌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12	6641	한용수	한병택 (남, 10)	친척	연행목적	2009.6.11.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조서)	<p>아오지 않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동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치안대 건물이 있었는데 그 곳으로 밥을 전달하러 가곤 했는데 열흘 정도 간혀 있었으나 이후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는데 얼마 후 그곳에 없으니 오지 말라고 하였음. •부친 한영수와 같은 집안인 한복수, 한상수, 한태수 및 주민 김기순(김복만) 등 다섯 명의 시신은 집안여인들이 수소문해 두세 달 만에 치안대 뒤쪽으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묻혀 있는 것을 옷과 신발 등을 보고 찾아왔음.
13			김호철 (남, 3)	주민 (김복만 ¹² 의 아들)	전문	2009.9.11.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친 김복만은 누군가의 밀고로 1950년 12월 17일 끌려갔으며, 10여 일 만에 사망사실을 알고 시신을 찾아와 동네에서 매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생된 곳은 매정교 옆임. •우동마을과 산성마을에서 한용수 등 5명이 함께 잡혀가 일시에 죽었는데 백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음.
14			최종식 (여, 30)	주민 (권태일 ¹³ 의 처)	권태일의 총살목적	2008.10.30.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 권태일은 산에도 안 갔는데 빨치산에 협조했다고 하여 옹동지서 백○○에게 총살당하였음. •음력 9월 25일, 권태일이 집 앞으로 끌려나가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실제 빨치산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모두 피하여 마을에 있지 않았음. •인근 마을에서 특히 희생자가 많았음.
15	10189	안재성	김재남 (남, 11)	친척	전문	2008.11.21.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재성은 정읍 소성면 중광리 작천마을에 살다 정읍 신정동 진술인의 마을에 와서 피난하고 있던 중, 군인들에게 잡혀 용산동 석산 앞에서 총살되었음. •당시 산 밑 동네에 빨치산들이 매우 활발히 활동하였고, 군인들은 동네사람들이 잡히면 모두 죽였음. •안재성은 신정동이 불타고 남은 가옥 한 채에 다른 대여섯 명의 주민과 피신해 있다 군인들에게 잡혀갔음. •안재성의 시신은 석산 근처에 살던 친척 김수봉이 수습하였다고 함. •당시 신정동 일대에서는 많은 주민이 군경에 의해 총살되었음.
16			안석근 (남, 26)	주민	전문	2009.5.29.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정동 전지마을에서 안영철, 김판남, 안복성 등 3명의 마을사람들이 경찰에게 잡혀가 총살되었는데, 이들 이외에 군경에 의한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16	10189	안재성	안석근 (남, 26)	주민	전문	2009.5.29.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다른 희생자들은 없었음. •이들이 희생된 때 정해마을 등 인근 주민 들도 일시에 잡혀가 희생되었음.
17			손경선 (남, 18)	주민	주민총살 목적	2009.5.29.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 신정동 석산마을에서 1951년 1월 29일(음 력 1950년 12월 22일) 새벽에 들이닥친 경 찰에게 마을사람들이 모두 잡혔다. 이들 중 12명이 총살되었음. • 경찰은 주민들을 소집해 놓고 죄를 고백 하라고 여러 차례 종용하였음. • 주민을 집결시킬 때 늦게 나왔다고 현장 에서 두 명이 총살하는 것을 목격함. • 경찰이 잡아간 사람 수는 수십 명이었 으며, 그중 일부는 정읍경찰서에 잡혀갔다 이 튄날 석방되었음. • 희생자는 대개 40대 미만이었음. • 적극적인 죄악은 일찌감치 입산해 버리고 사망한 사람은 대개 인공 때 억지로 동원된 마을주민이었으며, 희생자를 가리는 과정이 임의적이었음. • 석산마을 사건이 있기 전, 신정동 정해마 을 주민들은 교암국민학교에 소집하여 그중 일부는 정읍경찰서로 넘기고 남은 10여 명 은 공동묘지인 공동산에 데려가 총살하였음.
18			안영구 (남, 17)	주민	전문	2009.5.29.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 신정동 정해마을 사람들은 인공 당시 봉 화불을 올리는 데 동원되고 했음. • 아버지 안정용은 재산이 몰수되는 상황 에서 정읍으로 피난 갔다 정해마을에 산다 는 이유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돌 아가셨다고 유치장에서 나온 사람으로부터 들었음. • 마을사람들을 교암국민학교에 집결시키 고, 눈을 감으라고 한 후 몇 사람을 뽑아서 잡아가서 죽였음. 1950년 음력 12월 19일 월석리 산고랑에서 죽였음. • 주변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학교로 끌고 갔음. • 희생자 중에는 인민위원장도 있었고, 애 먼 사람도 있었는데 여자도 있었음. • 마을사람들은 경찰이 오면 다 죽인다고 하니까 빨치산을 따라 피난 다녔음.
19			안태원 (남, 11)	주민	시신목적	2009.5.29.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 정해마을에서 어느 날 새벽 방위병인가 하는 사람들이 기관총을 들고 와서 주민들을 교암국민학교로 소집하였음.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19	10189	안재성	안태원 (남, 11)	주민	시신목격	2009.5.29.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들을 눈을 감게 한 후, 사람들을 골라 냈으며, 17명을 제외한 주민은 마을로 돌려 보냈음. •17명은 석고촌 못 미쳐 계곡에서 총살되었는데 현장에서 시신을 목격하였음. •돌아가신 분들의 제삿날은 음력 12월 18, 19일임. •1950년 음력 12월 21일 입산한 작은 아버지를 잡지 못하자 방위대원이 아버지를 잡아 집 근처에서 총살하였음. •당숙 또한 피난을 가던 도중 방위병들이 쏜 총에 죽었음.
20			신복균 (남, 16)	친척	전문	2008.8.26.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복균은 방위군에게 잡혀간 후 소식을 몰랐는데 1, 2년 후 소성 어디선가 집단으로 총살되었다는 말을 들었음. •방위군들은 소성지서 소속으로 소성에서 희생된 것이 분명함. •신복균의 부역 여부는 알지 못함.
21	9351	신복균	이옥순 (여, 22)	친척	전문	2008.10.14.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방 전 향지동으로 결혼해서 들어간 이후 전쟁 당시 희생자가 잡혀간 집의 옆집에서 살았음. •희생자는 원래 정읍 서당촌 사람으로 신씨들이 많이 살던 향지동 친척집에 자주 놀러오곤 했음. •희생자는 잡혀가던 날 친척집에 있다 잡혀갔다는 말을 당일 저녁 들었음. •두 서너 명의 젊은 사람들(학도병 또는 방위대)이 와서 잡아갔음. •왜 잡혀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희생자가 잡혀간 이후 소식을 모름. •소성 어디에선가 소성 사람들이 집단으로 희생됐다는 말을 들었고 그분의 처가 시신을 찾으러 다녔음. •정읍 향지동에서 잡혀갔던 사람은 희생자가 유일함.
22			신옥균 (남, 31)	친척	전문	2008.10.14.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복균은 향지동에 와서 있다가 정읍경찰서에 잡혀가서 죽었음.
23			김봉석 (남)	주민	전문	2009.5.27.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나 무슨 단체에 가입했다고 들었음. •신복균(삼균)이 마을 모퉁에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동네어른이 무슨 당에 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음.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24	9351	신복균	심주섭 (남, 15)	주민	전문	2009.5.27.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삼균은 서당촌에 살면서 친척들이 많았던 향지마을 출입이 잦았음. • 신삼균은 인민군점령기가 끝나고 경찰이 진주하던 때, 경찰에게 잡혀가 며칠 뒤에 죽었다는 것은 어른들에게 들어 확실히 알고 있음.

장수군

25	4799	김호진	정영식 (남, 2)	주민	전문	2008.9.24.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호진이 토벌대에게 사망하였다는 것은 사건을 목격한 아버지 정남용으로부터 전해 들음. • 김호진은 야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군 토벌대의 총격에 사망하였음. • 김호진은 당시 10대 중반이었으며, 이 사람 이외에 희생된 민간인은 없었음. • 봉서리는 김씨와 정씨 일가가 마을임.
26			정판동 (남, 15)	친척	시신목격	2008.9.24.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서리에 빨치산이 가끔 지나간 다음에는 토벌대가 들어오곤 하였음. • 당시 1개 중대의 군 병력이 마을을 지나갔는데 김호진이 마을 뒷산에서 내려오다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으며, 시신은 집에 옮겨놓았을 때 봤음. • 김호진 이외 다른 희생자는 없었으며 당시 마을에 빨치산은 없었음.
27			김광임 (여, 13)	유족	시신목격	2008.9.24.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빠 김호진은 동네 뒷산에서 내려오던 중 동네 방면에서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집으로 옮겼으나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고 사망하였음. • 당시 가족들은 현장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살던 정○○가 부상사실을 알려줘 현장으로 가 희생자를 집으로 데려왔음. • 당시 마을에 치안대로 알고 있는 군인들이 다수가 들어왔다 마을 너머로 갔는데 희생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갔음.
28			김락희 (남, 35)	친척	시신목격	2008.9.25.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호진이 총격을 받을 당시 마을에는 빨치산이 없었음. • 당시 치안대가 총격을 가하였는데 총을 서너 발 쏘았음. • 당시 봉서리에서는 김호진 이외에 민간인 희생자는 없었음.
29			정영숙 (여, 미출생)	주민	전문	2008.9.25.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정아버지가 김호진과 동갑으로 같이 산에서 내려오다 일을 당하였다고 함. • 친정아버지는 김호진보다 몇 발 뒤늦게 산을 내려와 총격을 피할 수 있었음.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30	6142	김갑봉	박영호 (남, 14)	주민	전문	2009.10.7. 참고인 자택 (면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갑봉(다-6142)은 신기부락 출신으로, 전쟁이 일어나자 마을로 돌아와 계북면분주소에서 일을 했는데 당시 30대였음. • 전쟁 당시 신기부락은 20호 정도의 마을이었음. •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가다가 중간에 빼가서 죽었다고 들었음. • 마을에서 김갑봉이 유일하게 희생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매 맞은 사실도 없었음.
31			박종홍 (남, 29)	주민	연행목적	2009.10.7.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갑봉이 분주소장을 맡았던 사실이 있으며, 국민방위군으로 함께 소집되어 장수경찰서 마당에 면 별로 모였음. • 당시 김갑봉은 진술인 바로 뒤에 서 있었는데, 형사가 계북면 사는 김갑봉을 찾으러 왔는데, 김갑봉은 따라간 후 돌아오지 않았음. • '싸리재' 에서 죄악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총살시켰다는 소문을 들었음.
32			조순임 (여, 18)	주민	전문	2009.10.7. 참고인 자택 (면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싸리재' 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것은 알지만, 호덕리 주민은 없었음. • 마을에서 빨치산에 협조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수해서 무사하였음.
33			정두석 (남, 27)	주민	전문	2009.10.8.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에서 인민위원회 활동을 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시켜서 하였는데, 그들 중 수복 후 잡혀 죽은 사람은 없음. • '싸리재' 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과, 지나다니면서 죽은 곳이 저기라는 식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음.
34			신정균 (남, 14)	주민	전문	2009.10.8.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암면 교동리 금천부락 주민 중 죄악활동 하던 자들은 자수하거나 하였고, '싸리재' 에서 죽은 사람은 없었음. • 경찰이 '싸리재' 에서 죄악활동 하던 사람을 총살한 것은 들어서 알고 있음.
35			최윤식 (남, 18)	주민	전문	2009.10.9.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싸리재' 총살지의 위치를 알고 있음. • 누가 누구를 총살시켰는지는 모름. • 총살은 1950년 말 또는 1951년 초 진술인이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되어 갔다 온 사이에 이뤄졌음. • 트럭으로 싣고 와 다수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총살시켰다고 들었음. • 사건 이후 개간이 이뤄지면서 유골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36	6142	김갑봉	전한식 (남, 19)	주민	전문	2009.10.9.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년 12월 장수국민학교에 모여 군 입대를 하였고 그 후 3개월 만에 다시 동네로 돌아와 공비토벌을 하러 다녔음. • 싸리재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37	6714	이영호	이주영 (남, 39)	주민	전문	2008.9.25.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년 봄 무렵, 이○○는 진술인의 양복을 빌려 어디론가 갔다가 결국 돌아오지 않았는데, 인공에 협조했다고 군인이 잡아간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영호는 이방호, 김정택과 함께 갔으며, 모두 돌아오지 않았음. 인공 때 협력했다고 하여 군인이 잡아갔음. • 산서면 하월리는 좌익활동이 활발하였음.
38			방재혁 (남, 16)	주민	전문	2008.9.25.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당시 장수군 청년들이 모두 학교 운동장에 소집되었는데, 형사들이 이 가운데 몇 명을 빼는 것을 목격하였음. • 이때 잡혀간 사람들은 소위 '빨갱이'로 분류된 사람들로 장수 싸리재에서 은밀하게 처형되었다고 들었음. • 이룡리마을 청년은 이방호, 이영호 등 네 명이 죽었음. • 시신을 찾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음. • 이영호 등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39			이강형 (남, 16) 유윤상 (남, 14)	주민	전문	2008.9.25.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는 당시 40대 중반으로 용공자로 분류되어 전쟁 전 장수경찰서에 영치되었다고 하는데, 전쟁 발발 후 다른 사람들과 행방이 묘연해서 알아본 결과 경찰서에서 그들을 데려다 사살했다고 함. • 전쟁 발발 직후 후퇴하면서 이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자 일제히 처단했다고 함. 가족이 함양 어디에서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시신을 찾았지만 위치를 알지 못하여 시신은 찾지 못하였음. • 인민군점령기 빨치산들과 접촉한 사람 다수가 장수 싸리재에서 처형되었음. • 하월리나 이룡리 희생자에 대해서는 말만 전해 들었음.
40	6546	김익철	정계현 (남, 13)	주민	전문	2008.9.25. 참고인 자택 (진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익철은 인민군이 후퇴한 뒤 가을 좌익이라고 경찰에 끌려가 장수 싸리재에서 사망하였다고 들었음. • 당시 마을주민 중 좌익활동 하던 이들은 끌려간 사람은 싸리재에서 죽었음.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40	6546	김의철	정계현 (남, 13)	주민	전문	2008.9.25.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에서 김의철 외에도 정봉헌 부부가 정봉헌의 처남이 빨치산 활동을 하여 경찰에게 불러 다니다 희생됐음. •희생자들이 죄악이라 하였지만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희생자들의 시신도 찾지 못하였음.
41			정남수 (남, 20)	주민 정봉헌의 아들	전문	2008.10.8.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42	6546 6714	김의철 이영호	이곤호 (남, 15))	이혁호의 동생	전문	2008.3.5. 대전시 유성구청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님인 이혁호(방호)는 한청 간부였고, 인민군점령기 분주소에서 일을 하고 인민위원회에 가담한 사실이 있으나 수복 후 자수하고 집에 와 있다가 1950년 12월경 장수군 젊은이들을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될 무렵 소 집에 응했다가 장수경찰서에 연행되었음. •장수초등학교에 소집되어 온 7개면 젊은이들 중 17~18명은 유치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사천으로 보내졌다는 얘기를 목격자로 부터 들었음. •유치장으로 잡혀간 사람 중 인민군점령기 장학사를 했던 이용우는 풀려났음. •이용우에 의하면 유치장에 있다가 자정 무렵 이송시킨다고 트럭에 실려 가던 중 싸리재에서 총살당한 것이라고 하는데 시신은 찾지 못함. •김의철, 이영호, 산서면 하월리 최강렬의 부모, 정남수의 부모, 최강현의 모 등이 사망하였음.
군산시							
43	6828	이동자 채판묵	김형희 (여, 18)	친척	전문	2008.10.7.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 전 박씨 일가와 마을주민들의 분쟁으로 채판묵 형제가 고초를 겪었음. 채판묵을 제외하고 두 동생(채장묵, 채기묵)이 징역을 살거나 경찰에게 쫓겼음. •채판묵과 두 동생은 전쟁이 나자마자 경찰서에서 소환장을 받았는데, 이 중 채판묵, 채기묵이 지서에 가서 유치장에 감금되었는데, 채기묵은 군산경찰서 유치장에서 후퇴하는 경찰에게 죽었고 채판묵은 살아났다고 함.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43	6828	이동자 채판목	김형희 (여, 18)	친척	전문	2008.10.7.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장목은 전쟁이 나자 좌익활동을 하다 인민군이 후퇴하자 빨치산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음. •채장목의 활동 때문에 가족(진술인, 진술인의 모친, 채판철, 채판철의 모친, 채무길 등)이 경찰에 불려 다니고 감금당하거나 고문을 받고 추궁당하였음. •그 과정에서 채판목은 1950년 10월경 경찰의 고문 중에 죽었으며 경찰이 시신을 임의 처리해 수습하지 못하였음. 채판철의 자녀가 이 당시 모두 죽고 모 이씨는 고초를 당하다 자살하였음. 	
44			홍명식 (남, 15)	주민	전문	2009.11.27.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판철은 빨치산 활동을 몇 개월 하다가 죽었음. •채판철의 형도 죽고 형제도 전쟁 때 죽었는데 채판철의 형은 다른 동네에서 살다가 죽었음. 	
45	7112 9375	고신곤	고승곤 (남, 16)	친척	전문	2008.10.15.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신곤은 당시 농협의 전신인 금융조합에 다녔는데, 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이 내려와 공작자와 지주들을 잡아갈 때 잡혀갔다가 면서기를 억지로 맡았음. •인민군이 물러나자 부역을 한 이력 때문에 국군이 들어올 무렵 피신해 다니다가 회현지서에서 나온 치안대와 경찰이 인공 부역자들을 색출할 때 잡혀가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총살되었음. •치안대 관련된 사람이 전해주어 시신은 수습하였음. •당시 고이곤 등 여럿이 잡혀갔는데 고이곤은 풀려났다가 3년 전 사망하였음. 	
46			고무남 안경순	친척	전문	2008.10.15.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의 어머니인 이영도는 희생자 고신곤의 형수로 시신을 찾아왔음. •이영도가 만경강 처형장에 소식을 듣고 갔을 때 시신이 많이 부어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 즉시 찾지 못하고 이튿날 머슴과 함께 가서 찾아왔다고 함. •고신곤은 집안 막내였는데, 고신곤의 활동에 대해서는 집안에서 얘기가 없음. 	
47			전민식	주민	전문	2008.10.15.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우리 구울마을에 특히 좌익활동을 한 사람이 많았음. •인민군점령기 원우리 구울 전○○를 비롯해서 용화, 중석, 원당리 두○○(당시 원당면장을 지내고, 부농이었음) 등 마을유지 7명을 좌익이 황새고개에서 죽이는 일이 있었음.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47	7112 9375	고신곤	전민식	주민	전문	2008.10.15.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우리 구울마을은 부농이 많았고 이들 부농이 고용한 소작농들이 많았는데 이 소작농이 나중에 좌익에 동조하였음. • 진술인의 큰아버지 전갑순은 이장을 했다고 좌익에게 연행되어 전주형무소까지 갔다 왔음. • 종조부 전공덕은 황새고개에서 처형되었는데 큰아들이 이 일 때문에 미쳤음. • 인공시기가 끝나고 좌익활동 하던 사람은 만경강 기전 수문에서 총살당함. •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두 명 정도 있고, 5~6명 정도가 죽었음. • 김재구는 당시 치안대장으로 아버지와 처가 좌익에 의해 무참히 죽임을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좌익을 처단하는데 활발히 활동하였음. • 고이곤은 주민들을 포섭하는 등 좌익의 중심인물이었는데 최근 사망하였음. • 고신곤의 희생사실은 알고 있으나 어느 쪽에 죽었는지는 알지 못함.
48			전길순 (28)	주민	전문	2008.10.15.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출을 않으면 지서에서 잡아갔음. • 인민군이 밀려나고 경찰들이 좌익을 찾으러 다녔으며, 만경강에서 총살당한 사람들이 많았음. 고씨들이 많이 죽었음. • 만경강, 황새고개에서 두 차례 죽었는데 배타고 가다 죽었다는 말도 있었음. • 전공덕이 황새고개에서 죽었음. • 일가 중 한 사람이 경찰에 잡혔음.
49			김점순 김순복	주민	전문	2008.10.15.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이곤은 전쟁 전부터 좌익활동을 한 사람이었는데 몇 년 전 사망하였음. • 고이곤은 우익 쪽 인사 중 일부를 구명해 주어 총살을 면하였음. • 인민군이 들어오면서 전공덕이 황새고개에서 죽었으며, 인민군이 나간 후 고신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 • 김재구는 학당리 사람으로 처가 좌익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그 후 좌익을 보복적으로 처리하였음. • 오빠가 철도경찰이었다는 이유로 인공 때 온 가족이 좌익을 피해 다녔음. • 인공시기 토지를 몰수하였는데 이후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갔음.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50			김기오 (남, 13)	친척	전문	2008.10.16.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용길은 지전에서 총살당하였고, 시신을 찾아가지 못하게 경찰이 막았으나 마을이장이었던 아버지와 집안어른이 ○○을 알고 있어 시신을 찾아왔음. • 총살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아버지가 소달구지를 가져오라고 하여 만경강가로 가서 저녁 어두워질 무렵 시신을 직접 신고 왔음. • 총살된 시기는 가을걷이하던 때였음. • 고사리에서는 김용길이 총살당한 것 이외 민간인 희생은 없었음. • 두○○이 황새고개에서 좌익에게 죽은 후 조카 두○○ 중령이 보복으로 좌익을 총살하였다는 얘기가 돌았으며 김용길이 죽을 때 회현 출신 6, 7명이 죽었음.
51	7112 9375	고신곤	강정래 (남, 27)	주민	전문	2008.10.16.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당시 회현 원당에 살다가 옥산 주유장 서사로 일하다 그곳에서 부역자로 경찰에게 끌려갔음. • 남로당에 소속되어 조직운동에 가담하였던 전력 때문에 전쟁이 나자, 군산경찰서에 미결수로 있다가 수용인원이 많아 군산형무소로 이송되었고, 4개월 정도 복역 후 석방되었음. • 김용길은 같은 회현 출신으로 같이 조직운동을 하였음. • 두○○은 자기 작은아버지가 좌익에게 죽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좌익활동한 사람들을 총살시켰음. • 당시 진술인은 상당 정도의 교육을 받아 조직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활동내용은 별로 없었음.
52			○○○ (남, 미출생)	주민	전문	2008.10.16.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익 총살현장인 만경강 주변 마을에 살고 있음. • 어른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다고 함. 당시에는 평소엔 유감 있던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곤 했다고 함. • 어렸을 때 개펄에서 굴러다니는 유골을 보았음. • 송관섭이라는 사람이 당시 총살에 가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음.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53	7112 9375	고신곤	고칠월 (여, 21)	친척	전문	2008.11.6.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척들이 잡혀가 총살을 당했는데, 인공기 활동한 내역 때문으로 알고 있음. • 가해자는 두○○ 또는 김○○라고 알고 있음. 이후 가족이 특별한 불이익은 받지 않았음.
54			김기순 (남, 13)	주민	시신수습, 목적	2008.11.18.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현면 원우리에서 수복 후 수많은 사람이 인공 때 활약했다고 하여 사상범으로 잡혀갔음. • 진술인의 아버지 김용학 외에 전춘길, 고신곤, 고상곤, 고복술, 고판준 등이 회현지서에 잡혀갔으며 신기촌 강변에서 총살당하였음. • 진술인은 아버지 도시락을 지사로 10여일간 배달하였으며, 총살 전달에는 지서 옆 창고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면회하였음. 당시 창고에는 10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음. • 희생자가 10여 명가량이라 들었으나, 진술인이 어머니, 고병식과 아버지 김용학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을 때 현장에는 4구 정도의 시신이 남아 있었음. 아버지는 코, 가슴에 총을 두 방 맞았으며 현장에서 시신을 지게로 수습해 왔음. • 총살은 새벽에 이루어졌으며, 시신은 오후 3~4시경 수습해 왔음. 당시 현장에는 현장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 • 사건 당시 사상운동을 했다고 젊은이들이 누구나 잡혀 고문당하던 상황이어서 무리지어 숨어 다녔음. • 부친인 김용학은 원우리에 있던 외갓집에 피신해 있다가 동네사람의 신고로 경찰에 잡혀갔음. • 총살책임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확실치 않으나 인공 때 가족이 희생되어 이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김재구가 그랬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음. • 김용학의 총살 이전에도 희생된 사람들이 있으나 사건 당일 희생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에는 인공 때 활약한 사람들도 정식 재판을 받아 무기형 등 실형을 받았음.
무주군							
55	483	전씨 박성여	박영조 (남, 22)	주민	총살목적	2009.11.26.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을 아침 나락을 지고 마을로 올 때, 군인들이 네다섯 명의 사람들을 일본도로 치고 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을 100여 미터 떨어진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55	483	전씨 박성여	박영조 (남, 22)	주민	총살목격	2009.11.26.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p>곳에서 목격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들을 트럭을 타고 왔는데 그중 여자도 한두 명 있었음. • 여자 한 명은 20~30대 정도로 치마저고리를 있었음. • 이들은 빨갱이라고 죽였다고 알고 있으며, 이 중 사전에 사는 김씨가 있었음. • 다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는 알지 못하나 죽장마을 사람은 없었음.
56			이춘임 (여, 30)	주민	연행목격	2009.11.26.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봉수의 조모와 모는 빨치산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자기 집에 숨어 있었음. • 빨치산들이 마을을 나가고 군인(또는 경찰)이 마을에 들어왔고, 아침밥을 먹고 나서 당시 빨치산에 가담한 유봉수의 삼촌에게 갔다 와 내통했다며 유봉수의 조모와 모를 트럭에 싣고 마을에서 장계 방향 어디 근처로 데려갔으며, 얼마 후 총소리가 들려 죽은 것을 알게 되었음. • 당시 이들이 트럭에 싣려 가는 것을 목격했음.
57	6125	박현모 박동열	이석문 (남, 13)	이웃	전문	2008.8.19.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현모와 그의 친구들 15명 정도가 경찰에게 쫓겼으며 경찰에게 잡혀 몽둥이로 맞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음. • 겨울 어느 날 박현모 외 3명이 앞산에서 총살당했다는 말을 들었음. 그의 부친이 아들 시신을 지게로 짊어지고 와서 매장했음. 양 미간에 총을 맞아 얼굴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금니를 보고 알았다고 했음. • 그의 동생 박동열도 형이 죽은 후 경찰에게 끌려가 매를 맞았으며 그 뒤 행방을 알 수 없었음. • 적삼마을 최삼만, 최사만이 이 근방 죄의 지도자였음.
58			박정열 (여, 13)	동생	전문	2008.8.19. 2010.9.15.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오빠 박현모가 구장으로서 마을에서 잘 사는 편이었고 마을청년들이 집에 많이 드나들었음. • 어느 날부터 큰오빠가 보이질 않았는데 한 달 즈음 지난 후 부친이 많이 훼손된 시신을 찾았던 기억이 남. 머리에 총상을 당해 돌아가신 것으로 도망하던 중 총상을 당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됨. • 오빠들이 죽고 난 후 누군가 빨갱이 집이라며 불을 질렀으나 주민들이 도와줘 살 수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58	6125	박현모 박동열	박정열 (여, 13)	동생	전문	2008.8.19. 2010.9.15. 참고인 자택 (진술주소)	있었음. •부친은 작은 오빠 박동열이 용포리 다리 밑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갔으나 시신을 찾지는 못했음.
59			김병길 (남, 15)	이웃	전문	2009.11.25.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용포리 하늘바위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죽었음. •박동직, 박동열은 경찰에게 죽었음.
60			두상영 (남, 19)	이웃	전문	2009.11.25.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박동직, 박동열은 6·25전쟁 발발 전에 죽었음.
61			양중시 (남, 12)	이웃	전문	2009.12.25.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박동직, 박동열이 동네를 고생시킨다고 해서 청년들이 그 가족들을 마을에서 쫓아 버렸음. •경찰들이 와서 그 여동생을 두들겨 팼음. •박동직이 마을에 왔다 올라간 것을 알고 경찰들이 따라 올라가 사살한 것임.
62			이명열 (남, 2)	이웃	전문	2010.9.29. 철목리 (진술녹취)	•같은 마을에 살았던 모친으로부터 들었음. •박현모는 경찰을 피해 숨어 있던 중 먼저 자수한 주민의 신고로 굴속에서 잡혔으며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묶인 채 총살당했다고 알고 있음. •동생 박동열은 20여 일 후 용포리에서 100여 명과 함께 경찰에게 사살되었다고 들었음.
63	9773	김수근 김정갑	조승윤 (남, 15)	주민	총살목적	2008.9.18. 참고인 자택 (진술주소)	•김수근은 친구였으며 당시 16세, 김정갑은 40세 전후였음. •화랑사단과 맹골부대, 무주경찰서 경찰부대, 무주군 학도병, 빨치산 자수한 사람들 부대가 마을에 들어왔다 인민군 숫자에 밀려 퇴각했음. •마을에 인민군 105부대 6지대, 4지대, 전북도당, 무주군당이 있었음. •아군이 들어와 퇴각한 후 인민군들이 마을로 내려와 3일치 밥을 하도록 해 짊어지고 떠났고, 영월봉에 25명 정도의 병력만 보초를 서도록 하였음. •적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아군이 마을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영월봉에서 매복하던 인민군과 교전하여 봉을 탈환하였으나 소대장이 관통상을 입음. •아군이 이런 상황을 오인하여 주민들을 모두 '빨갱이'로 간주하여 주민들을 한곳에 소집하였음.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63	9773	김수근 김정갑	조승윤 (남, 15)	주민	총살목적	2008.9.18.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들을 취조하던 중 김수근에게 무주군 당이 누구 집에 있냐고 묻던 중 실제로 자기 집에서 무주군당이 묵고 있던 김수근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쏘서 죽임. •김정갑은 전쟁 전부터 동네 서기를 하다가 인민군이 점령기 서기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총살시켰음. •당시 모인 사람들 중 국방경비대 가족, 경찰 가족, 군인 가족을 모두 추려내 나머지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방위장교였던 현두식이 주장하여 다들 무사했음. •이 때 마을 가옥은 모두 불태웠음. •인민군은 음력 8월경부터 후퇴하던 병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인천상륙작전으로 길이 막힌 후 못 올라가고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현물세도 받았음. •김수근은 당시 학생이었는데 무주군당 사람들이 그 집에 머무르며 지냈는데, 김수근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음. •사건 이후 마을은 소개되었으며 이듬해 4월 마을로 돌아왔음.
64			이용규 (남, 20)	주민	시신목적	2008.9.18.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천이 수복됐다는 소리를 듣고 마을로 돌아왔음. •마을사람들은 감시를 받고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방위군으로 본인의 집에 가 살림살이를 들어내 놓고, 불을 지르고 마을로 내려와 김수근과 김정갑이 죽어 있는 것을 목격함. •김정갑, 김수근은 좌익활동 등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음. 특히 김수근은 학생이었으며, 단지 군당 사람들이 집에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희생됨.
65			김영욱 (남, 15)	주민	전문	2008.9.19.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수근, 김정갑은 이웃동네에 살았음. •화재가 나고 바로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당시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몰랐으나 며칠 후 알았음. •당시 아군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총을 쏘곤 했는데 살던 마을에서도 길씨라는 사람이 죽은 사실이 있음. •경찰이 심곡리를 소개 후 소각하였음. •마을에 불을 지른 것은 정규경찰과 전투경찰이라고 하는데 정규경찰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음.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66	9773	김수근 김정갑	김진영 (남, 미출생)	김정갑의 손자	전문	2010.5.18 (통화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때 할아버지 김정갑이 어느 날 주무시다가 경찰이 집에 와서 깨우며 몇 가지 일을 물어보다가 집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총살시켰다는 이야기를 아버지 김준규(1999년 사망)로부터 들었음. • 시신이 수습되었으며 김수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진안군

67	3089	양재춘	방영신 (남, 13)	주민	연행목적	2008.8.20.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재춘을 비롯하여 젊은이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동조했는데 이들 중 연행되어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 • 죽은 사람도 있는데, 백만기, 김기엽 등은 수용소 생활을 하였음. • 김두섭은 잡혀갔다 행방불명되었는데, 김철주, 김두섭, 김명옥, 김명문, 백낙봉, 양재춘 등도 행방불명되었음. • 행방불명된 사람의 생사를 몰라 제사는 음력 9월 9일에 지내고 있음. • 전쟁 나던 가을에 사건이 발생하였음. 가을부터 봄까지 의경을 포함한 경찰들이 잡으러 다녔음. • 마을에서 인민군점령기를 전후로 경찰과 청년들 간에 반목이 있었음. • 수복 이후 진안경찰서 정보과 오영구가 마을을 담당하였는데, 70여 가구 중 11가구 가족 구성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장을 시켜 4개월 정도 보고하게 함. • 당시 부귀지서에서 근무하던 의경 박금룡, 박일팔 등은 현재 생존함.
68			정길수 (남, 10)	주민	전문	2008.8.20.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재춘, 정문표, 김철주 등 4~5명이 경찰인지 이북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잡혀가 행방불명되었음. • 희생자들은 부귀면 장승리 어느 골짜기에서 죽었다고 함. • 신청인의 어머니, 조부모가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골짜기에 시신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으며 얼굴이 상해서 인지가 어려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하였음. • 희생자들은 이북 사람들의 짐을 날리다 준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경찰이 잡아간 것임. • 이후 20일 정도가 경과한 후 내통했다고 잡혀 장성 골짜기에서 총상을 당했으며, 잡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68	3089	양재춘	정길수 (남, 10)	주민	전문	2008.8.20.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허간 사람들을 모두 죽였음. • 희생자의 사망 일자를 정확히 몰라 제사는 음력 9월 9일에 지내고 있음.
69			김옥생 (남, 25)	주민	전문	2009.11.26.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 부암마을 인근 곰티재에서 인민군과 경찰이 민간인을 총살한 일이 있음. • 시신이 많아 산짐승들이 많아 시신을 훼손하였고, 마을사람들이 지키고 있기도 하고 했음. • 수복 후 ○○들이 마을마다 조사해서 부역자들을 가려내 죽였음.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간 사람들을 살고, 남아 있던 사람들을 죽는 형국이었음.
70			박금룡 (남, 27)	주민	전문	2009.11.26.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 정곡리에 죄익이 많았다고 알고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마을일을 조금 본 정도임. • 경찰이 부역자를 잡아 많은 활동을 한 사람은 어디론가 데려가 총살하였음.
71	9092	이정옥	이양선 (남, 13)	주민	시신목적	2008.8.20.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 이정옥은 평범한 농부로 군경이 합동으로 토벌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희생되었음. • 좌포리 주민 이금동과 안상순이 사망하였고 다른 동네 주민 3명도 함께 희생되었음. • 주민 시신은 바로 수습되었고 다른 마을 주민의 시신은 가매장되었음. • 좌포리에는 빨치산이 9·28수복을 지나 10월 20일까지 활동하였으며 희생된 것은 빨치산 토벌이 진행되던 때였음.

고창군

72	4439	임인택 엄종섭 김병현 유홍종 엄규섭	유동수 (남, 21)	주민	전문	2008.10.31.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 인공기 인민군에게 이러저러하게 마을사람들이 협조하였는데, 국군이 마을로 들어온다는 것을 전해 듣고는 이를 두려워하여 마을 젊은이들이 피난을 갔음. • 이 동네, 저 동네 모두 피난을 갔으나, 덕산리에서만 희생자가 발생함. • 피난을 떠나는 가운데 군인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포위하면서 총을 쏘았는데 다섯 명 엄기섭(21세), 유홍종(25세), 임인택(30세), 김용현(30세), 종섭(31세)이 군인들에게 잡혀 총살당하였음. • 당시 피난민을 공격한 부대는 화랑부대로 알고 있으며 피난 간 사람은 모두 민간인인 것은 군인들도 알고 있었음.
----	------	---------------------------------	----------------	----	----	---------------------------------	---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72	4439	임인택 엄종섭 김병현 유홍중 엄규섭	유동수 (남, 21)	주민	전문	2008.10.31.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빨치산이 마을사람들을 동원하여 다리를 끊었는데, 이후 사람들은 국군에 다리를 잇는 일에 동원도 되었음. • 사건이후 주민들은 학도대 또는 한청으로 치안유지에 나섰다. • 마을사람들은 양쪽 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젊은이들에게는 빨치산이나 군인 모두 두려움의 대상이었음. • 당시 희생자들의 유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이후 부역 행위에 대한 자수서를 쓴 사람과 그 가족은 불이익 당했음. 	
73	5294	강응원 신휘철 한부덕	김재찬 (남, 23)	주민	시신목격	2008.11.20.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응원과 김차석은 보초를 서다가 군경들이 마을에 오는 것을 보고 도망치다 잡혀 뒷산 산봉우리로 끌려가 총살됨. • 신휘철과 그 처, 정재국은 군경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난 갔다가 잡혀서 산봉우리에 끌려가 죽었음. • 진술인도 피신했으나 사망사실을 듣고, 마을로 돌아와 시신을 수습하였음. • 마을의 젊은 남성들은 인공시기 자위대를 결성하여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보초를 썼으나 무장은 하지 않았음. • 군인이나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 젊은이들을 잡으러 다닐 때 진술인도 피신했다녔지만, 잡혀가지 않아 생존하였음. • 이 사건 이후 여러 사람들이 죄악활동을 했다고 하여 영광경찰서에 잡혀가 총살된 사실이 있었으나, 시신은 찾지 못하였음. 	
74	6520	정만수	성문기 (남, 20)	친척	연행목격	2008.12.9.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읍향토방위대가 죄악활동을 하거나 인공 때 협조한 사람을 잡아들였음. • 정만수가 실종될 당시는 분위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토방위대는 죄악활동자들은 잡히면 모두 죽이던 때였는데, 정만수는 자수한다고 혼자 나갔다가 대신면 어느 모정에서 향토방위대를 만났다고 함. • 향토방위대원 중 누가 정만수의 활동을 아는 사람이 있어 잡아갔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서 죽였는지 알 수 없음. • 정만수는 인공 때 청년단활동을 했음. • 정만수 이외에도 향토방위대가 죽인 사람들이 있었음. • 매산 청년들은 이후 분위기가 가라앉은 때, 고창경찰서에 자수하였으며 모두 무사하였음.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95	6520	정만수	최장호 (남, 19)	주민	전문	2010.3.29. (통화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 최장호는 전쟁 나기 전까지 희생자와 같은 마을에서 살았으며 고창 북중 2학년이였음. 전쟁 발발 후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5년 만에 휴가차 집에 돌아와 정만수가 죽은 것을 알았음. • 1950년 12월 초(음) 정만수가 스스로 경찰에 간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함. • 당시 고창에는 20연대가 주둔하였음.
76	7629	강봉원	성석천 (남, 22)	친척	전문	2008.10.29.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 대신면 회룡리마을 사람들이 모두 전라남도 장성으로 피난을 떠났음. • 피난을 떠난 다음날 피난민들을 향해 총격이 가해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회룡리 사람들이 많이 죽었음. 그중 강봉원도 죽은 것을 나중에 알았음. • 피난민들은 모두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피난 짐은 가지고 있지 않았음. 무장을 하고 있지도 않았음. • 시신을 찾지 못했음.
77			김영우 (남, 15)	주민	전문	2010.4.14. (통화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강봉원과 같은 마을에 살았으며 전쟁 당시 피난을 가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었음. • 피난 갔다 온 사람들에게서 1950년 12월 경(음) 강봉원이 생말골에서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들었음. 마을에서 6-7명이 사망하였다고 함. • 시신수습은 하지 못하였다고 함.
78	8946	강금동	황경선 (남, 18) 소상호 (남, 9)	친척 주민	시신목적	2008.11.1.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금동과 황삼길(호적상 황치규), 김경남이 함께 잡혀가 총살당하였음. • 7명 정도가 영광경찰서로 잡혀간 뒤 세 명이 며칠 후 총살당하고, 나머지는 풀려났음. • 현장에서 총살된 사람은 인근 마을에서 잡혀 온 사람까지 30여 명이 넘었음. • 진술인 황경선은 총살현장에 가서 황삼길의 시신을 찾았지만 경찰이 위협하여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음. • 당시 마을에서 인공에 협조하지 않던 사람은 좌익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강현상은 마을에서 도망가 경찰서에 들어가 있었음. 이 사람이 추후 총살자를 가리는 데 협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실제로 좌익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사람들은 이미 도망가거나 총살되었음.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78	8946	강금동	황경선 (남, 18) 소상호 (남, 9)	친척 주민	시신목격	2008.11.1.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된 사람들은 풀려난 사람들과 별반 다른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었음. • 군인들은 마을에 들어와 젊은이들을 모두 영광경찰서로 잡아갔음.
79	9208	공선종 박복기	공태임 (여, 19)	유족	연행목격	2008.11.20.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의 아버지, 어머니 공선종, 박복기는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안정에서 살다 동네가 모두 불타 고창읍 신흥동에 있던 진술인의 집으로 피난을 왔음. • 서리가 내리던 추운 날 경찰이 고창읍에 살던 사람들을 고창국민학교로 소집하였으며, 예비군, 피난 온 사람, 읍 주민은 따로 줄을 서게 하였으며 이들 중 피난 온 외지인을 경찰서로 끌어들임. • 이후 어머니 아버지의 소식을 알기 위해 고창경찰서로 가 보았으나 알아내지 못하고, 그 이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음. •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으며, 특별한 활동 전력이 없었음. • 사람들을 집단처형하였다는 소문이 떠돌곤 하였으나, 확인된 것은 없었음.
80	9542	조윤희	도산리 주민	주민	전문	2009.2.4.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의 부친을 비롯하여 대산면 해룡리 주민들이 고창읍 도산리에서 총살되었다고 하였지만 주민들은 군경 토벌작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였음.
81	9629	김종철	이재남 (남, 11)	주민	전문	2008.11.19.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철은 경찰에게 잡혀가 그 후 소식이 없고 시신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동네어른 들로부터 들었음. 김종철 외에 진술인의 작은아버지도 행방불명되었음. • 이들이 사라질 때는 밤에는 빨치산이, 낮에는 경찰들이 활동하던 때였음.
82			오달상 (남, 17)	주민	전문	2008.11.19.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철은 빨치산과 내통했다고 해서 경찰에 잡혀갔으며 이후 소식이 없었음. • 당시는 빨치산이 마을에 들고 날 때였는데, 전쟁 발발 1, 2년 후 어느 날 밭에 분노를 주고 오던 김종철을 경찰들이 잡아갔음. • 김종철의 가족은 김종철의 소재를 수소문했으나 면회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시신을 찾으러 고창을 헤매고 다녔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함. • 마을에 김종철 외에 희생자는 없었음.
83	9634	김홍채	김태원 (남, 8)	친척	시신목격	2008.10.31.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도병이 마을로 들어와 김홍채를 동네 뒤편으로 끌고 가 총으로 쏘 죽였음. • 김홍채의 셋째동생이 인공기 인민위원장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83	9634	김홍채	김태원 (남, 8)	친척	시신목격	2008.10.31.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p>이었는데 이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홍채의 죽음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같은 날 정회관의 노모를 집 앞에서 총살 시키는 것을 목격하였음. • 군이 진주하자 인공기 부여했던 마을 사람 7~8명이 굴에서 피신을 하였는데 결국 군인들에게 구타당하다 총 맞아 죽은 사건 또한 마을에서 있었음. • 당시 마을에서 김해김씨와 한 씨들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수복 후 한윤석은 학도병들을 마을로 데리고 들어왔으며 인공기 부여자들을 임의로 처단한 것임. • 시신은 모두 수습하였음.
84	9655	김환용	김요섭 (남, 24)	친척	전문	2008.10.31.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사람들이 인공기 부여를 하여 국군이 수복할 당시 청년들이 국군을 피해 피신을 다녔음. • 젊은이들은 한꺼번에 몰려서 도망을 다녔으며 무장을 하고 있지는 않았음. • 김환용은 젊은이들과는 별도로 피신하였는데, 의용경찰 또는 학도대에 잡혀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김환용의 시신수습 여부는 알지 못함. • 송계리에서는 김환용 외 초등학교 선생이었던 김치용이 죽었음.
85	9657	김원철 김철주	김숙환 (남, 23)	친척	전문	2009.2.5.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원철, 김귀현 등 5~6명은 피난을 다니다가 경찰에게 잡혀 한재산 꼭대기로 끌려가 죽었음. • 젊은이들은 빨치산들이 피난을 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여 피난을 다녔음. • 진술인 또한 같이 피난을 다녔으며, 희생자들이 잡혀가던 날은 경찰이 새벽에 마을을 포위해 들어왔고 포위망에 있던 사람들은 잡혀서 죽었으며, 포위망을 벗어나 피난해 있던 사람들은 무사하였고 피난을 가지 않고 집에 있던 사람들은 무사했음.
86			서태영 (남, 16)				주민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87	9657	김원철 김철주	주기순 (여, 21)	유족	시신목격	2009.2.5.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들은 마을 삼밭 밑에서 피난하고 있다 경찰에게 잡혀 한재산 어딘가에서 총에 맞아 죽었음. • 진술인은 남편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현장에 가서 7~8구의 시신이 총에 맞아 죽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음. 김원철은 가슴을 총을 맞아 죽어 있었으며 시신은 그날 수습하여 현장에 묻었음. 10년 전 쯤 마을로 이장하였음. • 마을주민들은 10월경 피난을 다니기 시작 하였으나, 언제부터인지 부녀자들은 피난을 가지 않았고 젊은 남자들만 한 달이 넘게 피 난생활을 하였음. • 피난을 간 마을청년들은 무장을 하고 있지 않았음. 죽창도 들고 있지 않았음. • 사건이 일어난 후 사람들이 자수하였고 이후 마을에 희생은 더 이상 없었음.
88			김숙환 (남, 23)	친척	전문	2009.2.5.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원철, 김귀현 등 5~6명은 피난 중 경찰 에게 잡혀 한재산 꼭대기에서 죽었음. • 젊은이들은 빨치산들이 피난을 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여 피난을 다녔음. • 이들은 무장을 하고 있지 않았음. • 진술인 또한 같이 피난을 다녔으며, 희생 자들이 잡혀가던 날은 경찰이 새벽같이 마을 을 포위해 들어왔고 포위망에 있던 사람들은 잡혀서 죽었으며, 포위망을 벗어나 피난해 있던 사람은 산 것임. • 피난을 가지 않고 집에 있던 사람들은 무 사했음.
89	9700	오인대	손춘자 (여, 15)	주민	연행목격	2010.6.3. (통화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인대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주민인 데 대한민국이 진주했을 당시 젊은 남자들이 많이 잡혀가던 시기에 경찰에 의해 붙잡혀가 서 총살당하였음. • 당시 경찰에 붙잡혀 가는 것을 직접 목격 하였으며 마을주민 여럿이(11집 정도) 함께 죽었는데 제사는 음력 동짓달임.
90	10603	김판수	김두환 (남, 22) 김명진 (남, 8)	친척	연행목격	2008.10.31.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 김두환은 김삼수(판수)는 무장지 서 ○○에게 포승에 묶어 연행되는 것을 목 격하였는데, 이후 돌아오지 않았음. • 김두환은 남 ○○으로부터 김삼수가 전주 형무소로 넘겨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음. • 당시는 마을의 젊은 남자들은 맞거나 사 소한 일로도 잡혀가던 시기였음. • 김삼수는 인공 당시에도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았음.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91	1486(1)	이강학	이강준 (남, 28)	친척	전문	2008.11.20.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은 이강학, 강환의 사촌형으로 이들이 경찰서에 끌려간 후 소식이 두절된 사실을 알고 있음. 	
김제시								
92	6954	윤성학	박용운 (남, 25)	주민	전문	2008.10.17.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성학은 마을에서 활동하기보다는 먼 단위로 좌익활동을 했음. 윤성호, 성학, 성남은 형제였는데 이리로 이사 간 후 성호, 성학은 죽었다고 들었으며 언제인지는 알지 못함. 	
93	7579	임종연 임종률	윤성남 (남, 18)	주민	전문	2008.3.4. 완주군청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성학은 임호와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을 같이하다 김제군 봉남면 건준 활동 중 좌익 혐의로 봉남지서에 체포되었음. 임호, 윤성학 등의 살해사실은 김종복, 이종린에게 들었음. 	
94	10140	곽동호	곽인수 (여, 25)	주민	전문	2008.6.4. 전주시 덕진구청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1년 10월 25일 경 아버지 곽동호가 동생들 시집에 쌀을 얻으러 갔다가 대한청년단 대원에게 붙잡혀 원평지서로 연행되어 갔다. 연행된 후 일주일 동안 밥을 해서 넣어주었는데 일주일 이후로는 밥을 받아주지 않아서 아버지가 그 전날 사망하였다고 생각함. 제삿날은 음력 10월 2일임. 사망한 지 3년 후에 원평면사무소 뒤편에서 유골이 발견 되었다는 이야기를 집안어른들에게서 들었음. 	
부안군								
95	6792	김순옥	김종철 (남, 20)	주민	시신목적	2008.10.28.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순옥이 이웃 동네에 작은 방앗간을 만들어가지고 이사를 왔음. 김순옥이 희생될 당시, 밤마다 빨치산이 마을에 출몰하여 피난 다니던 때임. 김순옥은 방앗간 기계가 고장 나 밤에 불을 켜 놓고 기계를 고쳤음. 소주리에서 당시 치안대장을 하던 박종만의 동생 박종철이 빨치산에게 죽임을 당한 다음날 아침 경찰이 돈계리로 들어와 주민을 불러 모았고, 전날 불을 밝히고 일했던, 김순옥 등 인공시기 부역을 했던 최병춘, 김재식의 형과 함께 주산지서로 끌려갔음. 인공 때 집안을 보호해준 최병춘을 은인으로 알아 그 시신을 찾으러 주산지서로 가 김순옥의 처형된 시신을 보았음. 희생자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갔으나 치안대에 의해 처형되었음.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95	6792	김순옥	김종철 (남, 20)	주민	시신목적	2008.10.28.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돈계리는 빨치산 근거지인 변산이 마주 보이는 곳으로, 빨치산이 교신을 위해 봉합 불을 올리던 곳이어서 김순옥이 일을 하기 위해 불을 밝혔던 것을 빨치산과 교신한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임.

남원시

96			장병철 (남, 16)	주민	전문	2008.8.21.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득용은 장수면 유정리 사치부락 거주자로 운봉면 매요리 농토에 농사를 지으러 왕래하였음. •한국군 후퇴기 마을 주변에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운봉면 논을 보러가던 정득용이 군인들을 보자 도중에 있던 주막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군인들에게 잡혀 총살당하였음. •당시 동네에 이와 같은 사실이 즉시 알려졌는데 계엄 상황이라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함. •당시 사치부락은 다른 마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전쟁 피해가 거의 없었음. •현장에서 동네사람들이 시신을 묻는 것을 도왔음. 나중에 유골을 이장했음.
97	2187	정득용	장권섭 (남, 15)	친척	전문	2008.8.21.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치마을은 장수에 속하고 2킬로미터 되는 곳에 운봉이 있는데 사치마을 쪽에 농토가 적어 사치마을 주민이 운봉에서 농사를 지었음. •정득용과 같이 잡힌 매요리 사람은 군인의 선처로 살았음. •정득용을 현장에서 매장한 사람 중 한 명이 김용임. •사치부락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다른 피해는 없었음.
98			김용 (남, 17)	주민	시신목적, 직접매장	2008.8.21.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요리 거주자로 정득용의 시신을 군인들의 지시에 의해 직접 매장하였음. •희생자의 사망시기를 보도연맹원을 잡아갈 즈음으로 기억하고 있음. •정득용은 다른 두 명과 함께 호국군에게 붙잡혀 총살당하였음. •그중 한 명은 매요리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사람으로 군인의 선처로 살았는데, 나중에 그 일 때문에 실려준 군인이 상관에게 구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함. •진술인은 호국군의 심부름을 해주었는데, 총살당한 사람의 시신을 매장하였음. •시신 2구는 각각 가족이 수습하였음. 정득용 외에 분의 신원은 알지 못함.

다. 군경 측 참고인 조사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군경 측 참고인 13명을 2009년 5월 27일부터 2009년 9월 8일까지 조사하였다. 군경 측 참고인 진술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군경 측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1	이현주 (28)	옹동지서 방위대원	2009.5.27. 정읍시 옹동면	진술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동지서 백○○과 함께 치안활동을 하였음. • 옹동지서 근무 경찰관은 모두 3명으로 백○○¹⁴⁾은 순경으로 근무하면서 빨치산과 관련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였음. • 사람을 잡아서 동네를 나오는 중 사살하는 것을 목격함. • 당시 지서주임이 따로 있었으나 백○○의 임의적인 행동을 막지 않았음. • 다른 경찰은 백○○과 같이 임의로 사살하거나 하지 않았음. • 백○○이 이후 전주로 전근을 가서 그곳에서 경찰을 그만뒀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으나 현재 생사 여부는 알지 못함. 	215 외
2	민용식 (20)	옹동지서 학도의용대	2009.5.28. 정읍시 옹동면	진술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의 이름은 백○○이고, 지서주임은 따로 있었음. 밤에는 빨치산의 기습이 잦았음. • 백○○과 방위대원들은 빨치산 하던 사람을 잡아다가 조사를 한 후 옥석을 가려 죽일 사람은 죽이고 풀어줄 사람은 풀어줬음. • 총살 여부는 경찰이 결정하였으며, 죽일 사람은 지서 근처에서 죽였음. 수복 후 바로 이런 일이 있었음. • 자수자는 데려다 훈련시켜 방위대에 가입시키고 하였음. 입산했던 사람 중 내려와서 잡힌 사람은 죽임을 당하였음. • 경찰은 감시 대상 인물 명단을 만들어 감시하였으며, 사상전향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켰으나, 전향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백○○ 등 경찰이 직접 동네에서 쏘아 죽였음. • 경찰은 의경들과 무장을 하고 직접 전투를 하였고, 다른 경찰들은 주로 지서에서 내근하며,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 • 백○○이 사람을 총살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총살하며 다닌다는 말을 들었음. • 옹동면 남부 쪽에 죄의활동이 더 활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죽은 인구가 많았음. 	215 외

12) 정읍시 옹동면 미신청 희생자

13) 정읍시 옹동면 미신청 희생자

제 7 권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3	박일남 (30)	방위대원	2009.6.19. 참고인 자택	진술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대로 활동할 당시 누가 총살을 했는지는 모르나 15구가 넘는 시체를 백〇〇이 매장하라고 해서 시신을 직접 매장하였음. 	215 외
4	왕기춘 (19)	학도의용대원	2009.9.8. 정읍시 옹동면	진술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에서 지방좌익에게 여러 명이 죽었음. • 백〇〇은 타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잡혀갔다 풀려 나오기로 되어 있는 젊은이들을 어느 날 저녁 정동 교회 밑 치안대 건물에서 총으로 쏘 죽였음. 그날 저녁, 마을 청년 8~9명이 한꺼번에 죽었음. • 잘 알지도 못하고 공산당에 가입했다가 이후 두려움에 입산했던 젊은이들이 지수를 하러 내려오곤 했는데, 십여 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치안대에서 임의로 죽이곤 했음. • 인공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복수심으로 사람들을 임의로 죽이곤 했음. • 인공이 왜해된 해 겨울과 봄 사이 그러한 일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음. • 백〇〇은 보복이 두려워 마을에서 나갔음. 	215 외
5	송철호 (24)	소성지서 방위대원	2009.5.27. 정읍시 소성면	진술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대원 황성희는 좌익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으로 좌익활동자들을 구타하곤 하였음. • 부역자들을 관리하는 명단이 있어 이들은 감시대상이 되었음. • 보복행위에 의해 사람이 죽었음. • 처벌 대상자는 지서로 잡아들이고 조사를 해서 경찰서로 넘길 사람은 넘겼지만, 이들을 죽인 사실은 알지 못함. 	9351
6	노상영 (21)	소성지서 방위대원	2009.5.27. 정읍시 소성면	진술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역자들을 지서에 잡아 놓고 저녁에 지서 근처 산에서 총살하였음. • 초기에는 하루저녁에 대어섯, 여남은 명을 죽이기도 했음. • 부역자는 정도에 따라 심할 경우 지서에서 사살하고, 나머지는 정읍경찰서로 넘겼음. 	9351
7	한재연 (24)	소성지서 의경	2009.5.28. 정읍시 소성면	진술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역자 처리는 주로 경찰들이 했고, 의경들은 알지 못함. 	9351
8	김재구 (27)	회현면 치안대장	2009.5.27. 군산시	진술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전부터 대한청년단 회현면 단장을 맡아 활동하였음. • 인민군점령기 본인이 피난 갔을 때 회현면의 좌익이 아버지와 처를 살해하였음.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복 후 좌익들을 처단하였음. • 수복 5일 후 치안대는 부역자 수백 명을 회현지서로 잡아들였고, 당시 법무관 두〇〇 대위의 명령으로 10여 명을 골라내어 신기촌 지전 강가에서 총살하였음. • 총살은 두〇〇이 데려온 군인들이 집행했으며, 치안대는 관여하지 않았음. • 당시 아버지 시신을 찾지 못해, 치안대로서 활동을 활발히 하지는 못했음.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8	김재구 (27)	회현면 치안대장	2009.5.27. 군산시	진술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살시키지 않은 부역자들은 석방시키거나 군산형무소로 압송하였음. • 원우리 희생자들은 죄악활동을 활발히 하였던 사람들이라 처형되었으며, 이들 중 고상곤은 자기 장인을 죽이기도 하였음. • 두○○은 대상자들의 자술서를 받는 절차를 밟았는데 분류기준은 확실히 알지 못함. • 고신곤, 고상곤이 죽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김용길은 당시 특별히 활동을 하지 않아 죽을 사람이 아니었으며, 총살 여부는 모름. • 처형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으며 그곳에서 집단 처형은 한 번 있었음. 	
9	조운제 (17)	대성리 의용경찰	2009.10.8. 장수읍 대성리	진술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성리 인민위원장이던 최○○, 총무격인 강대희가 수복 직후 경찰에 압송되어 갔음. • 최○○은 뇌물을 줘서 풀려났지만, 강대희는 장수에서 장계 가는 어디서 총살되었다고 함. 김원기도 함께 총살되었음. • 당시 장수 곳곳에서 죄악활동하던 사람들을 장수읍 쓰리재에서 한꺼번에 총살시켰음. 	
10	임순승 (19)	산서면 대한청년단	2009.10.8.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죄악활동하던 사람 중 산서면 면당 활동하던 사람이 경찰에 끌려가 장수 산등성이 어디서 죽었다고 함. 	
11	권장원 (20)	산서면 의용경찰	2009.10.8.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죄악활동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름. • 당시는 무법천지로 붙잡아 들어 죽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 	
12	김봉규 (24)	진안 결사대원	2009.3.10. 진안읍 노인요양원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안결사대는 전쟁 직후부터 활동하였음. • 진안결사대가 진안군 성수면을 도토리, 신리, 좌포리 등으로 수복해 들어갔음. • 좌포리 수복할 때는 군인, 경찰들은 없었고, 민간 치안대와 같이 들어갔음. • 당시 민간 치안대는 지서에서 관할을 못해서 결사대가 관할했음. • 성수면 들어갔을 때, 바로 좌포리도 들어갔으며, 가서 빨치산으로 활동하는 마을사람들과 교전이 있었음. • 교전 상대는 20~30대 30~40명으로 무장하고 있었음. • 결사대는 처형한 적은 별로 없고 대부분 적과 교전하는 중에 적을 사살하였음. • 진안결사대는 임실, 순창, 장수 등 산간부로 주로 다녔는데 1957년까지 활동하였음. • 진안결사대는 경찰 소속이었음. • 성수면 진입해 들어갈 때 다른 부대는 없이 결사대원 17명기량만 들어갔음. 	

제 7 권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12	김봉규 (24)	진안 결사대원	2009.3.10. 진안읍 노인요양원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사대의 전투일지는 결사대장 문흔모가 가져갔으나 어떻게 되었는지 모름. • 결사대의 성과는 경찰 성과로 보고되었음. 	
13	정창환 (18)	대산지서 학도호국대원	2009.9.22. 선산마을 유족회사무실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12월 2일 지식리에 살고 있는 강응원, 신희철, 김차석, 한부덕, 정재국 등이 경찰토벌대에 의해 부역자란 이유로 총살되었다는 사실을 문자 이름은 모르지만 경찰토벌대가 지식리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들었음. 	

라. 자료 조사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대부분 진실규명대상자들이 임의 처형되어 관련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는 대부분 없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9568호 사건 진실규명대상자 최인기(정읍시 옹동면)¹⁵⁾, 다-483호 사건 진실규명대상자 전씨, 박성여(무주군 안성면) 신청인 유해수의 삼촌 유영옥¹⁶⁾의 형사기록,¹⁷⁾ 다-6954호 사건 진실규명대상자 윤성학(김제시 봉남면 대송리)의 사건기록,¹⁸⁾ 다-7579호 사건 진실규명대상자 임종률(김제시 봉남면 신호리)의 판결문¹⁹⁾을 확인하였다.

그밖에 빨치산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경찰대일일보고』²⁰⁾, 『소성면 면지』, 『전북경찰60년사』,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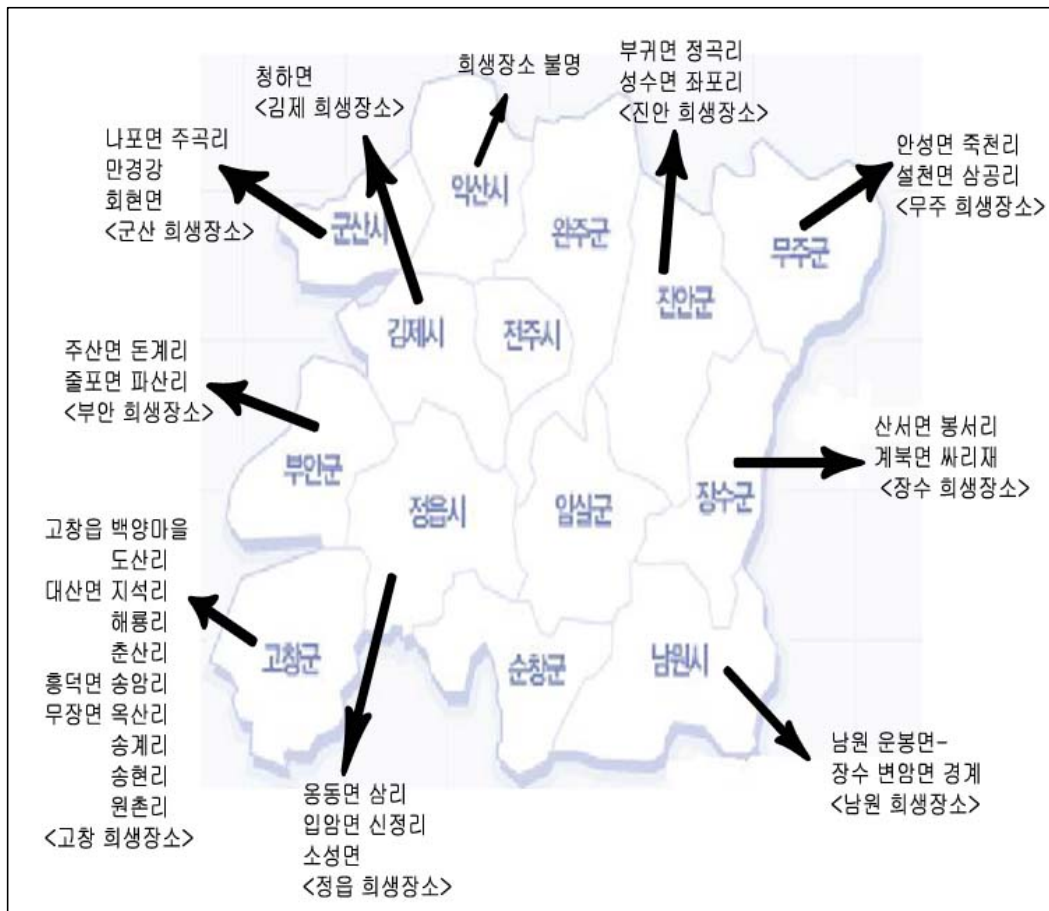
마. 현장 조사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전북의 10개 지역(정읍시, 장수군, 군산시, 무주군, 진안군, 고창군, 김제시, 익산시, 부안군, 남원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이 신청되었다.

- 14) 진술인들이 백○○의 이름을 ‘백○○’ 또는 ‘백○○’이라 하여서 근무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근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15) 최인기의 경우 1948년 집회와 관련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 16) 유영옥은 당시 23세 정도이며 전쟁 전에 체포되어 남원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구금되어 있다가 탈출하여 빨치산에 들어갔다고 한다. 신청인 유해수 진술조서(2007.3.2)
- 17) 유영옥에 대한 중앙 식량규칙 제2호 위반 사건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4천 원에 처하고 유영옥의 징역형에 대하여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1947년 전주지검 판결문이다.
- 18) 윤성학의 경우 1948년 법령 제19호 제4조(정부계획방해기도)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 19) 임종률의 경우 1948년 집회와 관련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 20) 『빨치산 자료집』 수록분, Daily Enemy Activity Report, Headquarters, National Police, Republic of Korea, Office of the Director

신청인들이 피해장소라고 주장하는 정읍시 옹동면·신정동·입암면·소성면, 장수군 산서면, 군산시 나포면·만경강, 무주군 안성면·설천면, 진안군 부귀면·성수면, 고창군 고창읍·아산면·대산면·신림면·무장면, 김제시 청하면, 부안군 주산면·줄포면, 남원시 운봉면·변암면 등의 사건현장에 대해 조사하고 목격자 및 참고인으로부터 사건경위, 시신수습 여부, 희생자 수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였다.

[그림 1]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발생장소



II. 조사결과

1. 사건배경

가.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성

전라북도지역은 전주-정읍 축을 경계로 하여 동쪽은 등고선이 밀집되어 산세가 험하고 서쪽은 대부분 해발 100미터 미만이다. 노령산맥을 경계로 서부 평야지대와 동부 산간지대로 구분된다.

평야지대는 노령산맥의 산록 말단부에서 서해안까지 대부분 넓은 구릉지와 충적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동부 산간지대는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을 끼고 있으며 해발 1,000미터 이상의 산과 분지, 고원이 분포한다. 또한 전라북도는 노령산맥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만경강과 동진강, 진안고원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섬진강, 소백산맥의 남서부 줄기에 자리 잡은 장수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금강이 있다.

나. 한국전쟁 전후 상황

전라북도는 농업 중심지로서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겪으면서 지주와 소작인의 대립이 심하였고 좌·우익의 갈등도 많았다.²¹⁾ 전북지역도 다른 지역과 같이 인민군점령기에는 좌익에 의한 우익의 살해가 있었고, 이후 인민군이 후퇴한 뒤에는 군경에 의한 부역자, 좌익관련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복이 잇따랐다.²²⁾

1950년 10월 인민군 후퇴기에는 퇴로를 확보하지 못한 인민군 및 지방좌익이 내장산을 중심으로 산간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빨치산 활동을 억지할 수 있는 군과 경찰력이 충분하지 못하자 각 지역 청년들을 중심으로 향토방위대를 편성하여 병력의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민군점령기 좌익에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향토방위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복적인 부역자 처벌이 이루어졌다.

수복 당시 정읍경찰서장 신도중은 ‘요즘 혼란한 틈을 타서 사감(私感)으로 무고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자는 발각 즉시 엄중 처단할 방침’이며 자수자에 대해서는 ‘죄

21) 『전북경찰60년사』(전라북도지방경찰청, 2005.10.21.)에는 한국전쟁 기간에 정읍시지역에서 희생된 우익인사가 2,516명, 『6·25피살자 59994』(공보처통계국, 2003.6.10.)에는 821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와 있다.
22) 『6·25피살자 59994명』, 월간조선사, 2003.6.10.

의 경중을 막론하고 관대히 포섭할 것'이라고 하였다.²³⁾

하지만 당시 열악한 경찰력은 이런 혼란을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빨치산과 군경 사이에서 민간인이 양쪽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다.

2. 사건경위

가. 정읍시지역

1) 옹동면 최호범·채영달·최성대·한용수·최인기 사망사건

○ 진실규명대상자

- 최호범(崔虎範·당시 19세·정읍시 옹동면 산성리·다-215호)
- 채영달(蔡永達·당시 49세·정읍시 옹동면 산성리·다-216호)
- 최성대(崔成大·당시 20세·정읍시 옹동면 산성리·다-217호)
- 한용수(韓鏞洙·당시 45세·정읍시 옹동면 산성리·다-6641호)
- 최인기(崔仁麒·당시 26세·정읍시 옹동면 산성리·다-9568호)

○ 사건개요

정읍지역 수복 후, 정읍시 옹동면 청년들이 좌익활동 혐의로 옹동지서 백 ○○ 등 경찰에게 연행되어 총살된 사건.

○ 사건경위

정읍시 수복 후 옹동면(당시 정읍군 옹동면) 주민들은, 밤이면 음식물과 식량 등을 구하러 마을에 내려오는 빨치산에게 위협받았고, 낮에는 치안대에게 '빨치산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추궁당하는 등 양쪽에서 시달림을 받았다. 그 상황에서 인민군점령기 부역을 했다고 알려진 주민들이 밤이면 마을에서 사라져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²⁴⁾

실제 인민군점령기에 적극적으로 좌익활동을 하였던 주민들은 입산하고 마을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들은 좌익과 빨치산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협조했던 주민으로 마을에 남아 있거나 입산을 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

23) 전북일보, 1950.11.5.

24) 참고인 최도범 진술녹취(2008.1.30.); 참고인 김막레 진술녹취(2008.1.30.); 참고인 조익환 진술녹취(2009.9.8.); 참고인 왕기춘 진술녹취(2009.9.8.)

제 7 권

아 자수하러 마을로 내려왔는데 이들은 백○○과 치안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총살되었다고 하였다.²⁵⁾

진술인들은 이들의 살해이유에 대해서 대부분 사적인 감정, 즉 가족이 좌익들에게 살해되어 복수하고자 하였던 백○○이 무력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살해되었다고 진술하였다.²⁶⁾

부역혐의자에 대한 경찰의 총살도 임의적이어서 백○○ 등은 진실규명대상자 권태일, 최성대 등을 대낮에 동네에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하였으며²⁷⁾ 그 외에 다른 진실규명대상자들은 용동면 매정리 정동마을 부근 임시 치안대 건물에 잡혀가 조사를 받는 도중 밤중에 술을 먹고 온 백○○이 난데없이 총을 난사하여 살해되었다고 진술하였다.²⁸⁾

이 사건에 대하여 용동면 매정리 정동마을에 거주하면서 학도의용대로 근무하였던 참고인 왕기춘(당시 19세)은 “백○○이 살해하였다는 것을 치안대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그들은 조사를 받는 동안 감금되어 있었지만 총살대상자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²⁹⁾ 또 사건발생 무렵 치안대원으로 근무한 참고인 박일남(당시 30세)은 “백○○의 지시로 시신 열다섯 구 정도를 수습하는 데 동원됐다.”고 진술하였다.³⁰⁾

용동면 산성리 우동마을에서 연행되어 일시에 살해된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 한병택(당시 10세)은 진실규명대상들은 지서에 불려 다니다가 어느 날 지서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시신 또한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혹은 몇 개월 후에 암매장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진술하였다.³¹⁾

유족들은 진실규명대상자가 지서로 끌려간 후 면회가 중단되어 지서에 문의하자 지서에서는 이들을 정읍경찰서로 이송하였다고 하였지만 정읍경찰서에서는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진술하였다.³²⁾

25) 참고인 최도범 진술녹취(2008.1.30.); 참고인 김막레 진술녹취(2008.1.30.), 참고인 최종식 진술녹취(2008.1.30.); 참고인(2008.1.30.); 민용식 진술녹취(2009.5.28.); 참고인 이현주 진술녹취(2009.5.27.); 참고인 왕기춘 진술녹취(2009.9.8.); 참고인 장호상 진술녹취(2009.9.8.)

26) 참고인 김막레 녹취록(2008.1.30.); 참고인 양명섭 녹취록(2009.6.19.); 참고인 조익환 녹취록(2009.9.8.); 참고인 장호상 녹취록(2009.9.8.)

27) 신청인 최인욱 진술조서(2008.5.21); 신청인 채영달 진술조서(2008.5.22); 참고인 양명섭 진술녹취(2009.6.19.); 양명섭 외 용동면 삼리 주민 면담 결과, 최성대의 희생사실을 목격하였다는 마을주민들이 있었음(용동면 산성리 삼리마을 주민 면담보고(2009.6.29.); 참고인 최종식 진술녹취(2008.1.30.); 참고인 신서균 진술녹취(2009.9.8.)

28) 참고인 왕기춘 진술녹취(2009.9.8.)

29) 참고인 왕기춘 진술녹취(2009.9.8.)

30) 참고인 박일남 진술녹취(2009.6.19.)

31) 참고인 한병택 진술조서(2009.6.11.)

32) 신청인 한병호 진술조서(2008.5.21.)

또 참고인 민용식(당시 20세)은 “옹동지서에서 명단을 만들어 인민군점령기 부역하였던 자들을 관리하고 감시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전향교육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다.³³⁾

각 신청사건 별 희생자의 희생경위는 다음과 같다.

- 최호범

최호범은 1951년 3~4월경 옹동면 산성리 삼리마을에 거주하던 중 빨치산에게 산으로 끌려갔다가 마을로 내려오자 옹동지서 백○○에게 산에 갔던 이유를 추궁당하다 총살당하였으며 이날 최호범 외에도 주민 다수가 빨치산과 내통했다고 하여 정읍시 태인면소재지 ‘도레미산’으로 끌려가 죽었다.³⁴⁾

- 채영달

채영달은 옹동면 산성리 삼리마을 이장 집에서 백○○과 술을 먹던 중 1951년 1월 9일³⁵⁾ 매정교 부근 빈집에 끌려가 갇혀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총살당하였다.³⁶⁾

- 한용수, 한영수(한학순), 한태수, 한상수, 김복만(김순기), 권태일³⁷⁾

한용수 외 5인은 1950년 12월 27일 해질 무렵 옹동면 산성리 우동마을에서 치안대원들에게 끌려가 치안대에 구금되어 있다가 실종되어 2~3개월이 지나서 치안대 인근에서 총살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 한병호(당시 9세)는 “아버지와 주민 4~5명이 방위대원들과 함께 고개를 넘어 떠났고 아버지 한용수가 끌려가면서 ‘병호야, 싸리문 잘 잠가라.’고 말씀하셨던 모습이 아직 생생하다.”고 진술하였다.³⁸⁾

참고인 한병택(당시 10세)은 “음력 1950년 11월 19일 해질 무렵에 아버지 한영수와 집안어른, 김복만씨 등 다섯 명이 치안대원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았다. 정동 치안대 본부

33) 참고인 민용식 진술녹취(2009.9.28.): 당시 학도의용대원으로 당시 옹동지서의 관리 명단이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전향교육을 하였으며, 교육 후에도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인 한병택 진술조서(2009.6.11.): 아버지 등 동네어른들이 여러 차례 경찰에 불러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곤 했는데, 어느 날 지서에 잡혀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34) 참고인 양명섭 녹취록(2009.9.19.)

35) 사건경위로 보아, 1950년 12월 27일 백○○의 옹동지서 근무기간에 대한 일치하는 견해는 없으나, 대체로 1~2년 정도 근무했다하므로 희생일자가 잘못된 것으로 보임.

36) 참고인 양명섭 진술녹취(2009.6.19.), 옹동면 산성리 삼리마을 주민 면담보고(2009.6.29.)

37) 참고인 최중식 진술녹취(2008.10.30): “음력 9월 25일경 점심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백○○이 집으로 와서 남편 권태일을 끌고 나가 반듯하게 세워놓고 총을 쏘아 죽였다.”고 진술하였다.

38) 신청인 한병호 진술조서(2008.8.8)

제 7 권

에서 한 200~300미터 되는 어떤 집 뒤편에 독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총살된 다섯 구의 시신을 집안어른들이 수습하여 동네 산에 임시로 매장하였다. 다른 마을에서도 죽은 사람이 있다. 이름은 권태일인데, 산성리 모정에서 백○○이 직접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³⁹⁾

• 최인기

최인기도 '1951년 3월 밤에 빨치산에게 갔다'는 주민의 밀고로 옹동면 산성리 삼리마을에서 옹동지서 경찰에게 끌려가 매정리 정동부락 고지에서 총살당하였다.⁴⁰⁾

참고인 최도범(당시 22세)은 “옹동면 매정리 정동부락 고지에 최인기 등 다른 사람들의 시체를 거적으로 덮어놓고 가져가지 못하게 해서 그 이튿날 가서 보니 시신도 없었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왔다.”고 하였다.⁴¹⁾

• 최성대

1951년 3월경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북한군의 노래를 가르쳤다고 하여 옹동지서 백○○에게 마을에서 총살당하였으며, 채영달(당시 8세)과 최인옥 등이 현장을 목격하였다.⁴²⁾

○ 조사결과

다-215호·다-216호·다-217호·다-9568호 사건의 신청인은 모두 전쟁당시 어린 나이여서 사건에 대한 내용은 성장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지만 발생장소 등을 비교할 때 다-6641호 사건과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⁴³⁾ 이 사건의 유족은 치안대에 연행된 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지나서야 치안대 인근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⁴⁴⁾

당시 학도의용대원으로 옹동지서에서 근무했던 참고인 왕기춘(당시 19세)은 한병호가 자신의 아버지 한용수가 1950년 12월 27일 치안대에 끌려가 돌아오지 않아 수소문 끝에 상당기간이 지나서 시신을 수습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⁴⁵⁾

39) 참고인 한병택 진술조서(2009.6.11); 참고인 최종식 진술녹취(2008.10.30)

40) 신청인 최금자 진술조서(2008.5.22)

41) 참고인 최도범의 진술서(2006.11.30); 참고인 최도범 진술녹취(2008.10.30)

42) 참고인 양명섭 진술녹취(2009.6.19.), 옹동면 산성리 삼리마을 주민 면담보고(2009.6.29.)

43) 이들이 희생장소로 진술한, '매정교 부근', '매정리 정동부락 고지', '정동 치안대 건물'은 모두 당시 매정리 정동마을에 있었던 치안대 건물을 이르며, 이 건물 부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였다.

44) 신청인 한병호 진술조서(2008.8.8), 참고인 한병택 진술조서(2009.6.11.)

45) 신청인 한병호 진술조서(2008.5.21.)

다-6641호 한용수 사건의 경우 제적부에 '1951년 3월 14일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날짜는 연행된 뒤 3개월 정도 지나 시신을 찾아왔다는 한병택의 진술내용과 유사하다.⁴⁶⁾

따라서 이 사건은 조사결과 최호범, 채영달, 최성대, 한용수는 1951년 3~4월경 정읍시 용동면 산성리에서 경찰에게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최인기는 1951년 3월경 용동면 매정리 정동부락에서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목격자를 찾을 수 없고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으므로 '추정' 희생자로 분류하였다.

2) 입암면 사건

가) 입암면 신정리 김영출·김위도 사망사건(다-972호)

○ 진실규명대상자

- 김영출(金英出·당시 45세·정읍시 입암면 신정리)
- 김위도(金衛道·당시 19세·정읍시 입암면 신정리)

○ 사건개요

1951년 2월 18일, 김영출과 김위도가 빨치산과 내통했다고 하여 철도경찰에게 끌려가 희생된 사건.

○ 사건경위

이 사건 발생지역인 입암면 신정리(현재 정읍시 신정동)⁴⁷⁾는 내장산 자락에 위치하여 빨치산이 자주 내려왔고 이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신청인 김달수(당시 미출생)는 “아버지 김영출과 형 김위도는 1951년 2월 18일(음력 1월 13일) 철도경찰에게 연행되어 군령지에서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⁴⁸⁾ 김영출의 딸 김갑선(당시 15세)은 “아버지와 오빠는 집에서 가마니를 짜다가 해 저물 즈음에 경찰에게 군령으로 연행되어 그곳에서 살해되었다. 연행이유는 경찰에 잡힌 입산자들이 오빠 김위도와 연락한 사실을 자백하였기 때문인데 경찰이 집으로 와서 아버지와 오빠를 군령지로 연행하였다.⁴⁹⁾ 할아버지가 군령으로 찾아가셨는데 그때 경찰이 아버지와 오빠를 총

46) 참고인 한병택 진술조서(2009.6.11.)

47) 신정리는 현재 정읍시에 편입되어 원주민은 대부분 이주하였다. 따라서 사건 조사에 있어서 유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48) 신청인 김달수 진술조서(2008.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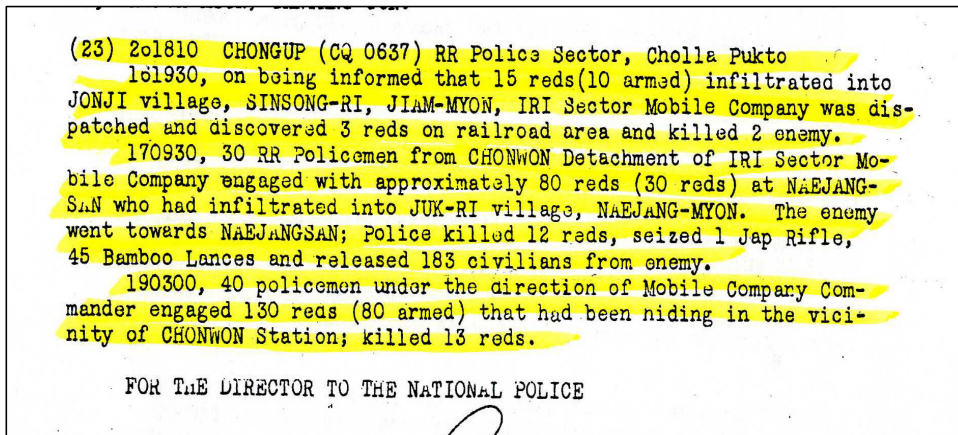
49) 참고인 김갑선 진술녹취(2009.5.25.)

살하려고 포박하여 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⁵⁰⁾

○ 조사결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경찰대일일보고』를 확인한 결과 1951년 2월, 철도경찰대가 내장산 주변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951년 2월 28일자 『한국경찰대일일보고』에는 ‘161930, 철도경찰은 15명의 빨치산(무장 10명)이 입암면 신정리 전지마을에 잠입했다는 정보를 보고함에, 이리권역 이동중대가 철길이 있는 지역에 출동해 3명의 적색분자를 발견하여 2명을 사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⁵¹⁾ 이 기록의 보고사항이 첫째, 진실규명 대상자들을 끌고 간 것이 철도경찰이었다는 점 둘째, 연행날짜와 시간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셋째, 사건발생장소가 철길이 있던 군령이라는 점 넷째, 총살된 인원이 두 명이 었다는 점 등, 구체적 사항이 이 사건 유족 진술과 일치하여 사건 관련 기록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 경찰 일일적정보고(1951.2.28.)



이 사건이 발생한 1951년 2월경 정읍의 산악지역에선 빨치산 활동이 여전하였지만 평야지대는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시기였다. 당시 경찰의 토벌작전에 관한 내용은 『한국경

50) 참고인 김갑선 진술녹취(2009.5.25.)

51) 1951년 2월 28일, Daily Enemy Activity Report, Headquarters, National Police, Office of the Director, 빨치산 자료자료집 3,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해당원문은 “161930, on being informed that 15 reds(10 armed) infiltrated into jonji village, sinsong-ni, jiam myon, iri sector mobile company was dispatched and discovered 3 reds on railroad area and killed 2 enemy.” 인테 입암면 신정리 전지마을의 영문명이 오기되어 있다.

찰대일일보고』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빨치산이 마을에 잠입하여 물자를 탈취하는 적을 수색·공격하거나 산간지역에 소규모의 빨치산과 교전을 벌였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국경찰대일일보고』에도 ‘진지마을에 빨치산이 잠입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철도경찰이 출동’하였지만, 빨치산과 교전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결과 김영출과 김위도는 1951년 2월 18일 정읍시 입암면 신정리에서 철도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나) 입암면 신정리 안재성 사망사건(다-10189호)

○ 진실규명대상자

- 안재성(安載盛·당시 30세·정읍시 소성면 중광리)

○ 사건개요

안재성이 1951년 1월 29일 소성면 중광리에서 입암면 신정리(현재 정읍시 신정동 백학마을)로 피난을 가 있다가 빨치산 협력자를 색출하던 경찰에게 용산동 석산 인근에서 총살된 사건.

○ 사건경위

입암면 신정리는 내장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로 빨치산 활동이 활발하였다. 신정리 정해마을을 비롯하여 석산, 전지마을 주민들은 사건이 일어난 1951년 1월 27일(음력 1950년 12월 20일) 및 1951년 1월 29일(음력 1950년 12월 22일) 당시 경찰과 방위대가 들어와 주민들을 모아 놓고, 빨치산 협조 혐의자들을 선별하여 바로 총살시켰다고 진술하였다. 1951년 1월 30일자에 게재된, 『한국경찰대일일보고』에서는 입암지서가 3,000명의 적에게 기습을 받아 정읍경찰서원이 이들과 교전하였는데, 적은 입암산으로 후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내용은 신정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빨치산 협조자 색출과 총살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들은 빨치산을 소극적으로 도왔을 뿐 청년들이 살해될만한 혐의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주민들이 빨치산을 도왔던 것은 당시 빨치산과 경찰의 틈에 끼인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경찰의 빨치산 협조 혐의자 색출기준도 분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⁵²⁾

제 7 권

정해마을의 경우 1951년 1월 27일(음력 12월 20일) 새벽, 마을에 들어온 경찰 및 방위대가 주민들을 인근 교암국민학교에 집결시킨 뒤,⁵³⁾ 눈을 감게 한 다음 누군가가 부역혐의자들을 지목하였는데, 이때 지목된 17명은 연행하여 '석고촌 못 미친 계곡'에서 총살되었다고 한다.⁵⁴⁾ 참고인 안석근(당시 26세)은 "같은 날 인근 전지마을에서도 청년 3명이 총살되었다."고 진술하였다.⁵⁵⁾ 또 참고인 손경선(당시 18세)도 "1월 29일 석산마을 주민들이 부역 여부를 추궁받고 부역혐의자로 지목된 10명의 청년이 경찰에게 끌려가 총살당하고, 집결 명령에 늦게 나온 주민 2명은 주민들 앞에서 바로 총살되었다."고 진술하였다.⁵⁶⁾

○ 조사결과

이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안재성이 피난 와 있던 신정리 백학마을에서도 상황이 비슷하였다. 1950년 12월 22일 공비토벌작전을 이유로 안재성을 비롯하여 몇 명의 젊은이들이 경찰에 잡혀가 석산 인근에서 총살을 당하였다.

이 사건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부역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민간인을 잡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안재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3)소성면 사건

가) 소성면 만수리 신복균 사망사건(다-9351호)

○ 진실규명대상자

- 신복균(申福均 · 당시 37세 · 정읍시 소성면 만수리)

○ 사건개요

정읍시 소성면 만수리에 살았던 신복균이 1950년 11월경 향지마을 친척집에 갔다가 지역 방위대에게 끌려가 야산에서 총살된 사건.

52) 참고인 김재남 진술조서(2008.11.21.); 참고인 손경선 진술녹취(2009.5.25.); 참고인 안영구 진술녹취(2009.5.29.); 참고인 안태원 진술녹취(2009.5.29.)

53) 참고인 손경선은 이날 석산마을에서도 몇 명의 젊은이가 교암국민학교로 끌려갔었고, 정읍경찰서로 넘겨졌다가 마을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참고인 안태원 진술녹취(2009.5.29.)

54) 참고인 김재남 진술조서(2008.11.21.); 참고인 안태원 진술녹취(2009.5.29.)

55) 참고인 안석근 진술녹취(2009.5.29.)

56) 참고인 손경선 진술녹취(2009.5.25.)

○ 사건경위

소성면이 수복되면서 소성지서에서는 경찰 3명과 향토방위대원들이 빨치산 토벌을 담당하였다. 수복 초기 경찰과 향토방위대원들은 토벌작전을 펴면서 빨치산 또는 그 협조자로 의심을 받은 주민들을 지서로 연행하여 혐의의 정도에 따라 지서에서 임의로 총살하거나, 정읍경찰서로 이송하였다.⁵⁷⁾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신복균도 이 같은 이유로 경찰에게 연행되어 살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복균의 조카인 신현수(당시 17세)는 “전쟁 나고 조금 지나서 작은아버지가 경찰에게 총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행되고 보름 정도 지나 향기동에 살면서 작은아버지께서 잡혀간 걸 보았던 집안어른들이 말해주어 알게 되었다. 시신은 찾으려고 했지만 매장장소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결국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⁵⁸⁾

신청인 신현갑(당시 9세)은 “원래 아버지가 살았던 곳은 소성면 만수리인데, 상평리 향지동 고모 집에 갔다가 경찰에게 연행되어 총살되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현재 사망)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⁵⁹⁾

같은 마을 참고인 심주섭(당시 15세)은 “향지마을에 신복균의 친척이 많아서 자주 왔었는데 그 사람이 인민군점령기가 끝나고 경찰이 들어오던 무렵에 잡혀가 며칠 뒤에 죽었다는 것은 어른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⁶⁰⁾

주민들은 신복균과 몇몇 젊은이들이 소성지서 인근 산에서 총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소성지서에서 방위대원으로 근무했던 참고인 노상영(당시 21세)은 “하루 저녁에도 대여섯, 많으면 여남은 명도 죽이곤 했다.”고 진술하였다.⁶¹⁾ 신복균의 제적부에는 ‘1953년 11월 6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조사결과

신복균(이명 신삼균)은 1950년 11월경 소성면 원청마을 인근 야산에서 경찰과 향토방위대원에게 연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다.

57) 참고인 노상영 진술녹취(2009.5.27.)

58) 참고인 신현수 진술조서(2008.8.26)

59) 신청인 신현갑 진술조서(2008.9.24)

60) 참고인 심주섭 진술녹취(2009.5.27)

61) 참고인 노상영 진술녹취(2009.5.27.)

나. 장수군지역

1) 장수읍 싸리재 사건

가) 계북면 농소리 김갑봉 사망사건(다-6142호)

○ 진실규명대상자

- 김갑봉(金甲奉·당시 20세·장수군 계북면 농소리)

○ 사건개요

장수군 계북면 농소리에 살았던 김갑봉이 1951년 1월 8일 장수군 국민방위군 소집에 나갔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장수읍 '싸리재'에서 살해된 사건.

○ 사건경위

김갑봉은 남로당원으로 활동하다 남로당이 불법화되자 인천으로 피신하였다. 전쟁이 발발한 뒤 고향에 돌아온 김갑봉은 인민군점령기에 마을에 거주하며 부역을 하였고 수복 후 경찰에 자수하였다.

자수 후인 1951년 1월 8일 김갑봉은 장수군 국민방위군 소집에 응하려고 장수경찰서에 나갔다가 장수경찰서 '성○○'62)에게 연행되어 구금되었다. 김갑봉이 구금되자 동생인 김갑용(당시 21세)이 면회를 요구하였지만 경찰은 면회를 불허하였다. 이후 가족들은 김갑봉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애를 썼지만 파악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⁶³⁾

이 사건에 대하여 김갑봉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참고인 박종홍(당시 29세)은 “김갑봉은 인민군점령기에 분주소장을 하였고 수복이 되자 자수하고 집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수경찰서에서 국민방위군 소집이 있어 장수경찰서에 함께 갔는데 경찰이 김갑봉을 연행하였고 얼마 뒤 '싸리재'에서 살해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⁶⁴⁾

1951년부터 장수경찰서 대성출장소에서 의경으로 근무하였던 참고인 조운제(당시 16세)는 “이곳이 산간오지라서 빨치산들이 장수에서 지리산으로 가는 통로이다 보니 장수경찰서에서 경찰을 파견하여 근무시켰는데 경찰이 인민군점령기 좌익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을 연행하여 장수읍 싸리재에서 총살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⁶⁵⁾

62) 신청인 김갑용은 성씨 성을 가진 경찰이 김갑봉을 연행하였으며 이름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김갑용 진술조서(2008.7.8.)

63) 신청인 김갑용 진술조서(2008.7.8)

64) 참고인 박종홍 진술녹취록(2009.10.7.)

○ 조사결과

김갑봉은 인민군점령기 부역하였다는 것 때문에 경찰에 연행되어 장수군 장수읍 싸리재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이지만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다. 김갑봉의 제적부를 확인한 결과 김갑봉의 사망일자 '단기 4284년 1월 8일'로 기재되어 연행된 날짜와 일치하였다.

나) 산서면 하월리 김의철 사망사건(다-6546호)

○ 진실규명대상자

- 김의철(金義喆 · 당시 45세 ·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

○ 사건개요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 거주하였던 김의철이 인민군점령기 부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장수경찰서로 연행된 후 1951년 1월 10일 장수읍 '싸리재'에서 살해된 사건.

○ 사건경위

인민군점령기에 부역을 하였던 김의철은 1950년 음력 11월 말경, 자수를 하면 부역사실에 대하여 관용을 베푼다는 말을 듣고 10여 명의 주민들을 설득하여 산서지서에 자수하였다. 신청인 김종훈은 아버지 김의철이 자수 후 산서지서에 구금되었다가 장수경찰서로 이송되었고 "1951년 1월 10일경 장수경찰서에서 전주형무소로 이송된다면서 트럭에 실려 나가다가 장수읍 '싸리재'에서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⁶⁶⁾

김의철의 아들인 신청인 김종훈(당시 10세)은 "아버지가 부역했다는 것도 인민군들이 밥을 해달라고 하면 밥을 해주고 쌀을 달라고 하면 쌀을 주는 정도였다. 아버지가 경찰서에 구금된 뒤 어머니께서 10차례 정도 면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경찰서에서 면회를 불허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돌아가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⁶⁷⁾

진실규명대상자 김의철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참고인 정계현(당시 13세)은 "김의철은 똑똑한 분이었는데 경찰에 끌려갔다가 싸리재에서 사망하였다. 그 무렵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게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도 모두 싸리재에서 죽었다."고 진술하였다.⁶⁸⁾

65) 참고인 조운계 진술녹취록(2009.10.8.)

66) 신청인 김종훈 진술조서(2008.3.5)

67) 신청인 김종훈 진술조서(2008.3.5)

68) 참고인 정계현 진술조서(2008.9.25.)

○ 조사결과

조사결과 김의철의 가족은 장수경찰서에 구금 중 면회한 것을 끝으로 김의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장수경찰서에 구금된 사람들이 ‘짜리재’에서 살해되었다는 참고인 진술로 보아 김의철은 인민군점령기 부역행위로 조사를 받고 ‘짜리재’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다) 산서면 이룡리 이영호·이혁호 사망사건(다-6714호·다-7736호)

○ 진실규명대상자

- 다-6714호 이영호(李永浩·당시 37세·장수군 산서면 이룡리)
- 다-7736호 이혁호(李赫浩·당시 24세·장수군 산서면 이룡리)

○ 사건개요

장수군청 공무원이었던 이영호와 같은 마을 이혁호(이명 이방호)가 인민군점령기 인민위원회에서 부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어 1951년 2월 초(음력 1950년 12월 말) 장수읍 ‘짜리재’에서 경찰에게 살해된 사건.

○ 사건경위

이영호는 전쟁 이전 장수군청 산림계 공무원이었다. 전쟁이 일어난 뒤 공무원이었던 이영호는 인민위원회에서 행정업무를 맡았다. 수복이 되고 1951년 2월 초 장수군 산서면 이룡리에 들어온 경찰은 부역하였다는 이유로 이영호를 연행하였다. 이영호가 연행된 뒤 가족은 장수읍 ‘짜리재’에서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⁶⁹⁾

이혁호(이명 이방호)도 인민군점령기 인민위원회에서 부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어 ‘짜리재’에서 살해되었다. 이혁호는 대한청년단 간부였는데 인민군점령기 분주소에서 부역을 하였다. 신청인 이근호(당시 15세)는 “형님 이혁호는 장수국민학교에 모였을 때 17~18명의 청년들과 장수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얼마 뒤 ‘짜리재’에서 총살되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⁷⁰⁾

신청인 이근호(당시 15세)는 “형님 이혁호가 장수경찰서로 연행된 뒤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경찰이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 형님과 함께 연행되었던 이용우는 경찰에게 뇌물

69) 신청인 이동석 진술조서(2008.3.4)

70) 신청인 이근호 진술조서(2008.3.5.)

을 주고 나올 수 있었다. 형님 제사는 음력 12월 30일에 지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⁷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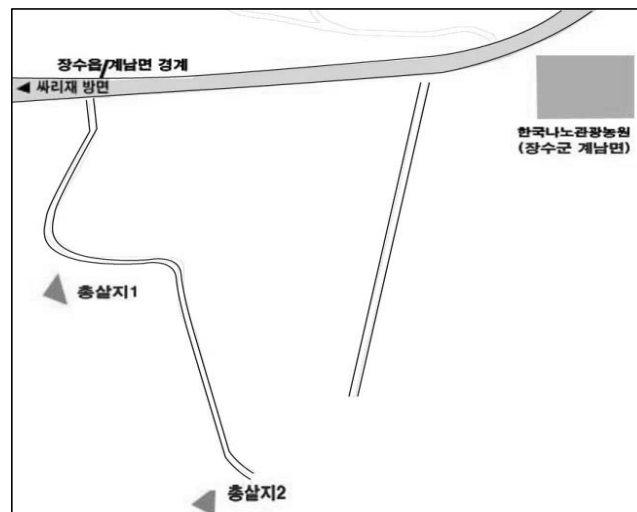
이영호와 이혁호가 경찰에 연행되어 ‘싸리재’에서 살해된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동네에 살았던 참고인 이주영(당시 39세)은 “이영호는 나와 동갑인데 군청 산림계에 다녔다. 이방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었다. 이영호, 이방호는 경찰에 함께 연행되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⁷²⁾

인민군점령기 부역하였던 청·장년들을 장수읍 싸리재에서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 방재혁(당시 16세)은 “당시 장수경찰서에서 청년들을 집결시켰다. 그리고는 형사들이 빨갱이 물든 사람들을 빼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였다. 싸리재는 장수읍에서 장계면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데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 시신을 찾아왔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⁷³⁾

○ 조사결과

1951년 2월 초 장수군이 수복된 뒤 경찰이 관내 청·장년들을 집결시키고 인민군점령기 부역자들을 색출하여 장수경찰서를 거쳐 싸리재에서 이영호와 이혁호를 살해하였다는 것은 신청인 참고인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살해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고 시신수습도 하지 못하였다.

[그림 3] 장수군 싸리재 위치도



71) 신청인 이근호 진술조서(2008.3.5).

72) 참고인 이주영 진술녹취록(2008.9.25.)

73) 참고인 방재혁 진술녹취록(2008.9.25.)

2)산서면 봉서리 사건

가) 산서면 봉서리 김호진 사망사건(다- 4799호)

○ 진실규명대상자

- 김호진(金浩鎭·당시 16세·장수군 산서면 봉서리)

○ 사건개요

산서면 봉서리의 초등학생 김호진이 1951년 9월 28일 오전 동네 ‘나무하러 다니는 길목’에서 군경의 무차별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

○ 사건경위

사건이 일어난 1951년 9월 28일 당시 빨치산 이현상부대 잔당들이 마을 주변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마을에 내려와 식량을 약탈하는 일이 잦았다. 이러한 이현상부대를 토벌하기 위하여 마을에 들어온 군경이 동네 앞 공터에 주민들을 집결시키고 주민 중에 빨치산이 있는지, 빨치산에게 협조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였지만, 이미 그때는 빨치산은 도주하여 마을에 남아 있지 않았다.⁷⁴⁾

산서국민학교 5학년이었던 김호진은 동창 정복현, 형 김성진과 함께 마을에서 70, 80미터 떨어진 곳에서 놀다가 정복현, 김성진은 집으로 돌아갔다. 정복현과 김성진이 돌아간 뒤 남아 있던 김호진은 얼마 후 총탄을 맞고 정신을 잃었다. 이를 목격한 김규진이 소리를 질렀고 김락희(당시 35세)·정남용(당시 43세) 등 주민이 내려와 김호진을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왔으나 얼마 뒤 사망하였다.⁷⁵⁾

이 사건에 대하여 같은 마을에 살았던 참고인 정판동(당시 15세)은 “당시 빨치산이 가끔 동네 앞을 지나가기는 하였지만 동네에 거주하지는 않았다. 작전을 다녔던 군경이 쏜 총에 김호진이 맞았다. 부상한 김호진을 집에 데려다 놓았는데 그 순간에도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⁷⁶⁾

김호진의 여동생 김광임(당시 12세)은 “그때 마을에 있었는데 갑자기 ‘탕 탕’ 소리가 들렸다. 얼마 뒤 어른들이 ‘너희 오빠가 총을 맞고 죽었다’고 알려주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⁷⁷⁾

74) 신청인 김규진 진술조서(2008.3.11)

75) 신청인 김규진 진술조서(2008.3.11)

76) 참고인 정판동 진술조서(2008.9.24.)

김호진의 숙부였던 김락희도 김호진의 사망사실에 대하여 “김호진은 인공 때 특별히 활동한 것도 없다. 마을 뒤 동산에서 놀다가 군경이 작전을 들어오면서 쏜 총에 맞는 것을 논에서 일을 하면서 보았다. 그때 총을 쏘며 들어온 군경은 총을 쏘고 난 뒤 바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⁷⁸⁾

신청인 김규진(당시 25세)은 “당시 마을 주변에 이현상부대 잔당이 남아 있어서 군인들인 205부대와 제18전투경찰대대가 산서국민학교 강변 독에 천막을 치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동생 김호진은 1951년 9월 28일 군경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⁷⁹⁾

○ 조사결과

이상의 신청인 김규진 및 사건 당시 마을에 살았던 참고인 정판동, 김광임, 김락희의 진술에 따르면 김호진은 마을 뒤에서 놀고 있다가 군경의 총격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다. 군산시지역

1) 회현면 고신곤·김용길 사망사건(다-7112호·다-9375호)

○ 진실규명대상자

- 고신곤(高呻坤·당시 32세·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 김용길(金容吉·당시 26세·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 사건개요

군산시 회현면에 거주하였던 고신곤, 김용길 등 청·장년이 인민군점령기 부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1950년 10월 12일(음력 9월 2일) 회현지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만경강 입구에서 우익 치안대에게 총살된 사건.

○ 사건경위

진실규명대상자 고신곤은 전쟁 이전부터 금융조합에 다녔는데 인민군점령이후에도 계속 다녔다. 1950년 10월 12일 고신곤은 고수일, 고재곤, 고복술, 고상곤 등과 함께 회현지

77) 참고인 김광임 진술녹취록(2008.9.24.)

78) 참고인 김락희 진술조서(2008.9.25.)

79) 신청인 김규진 진술조서(2008.3.11.)

서로 연행되어 금강리 해변에서 살해되었다.⁸⁰⁾ 회현면 원우리에 고이곤이라는 골수 빨갱이가 있었는데 고신곤은 이 사람의 영향으로 좌익활동을 하게 되었다. 시신은 고신곤의 아버지가 고수옥과 함께 현장에 가서 수습하였다.⁸¹⁾

신청인 고승우(당시 3세)는 “군산이 이리와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 해방 후 철도노조가 강성하였던 이리지역의 영향으로 군산도 좌익세가 강성하였다. 당시 지리산 빨치산과 연계되어 보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해가 컸다. 그리고 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금광리에서는 두(杜)씨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⁸²⁾

고신곤의 희생사실에 대하여 고신곤과 함께 살해된 김용학(당시 42세)의 아들인 참고인 김기순(당시 13세)은 “지서에 감금된 아버지께 밥을 나르기 위하여 10여 일 동안 다녔는데 지서 창고에서 고신곤을 보았다. 그분은 평소 알고 있던 분이어서 고신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⁸³⁾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김용길은 수복 무렵 만경면 광활리에 피신하였는데, 육군 장교 두○○⁸⁴⁾의 지시를 받은 치안대가 김용길의 처를 고문하여 은신처를 알아내었고 김용길은 치안대에 연행되었다. 김용길의 아들인 신청인 김양중(당시 6세)은 “아버지는 1950년 10월 13일 회현면 금광리 신기촌 앞 만경강 개펄에서 두○○ 휘하 사병들에게 총살당하였다고 들었으며 시신도 수습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⁸⁵⁾

사건 당시 인근 학당리에 살았으며 회현면 대한청년단 단장을 하였던 경찰 측 참고인 김재구(당시 23세)는 “수복 후 5일 정도 지나 치안대가 부역자 수백 명을 잡아들였고 군법무관이었던 두○○의 명령으로 10여 명을 골라내어 신기촌 강가에서 총살하였다. 아버지와 처가 인민군점령기 좌익들에게 살해된 후라 시신을 찾으러 다니느라 고신곤, 고신곤이 죽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김용길은 특별한 활동을 하였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죽

80) 참고인 김기순 진술조서(2008.11.18): “아버지 김용학(金龍學·당시 42세·미신청 희생자)이 인민군점령기 보안대 식당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로 수복 이후인 1950년 음력 9월 3일 회현지서로 잡혀가서 창고에 구금되어 있어서 10여 일 정도 밥을 날랐는데 이후 총살되었다. 아버지 시신은 총살된 날 지게로 운반하여 수습하였다. 그 당시 창고에 10여 명 정도가 붙잡혀 있었는데 무서워서 똑바로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고신곤이 이곳에서 죽었다는 말은 나중에 들었다.”

81) 신청인 고승우 진술조서(2007.4.4)

82) 신청인 고승우 진술조서(2007.4.4)

83) 참고인 김기순 진술조서(2008.11.18)

84) 신청인 김양중은 가해자 두○○이 육군 중령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대한청년단으로 치안대 활동을 하였던 김재구는 두○○이 육군 대위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재구 진술녹취(2008.11.6.): 육군본부로부터 두○○의 인사자력표를 받아 확인한 결과 두○○(군번 15060)은 단기 4283년 9월 8일 대위 진급하였고 같은 해 9월 15일 제19연대 법무관으로 발령되었고, 11월 25일 1사단 법무장교로 발령된 것이 확인되었다.

85) 신청인 김양중 진술조서(2008.3.6.)

었다.”고 진술하였다.⁸⁶⁾

○ 조사결과

조사결과 고신곤, 김용길이 군 법무관의 명령을 받은 우익 치안대에게 살해된 이 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의 시신을 수습하였고 신청인·참고인의 진술도 일치하였다.

2)나포면 주곡리 이동자·채판묵 사망사건(다-6828호)

○ 진실규명대상자

- 이동자(李東慈·당시 70세·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 채판묵(蔡判默·당시 45세·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 사건개요

채판묵과 채판묵의 어머니 이동자가 인민군점령기 부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복 후 경찰에 연행되어 고문을 당한 후 사망한 사건.

○ 사건경위

진실규명대상자 채판묵(1남), 채장묵(2남), 채기묵(4남)은 형제인데 채기묵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형 채판묵과 함께 군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 경찰이 유치장 밖에서 총을 쏘아 사망하였다.⁸⁷⁾ 이날 채판묵은 시신 속에서 숨어 있다가 살아나왔고 채장묵은 경찰의 출두명령이 나왔을 때 부재중이어서 출두하지 않았다.⁸⁸⁾

생환한 채판묵이 채기묵의 시신을 집으로 신고 왔고 얼마 뒤 전쟁이 발발하였다. 인민군점령기가 되자 채판묵, 채장묵은 부역을 하였고 이후 수복이 되자 피신하였다.

참고인 김형희(당시 18세)는 “수복 뒤 경찰은 입산하여 활동하였던 채장묵을 잡기 위하여 채장묵의 어머니 이동자, 형 채판묵 뿐만 아니라 채판묵의 처, 채장묵의 처 등 전 가족을 연행하여 고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⁸⁹⁾

이 사건에 대하여 주곡리 대동마을 주민들⁹⁰⁾은 “수복 후 채장묵의 형인 채판묵은 지서

86) 참고인 김재구 진술녹취록 (2009.5.27.)

87) 채기묵이 군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사실은 다-6828(1)사건으로 분리되어 진실규명 결정이 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전북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1.19.

88) 신청인 채무길 진술조서(2008.3.6)

89) 참고인 김형희 진술녹취(2008.10.7)

90) 참고인 주곡리 대동마을 주민 3명(80대 전후 노인) 진술면담(2009.11.27)

제 7 권

로 끌려가서 죽었으며 채장묵은 산에서 피신하다가 경찰에게 잡혀가던 중 스스로 물속에 빠져 죽었다.⁹¹⁾ 채장묵의 좌익활동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조사결과

조사결과 이동자, 채판묵의 희생경위에 대한 신청인·참고인 진술이 일치하고 시신을 수습한 점, 제적부 등에 따르면 채장묵의 어머니 이동자는 1951년 3월 14일 석방된 후 바로 사망하였고 채판묵은 1951년 3월 15일 군산경찰서에서 사망하였다.⁹²⁾

라. 무주군지역

1) 안성면 장기리 박성여·전씨 사망사건(다-483호)

○ 진실규명대상자

- 박성여(朴姓女·당시 35세·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 전씨(全氏·당시 60세·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 사건개요

유영옥(당시 27세)⁹³⁾이 국군의 무주지역 수복 무렵 빨치산으로 입산하자, 형인 유영대가 창고에 감금되어 있다가 남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간 상태에서 형수 박성여, 어머니 전씨가 빨치산과 내통하였다고 군인들에게 연행되어 살해된 사건.

○ 사건경위

신청인 유해수의 숙부는 전쟁 이전 체포되어 남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탈출하여 빨치산 활동을 하였다. 이후 전쟁이 일어났고 국군이 무주지역을 수복하자 진주한 군인들은 좌익활동을 하였던 주민들을 담배창고에 집결시키고 조사하였다. 군인들이 담배창고에서 조사한 결과 유영대는 남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갔고 박성여와 전씨는 석방되었다. 그런

91) 채장묵(채판철)은 도주하다가 1951년 4월 2일 나포면 부곡리 임길홍의 집에서 체포되어 군산경찰서 나포지서로 압송 중 호수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다(『자살동기보고서』, 군산경찰서 1951.4.2)는 기록이 있어 별도로 분리하였다.

92) 진실규명 신청인 채무길이 제출한 제적부를 확인한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이동자는 1951년 3월 14일, 채판묵은 1951년 3월 15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참고인 김형희 진술녹취(2008.10.7); 신청인 채무길 진술조서(2008.3.6)

93) 유영옥의 제적부에는 4278년(1945년)으로 되어 있으나 판결문에는 1923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1923년 출생으로 판단하였다. 『1947년 刑公 第306號』전주지방심리원, 1947.5.27.

데 군인들은 석방하였던 박성여와 전씨를 빨치산과 내통하였다고 하여 1950년 10월 20일(음력 9월 10일) 다시 연행하여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죽장마을 앞산으로 끌고 가 총살하였다.⁹⁴⁾

박성여와 전씨가 군인에게 잡혀가는 것을 목격한 참고인 이춘임(당시 30세)은 “가을 어느 날이었는데 빨치산이 내려온다고 마을에 종이 울리자 피신하던 중에 유해수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유해수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숨겨준 적이 있다. 박성여와 전씨가 우리 집에 있었다고 하면 나도 잡혀갈 것 같아 두려워서 같이 있었다고 말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들이 유명옥을 따라 산에 갔다 왔다고 하여 군인들이 잡아갔고 이후 살해되어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⁹⁵⁾

인근 죽장마을에 살았던 참고인 박영조(당시 22세)는 “가을 아침이었는데 군인들이 트럭을 세워놓고 주민 네다섯 명을 빨갱이라고 하여 일본도와 총으로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살해된 사람 중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명은 인근에서 좌익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⁹⁶⁾

진실화해위원회는 박성여, 전씨와 함께 군인들에게 살해된 주민의 유족을 통하여 사망일을 확인하였는데⁹⁷⁾ 박성여, 전씨의 사망일과 같은 음력 9월 9일로 일치하였다.⁹⁸⁾

○ 조사결과

조사결과 1950년 10월 19일 박성여와 전씨는 군인에게 잡혀가서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죽장마을 앞산에서 총살되어 시신을 수습하였으며, 박성여 및 전씨가 함께 살해되었다는 참고인 진술, 그리고 제삿날이 음력 9월 9일이라는 신청인의 진술과 사망일자가 일치하였다.

2) 무주읍 가옥리 박현모, 박동열 형제 사망사건(다-6125)

○ 진실규명대상자

- 박현모(당시 30세 -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94) 신청인 유해수 진술조서(2007.3.2.)

95) 참고인 이춘임 진술녹취록(2009.11.26.)

96) 참고인 박영조 진술녹취록(2009.11.26.)

97) 참고인 ○○○ 전화녹취록(2009.12.7.): 죽장마을 주민을 탐문하여 참고인과 전화면담을 하였지만 참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여, 사망 일자를 확인하는 선에서 진술을 들었다.

98) 신청인 유해수 진술조서(2007.3.2.)

제 7 권

- 박동열(당시 20세 -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 사건개요

무주읍 가옥리 구장이었던 박현모와 그의 동생 박동열은 경찰의 체포를 피해 다녀야 했는데, 박현모는 1950년 1월 29일 가옥리 평촌마을 앞산에서 무주경찰서 경찰에게 체포되어 총살되었으며, 박동열은 20여 일 뒤 용포리 골짜기에서 사살되었다.

○ 사건경위

1950년 1월경 가옥리 산간마을 주민들은 당시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빨치산의 협박을 이기지 못해 식량을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편 이 때문에 다시 경찰에게 쫓겨 다니는 처지가 되었다.

당시 가옥리 구장이었던 진실규명대상자 박현모는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주민들 10여 명과 함께 경찰에게 쫓겨 다녔는데, 당시 13세였던 참고인 이석문은 경찰이 주민들을 체포하여 몽둥이로 구타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당시 박현모가 경찰의 체포를 피해 도망 다닐 때, 그의 동생 박동열이 대신 경찰에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⁹⁹⁾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니던 박현모는 1950년 1월 29일 무주경찰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같은 마을주민 3명과 함께 평촌마을 앞산에서 총살당했다. 시신은 그의 부친에 의해 수습되었는데, 수습 당시 시신은 나무를 등지고 손을 뒤로 묶인 채 머리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관통상을 당한 상태였다.¹⁰⁰⁾

동생 박동열은 형 박현모가 희생된 지 20여 일 뒤인 1950년 2월 20일경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용포리골짜기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 당시 산에서 숨어 지내던 주민들 수십 명과 함께 경찰의 매복에 걸려 체포되어 사살당한 것이라는 진술이 있다.¹⁰¹⁾

제적등본에 박현모는 '1950년 6월 7일 사망, 동거인 박희용 1969년 신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 조사결과

박현모와 박동열의 희생사실은 참고인 이석문, 박정열, 김병길, 두상영, 양종시, 이명열

99) 참고인 이석문 진술조서(2008. 8. 19)

100) 신청인 박희용 진술조서(2008. 8. 27), 참고인 박정열 진술조서(2010. 9. 15), 참고인 김병길 진술녹취(2009. 11. 25), 참고인 양종시 진술녹취(2009. 12. 25), 참고인 이명열 진술녹취(2010. 9. 29))

101) 신청인 박희용 진술조서(2008. 8. 27), 참고인 박정열 진술조서(2010. 9. 15), 참고인 김병길 진술녹취(2009. 11. 25), 참고인 두상영 진술녹취(2009. 11. 25), 참고인 이명열 진술녹취(2010. 9. 29)

의 진술에서 확인되며, 박동열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박현모의 시신은 수습된 바 있다. 이로 보아 박현모와 박동열은 1950년 1월 또는 2월 경찰토벌부대에 의해 총살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설천면 심곡리 김수근·김정갑 사망사건(다-9773호)

○ 진실규명대상자

- 김수근(당시 18세·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 김정갑(당시 40세·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 사건개요

1951년 11월 18일 아침 토벌작전 중이던 5사단 군인에 의하여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구천동) 일대에서 인민군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김수근이, 인민군점령기 인민위원장을 하였다는 이유로 김정갑이 살해된 사건.

○ 사건경위

1951년 11월 당시까지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무주구천동)에는 빨치산의 아지트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수복이 늦었다. 때문에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하여 인근에 국군 제5사단과 제18전투경찰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군경이 수시로 작전을 들어와 주민들을 집결시키고 60, 70대 노인에게까지 빨치산에게 협조 여부를 추궁하였는데 어떤 때는 데리고 다녔던 군견으로 주민들을 몰도록 하여 외곽에 있던 군인들까지 이러한 처사에 항의하였다.¹⁰²⁾

참고인 조승윤(당시 15세)은 “1951년 음력 11월 15일 무렵 인민군 4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군이 작전을 들어오려고 배방리 이우태를 척후병으로 보냈는데 이우태가 인민군이 없다고 잘못 보고하였다. 그 후 아군이 작전을 들어왔는데 군경은 인민군의 집중공격을 받았다. 동네 입구 김정갑의 집에 숨어 있던 인민군 여군이 총을 쏘아 아군 소대장이 관통상을 입었고 김정갑이 이 여군을 아군본부로 후송시켰다. 이후 군경은 이 마을 주민들을 빨갱이로 오인하게 되었다. 게다가 김정갑은 인민군점령기 마을 인민위원장을 하였다. 인민군의 강압에 의하여 하였던 것인데 그것이 들통나자 주민들 앞에서 총살하였다. 또 김수근에게 무주군당이 누구의 집에 있었느냐고 추궁하였지만 자신의 집에

102) 신청인 양선모 진술조서(2008.9.19.)

제 7 권

군당이 있었던 김수근이 답을 하지 못하자 김수근도 총살하였다. 김수근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고 손마저 불구여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었다.¹⁰³⁾ 배방리를 포함하여 이 부근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80명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이용규(당시20세)는 “김수근과 김정갑 두 사람 모두 한 동네에 살았다. 사건 당시 방위군 신분이라서 김수근, 김정갑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아서 그 곳에 가서 살림살이를 불 지르고 내려오면서 김수근, 김정갑의 시신을 보았다. 두 사람 모두 좌익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김수근은 당시 학생이었다.”고 진술하였다.¹⁰⁴⁾

참고인 김영옥(당시 15세)은 “삼공리 부근에 살았기 때문에 김수근과 김정갑이 전쟁 때 군경에게 죽은 것을 알고 있다. 연도는 전쟁 나던 해 다음 해인가 그 다음 해일 것이다. 당시 아군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총을 쏘아 죽였다. 우리 동네에서도 성이 길 씨이고 나이가 50세 정도인 분을 죽이려는 것을 ‘왜 아군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항의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⁰⁵⁾

○ 조사결과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 조승윤, 이용규의 진술과 참고인 김영옥, 김진영¹⁰⁶⁾의 진술로 보아 김수근과 김정갑은 1951년 11월 18일 아침, 무주군 삼공리 일대에서 작전을 펴던 군인들에게 총살된 것이 확인되었다.¹⁰⁷⁾

마. 진안군지역

1) 부귀면 정곡리 양재춘 사망사건(다-3089호)

○ 진실규명대상자

- 양재춘(梁在春 · 당시 24세 · 진안군 부귀면 정곡리)

○ 사건개요

진안군 부귀면 정곡리 양재춘이 인민군점령기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한 것 때문에 수복

103) 참고인 조승윤 진술조서(2008.9.18.)

104) 참고인 이용규 진술조서(2008.9.18.)

105) 참고인 김영옥 진술조서(2008.9.19.)

106) 참고인 김진영(김정갑의 손자) 통화보고(2010.5.18.)

107) 당시 군인들의 소각으로 251여 호의 가옥이 소실되었다. 참고인 조승윤 진술조서(2008.9.18.)

후인 1950년 10월경 장승지서에 연행되어 행방불명된 사건.

○ 사건경위

양재춘은 인민군점령기 마을 인민위원회 활동을 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수복 후인 1950년 10월경 장승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지서에 연행된 후 양재춘 가족은 지서로부터 양재춘이 진안경찰서로 이송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양재춘의 형수가 수소문하여 10여 일 후 양재춘이 사망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시신은 찾지 못하였다.¹⁰⁸⁾

이 무렵 마을에서 양재춘뿐만 아니라 정문표, 김기성, 김철주¹⁰⁹⁾도 경찰에 연행되었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양재춘 등 희생자들이 살던 정주동은 부유하였던 백씨 집안과 마을 청년들 간에 다툼이 전쟁 전부터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인민군점령기가 되자 마을청년들이 인민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마을은 수복된 뒤 양재춘, 정문표 등은 경찰에 연행되어 살해되었다.¹¹⁰⁾

양재춘의 처 김남순¹¹¹⁾과 정문표, 김기성, 김철주 등 양재춘의 가족도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이유로 총살되었는지에 대하여 경찰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며 시신수습도 못 하였다.¹¹²⁾

○ 조사결과

참고인 정길수는 사건발생일을 1950년 음력 9월경이라고 진술하였고¹¹³⁾ 양재춘의 제적부에는 1951년 9월 9일로 표기되어 사망일은 비슷하였다. 또한 양재춘과 함께 연행되어 행방불명된 주민은 정문표, 김기성, 김철주 등(이상 미신청)이다. 그러나 미신청 희생자 중 정문표는 유족이 확인되어 신원을 확인하였으나 김기성, 김철주는 유족을 확인할 수 없었다.

108) 신청인 양재진 진술조서(2008.9.10)

109) 정문표, 김기성, 김철주 등은 진실규명 신청이 되지 않았다.

110) 목격 참고인 방영신 진술녹취록(2008.8.20)

111) 형수가 당시 2살인 질녀를 업고 형님을 찾으러 다니다가 질녀가 병에 걸려 죽었다. 그 후 형수는 재혼하였다. 신청인 양재진 진술조서(2008.9.10)

112) 신청인 양재진 진술조서(2008.9.10)

113) 정문표의 아들인 참고인 정길수는 정문표의 제사를 음력 9월 9일에 지낸다고 하였다. 참고인 정길수 진술녹취록(2008.8.20)

제 7 권

2) 성수면 좌포리 이정옥 사망사건(다-9092호)

○ 진실규명대상자

- 이정옥(李正玉 · 당시 32세 ·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 사건개요

1950년 10월 23일 수복과정에서 몰려드는 경찰을 보고 주민들이 피신하였는데 이정옥을 포함한 좌포리 주민이 성수면 좌포리 산158번지에서 총살된 사건.

○ 사건경위

당시 밤에는 빨치산이 괴롭히고 낮에는 경찰유격대가 마을에 들어와 주민들을 괴롭히는 상황이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1950년 10월 23일도 경찰유격대가 동네로 들어오자 주민들은 뒷산으로 피신하였다가 경찰에게 잡혀 총살되었다. 이 사실을 동네어른들이 말해주어 시신을 수습하였다.¹¹⁴⁾

학교 윗동네인 봉촌마을 주민과 아랫동네 이금동, 안순영, 이정옥 등 7, 8명이 이날 총살당하였다. 이들을 살해한 사람들은 경찰유격대였지만 소속은 어디인지 모른다. 경찰 중 경상도 말씨를 쓰는 사람도 섞여 있었다.¹¹⁵⁾

이정옥의 아들인 신청인 이인선(당시 13세)은 “우리 집이 외딴집이어서 경찰들에게 밥을 해주고 있었다. 아버지 시신을 목격한 뒤 경찰에게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말했더니 안색이 달라졌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아버지를 총으로 죽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는 경찰이 우리 집에서는 밥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¹¹⁶⁾

이정옥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참고인 이양선(당시 13세)은 “이정옥은 농사꾼이었다. 우리 마을과 가까운 양화부락에 10월 20일까지 빨치산들이 주둔하고 있어 군경합동작전을 펼쳤는데 그때 돌아가셨다.”고 진술하였다.¹¹⁷⁾

진안결사대로서 수복 무렵 작전에 참여하였던 경찰 측 참고인 김봉규(당시 24세)는 “진안경찰서 소속으로 전쟁 발발 직후부터 활동하였으며 성수면 등을 수복하였다. 좌포

114) 신청인 이인선 진술조서(2008.9.11)

115) 신청인 이인선은 봉촌마을 주민 중 경찰에게 살해된 사람의 신원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이인선 진술조서(2008.9.11)

116) 신청인 이인선 진술조서(2008.9.11). 아버지 시신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 이금동, 안상순(안순영) 등 7, 8명의 시신도 목격하였다.

117) 참고인 이양선 진술녹취록(2008.8.20)

리에 들어갈 때는 빨치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교전이 있었다. 결사대는 처형은 하지 않고 대부분 교전 중 적을 사살하였다. 주로 임실, 순창, 장수 등 산간부로 다니면서 활동하였다. 당시 결사대의 성과는 경찰이 자신들의 성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¹⁸⁾

○ 조사결과

이정옥은 1950년 10월 23일 군경의 수복과정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좌포리 산158번지 마을 뒷산에서 경찰유격대에 잡힌 다른 주민들과 함께 총살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바. 고창군지역

1) 아산면 하갑리 정만수 사망사건(다-6520호)

○ 진실규명대상자

- 정만수(丁滿秀 · 당시 20세 ·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 사건개요

전쟁 이전 보도연맹원이었던 정만수가 수복 이후 고창읍 죽림리 매산마을에서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다가 향토방위대원에게 연행된 후 행방불명된 사건.

○ 사건경위

보도연맹원이었던 정만수는 1950년 음력 10월경 경찰이 인민군점령기 마을에서 부역한 사람들은 자수하라고 하여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기 위하여 집을 나갔는데 향토방위대원에게 연행된 뒤 행방불명되었다.¹¹⁹⁾

정만수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딸인 신청인 정금순(당시 2세)은 “지금은 사망한 외사촌오빠 성옥기도 그 무렵 같이 간혀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이 아버지를 호명하자 그날 석방된 줄 알았다고 한다. 외사촌오빠 말씀이 그날이 음력 11월 12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하였다.¹²⁰⁾

정만수가 향토방위대에 연행되어 고창경찰서에 감금되어 있다가 행방불명된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성문기는 “인민군점령기의 분위기는 인공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으

118) 군경관련 참고인 김봉규 면담보고서(2009.3.10)

119) 참고인 최장호 통화보고(2010.3.29)

120) 신청인 정금순 통화보고(2008.7.1)

제 7 권

며, 당시 마을청년들도 이러 저런 방식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¹²¹⁾

○ 조사결과

조사결과 정만수가 보도연맹원으로 인민군점령기 좌익활동을 하였고 이 때문에 수복 이후 향토방위대에 연행되어 고창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지만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2) 대산면 춘산리 강금동 사망사건(다-8946호)

○ 진실규명대상자

- 강금동(姜金同 · 당시33세 ·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 사건개요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에서 강금동, 황치규, 김경남 등 6명¹²²⁾이 인민군점령기 부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1951년 1월 4일 영광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이틀 뒤인 1951년 1월 6일 강금동, 황치규, 김경남이 총살된 사건.

○ 사건경위

강금동 등 대산면 춘산리 청년 3명은 1951년 1월 4일(음력 11월 27일) 마을에 들어온 군인들에게 연행되어 이틀 후인 1951년 1월 6일(음력 11월 29일) 영광읍 ‘북문재’에서 살해되었고 시신은 수습하였다.¹²³⁾

참고인 황경선(당시 18세)은 “그날 군인들에게 연행된 사람들은 경찰에 인계되었는데 30여 명이 영광읍에서 총살당하였다. 작은아버지 황치규의 시신을 찾으러 갔다가 경찰에게 잡혔는데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움직이면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오후 6시경에야 시신을 가져가라고 하여 집에 왔는데 시신은 총을 여러 발 맞은 상태였다. 청년들이 연행된 것은 당시 좌익활동을 하던 강현상이 영광경찰에 자수하여 그의 가족이 좌익들에게 죽자 보복으로 주민들을 연행하였는데 그 때문에 죽었다.”고 진술하였다.¹²⁴⁾

121) 참고인 성문기 진술녹취록(2008.12.9)

122) “황치규, 강금동, 김경남, 강홍주, 이재형, 강세근이 군인에게 연행되어 황치규, 강금동, 김경남 등은 같은 날 사망하였고 나머지 사람은 생활하였다.” 참고인 황경선 · 소상호 진술녹취(2008.11.1.)

123) 신청인 강태원 진술조서(2007.8.29)

124) 한 집에 군인들 대여섯 명이 다녔는데 우리 집에도 군인들이 왔을 때 나는 이불 속에 숨어 있었고 할아버지가 “나밖에 없소”라고 하여 운 좋게 살 수 있었다. 참고인 황경선 · 소상호 진술녹취(2008.11.1)

○ 조사결과

조사결과 1951년 1월 4일(음력 1950년 11월 27일) 대산면 춘산리 강금동, 황치규, 김정남이 군인들에게 연행되어 경찰에 인계되었다가 이틀 후 영광읍 복문재에서 경찰에게 살해되어 시신을 확인하고 수습하였다.

3) 흥덕면 송암리 김종철 사망사건(다-9629호)

○ 진실규명대상자

- 김종철(金鍾哲·당시 27세·고창군 흥덕면 송암리)

○ 사건개요

1952년 11월 16일¹²⁵⁾ 고창군 흥덕면 송암리 김종철이 빨치산이 출몰하는 가운데 빨치산을 집에 숨겨주고 내통했다고 경찰에게 연행된 뒤 행방불명된 사건.

○ 사건경위

고창군 흥덕면 송암리 김종철은 빨치산을 재워주었는데,¹²⁶⁾ 나중에 경찰에 잡힌 빨치산이 이 사실을 자백하여 빨치산과 내통하였다는 혐의로 발일을 하던 중 고창경찰서 경찰에게 연행되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¹²⁷⁾

당시 산간지역에 은신하면서 활동하던 빨치산은 물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간히 마을로 내려오곤 하였다. 김종철은 인민군점령기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고,¹²⁸⁾ 희생자가 거주하던 마을에서는 면사무소 공무원 한 명이 행방불명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희생자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¹²⁹⁾

김종철은 마을 어귀에서 고문을 받다 경찰서로 연행되었고,¹³⁰⁾ 그의 처가 면회를 하려 하였으나 불허되었다.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아 가족은 김종철이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시신을 찾아 다녔지만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¹³¹⁾

125) 신청인 김수완은 아버지 김종철이 음력 11월 16일에 집을 나가서서 전날인 11월 15일에 제사를 지낸다는 이야기를 할머니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김수완 진술조서(2007.9.7.)

126) 신청인 김수완 진술조서(2007.9.7.)

127) 신청인 김수완 진술조서(2007.9.7.); 참고인 오달상 진술녹취(2008.11.19.)

128) 참고인 이재남 진술녹취(2008.11.19.)

129) 참고인 이재남 전화녹취(2009.12.15.)

130) 신청인 김수완 진술조서(2007.9.7.)

131) 참고인 오달상 진술녹취(2008.11.19.)

제 7 권

○ 조사결과

신청인 김수완(1951년 출생)의 진술, 참고인 오달상(당시 18세)·이재남(당시 11세)의 진술로 볼 때 김종철이 빨치산을 재워주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어 살해된 것으로 보이지만 시신을 수습하였다는 진술은 없었다.

4) 무장면 옥산리 김홍채 사망사건(다-9634호)

○ 진실규명대상자

- 김홍채(金洪採·당시 56세·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 사건개요

1951년 1월 2일(음력 1950년 11월 25일) 옥산리 주민 김홍채가 ‘동생 김용채(당시 35세)가 인민군점령기 마을에서 인민위원장을 한 것 때문에’ 학도호국단에게 연행되어 살해된 사건.

○ 사건경위

김홍채는 수복 후 주민들이 피난을 간 가운데 마을에 남아 있던 정휘관의 어머니와 함께 학도호국단에게 연행되어 인근 산에서 살해되었다. 당시 특별대로 군인과 학도호국단이 간간히 들어오곤 했는데, 굴속에 숨어 있던 7~8명의 주민들이 구타를 당한 후 총살되는 일도 있었다.¹³²⁾

이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 김태원(당시 8세)은 “김홍채는 아버지 외가 쪽 집안이다. 그분 동생이 인민군점령기 동네에서 활동하였는데 그 때문에 마을에 들어온 학도병에게 인근 산으로 연행되어 죽었다. 같은 날 정휘관의 어머니도 사망하였는데 그분은 남편의 빨치산 가담 여부를 추궁받다가 총살되었다.”고 진술하였다.¹³³⁾

○ 조사결과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김홍채가 인민군점령기 동생이 마을 인민위원장을 하였다라는 것 때문에 마을에 들어온 학도병에게 연행되어 가라마을 인근에서 살해된 것은 아들 김기모(당시 18세)의 진술과 같은 동네 주민 김태원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132) 신청인 김기모 진술조서(2007.9.10.)

133) 참고인 김태원 진술녹취(2008.10.31.)

5) 무장면 송현리 김원철·김철주 사망사건(다-9657호)¹³⁴⁾

○ 진실규명대상자

- 김원철(金元喆·당시 30세·고창군 무장면 송현리)
- 김철주(金徹住·당시 20세·고창군 무장면 송현리)

○ 사건개요

1950년 12월 29일(음력 11월 21일) 무장면 송현리 거주 김원철과 김철주가 인근 굴로 피난을 갔다가 경찰에게 연행되어 한재산에서 총살당한 사건.

○ 사건경위

고창군 무장면 송현리 김원철, 김철주는 송현리가 수복될 무렵 좌익들이 피난을 나가 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여 피난을 나가 굴속에서 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 집에 오기 위하여 굴 앞을 나서던 중 방위병의 눈에 띄어 인근 한재산으로 끌려가 경찰에게 살해되었다. 김원철과 김철주의 시신은 사건 당일 수습하였다.¹³⁵⁾

같은 마을에 살았던 참고인 김숙환(당시 22세)은 “당시 좌익이나 경찰 양쪽에서 주민들을 괴롭히니 아침에는 집을 나가 낮에는 숨어 지내는 생활을 한 달 넘게 하며 빨치산을 피해 다녔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은 경찰대로 인공은 인공대로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³⁶⁾

김원철과 김철주가 경찰에게 살해된 사건에 대하여 같은 마을 주민 주기순(당시 20세)은 “삼밭에 숨어 있으면서 보았는데 산봉우리에서 총을 쏘다. 총소리가 그친 뒤 밖을 내다본 7~8명 정도가 경찰에게 산속으로 끌려가서 죽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시신은 그날 산에 다 묻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¹³⁷⁾

참고인 서태영(당시 16세)은 “이날 신촌마을에서 두 명이 죽고 옆 동네에서 김원철, 김맹철, 김성기, 홍○○, 이름을 모르는 1명 등이 진주한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한재산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¹³⁸⁾

134) 이 사건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조사개시되어 조사 중 2008년 12월 3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재배정되었다.

135) 신청인 김귀현 진술조서(2008.7.22)

136) 참고인 김숙환 진술녹취(2009.2.5)

137) 참고인 주기순 진술녹취(2009.2.5)

138) 참고인 서태영 진술녹취(2009.2.5)

제 7 권

○ 조사결과

1950년 12월 29일 김원철과 김철주 등이 피난을 나가 굴속에서 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 집에 오려고 굴을 나서던 중 경찰의 눈에 띄어 인근 한재산으로 연행되어 살해된 것은 당시 주민들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되었고 시신도 수습되었다.

6) 무장면 고라리 김판수 사망사건(다-10603호)

○ 진실규명대상자

- 김판수(金判洙 · 당시 32세 · 고창군 무장면 고라리)

○ 사건개요

김판수가 1951년 음력 1월 중순경 무장면 고라리 옥동에서 고창경찰서 무장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고창경찰서로 이송된 후 1951년 3월 9일(음력 2월 3일)¹³⁹⁾ 이후 행방불명된 사건.

○ 사건경위

사건 당시 무장면 고라리에 살던 참고인 김두환(당시 29세)은 “김판수는 농사를 짓고 살던 평범한 농사꾼이었는데 중공군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 무렵 경상도 말씨를 쓰던 남 순경이 마을에 들어와 연행하였다. 남 순경은 20대로 보였는데 마을에서 남자들은 보이는 대로 연행하였다. 오후 3시쯤이었는데 남 순경이 연행하는 것은 목격하였다. 시신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¹⁴⁰⁾

진실규명대상자 김판수의 아들인 신청인 김명철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6살이어서 내용은 나중에 어른들께 들었고, 아버지 시신을 찾으러 선운사 골짜기까지 가서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⁴¹⁾

김판수가 연행되던 무렵 마을 분위기에 대하여 참고인 김명진(당시 8세)은 “그 무렵 아버지 김창제도 경찰에 연행되어 구타를 당한 후 석방되었다. 당시 지하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인공이 되자 내무서장, 분주소장을 시켰는데 수복 후에는 덮어놓고 손톱만한 일도

139) 신청인 김명철은 아버지 김판수와 함께 연행되어 고창경찰서에 있다가 석방된 사람으로부터 아버지를 음력 2월 3일까지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음력 2월 2일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신청인 김명철 통화보고(2010.5.19.)

140) 참고인 김두환 · 김명진 진술녹취(2008.10.31)

141) 신청인 김명철 진술조서(2007.8.24)

걸렸다하면 잡아다 죽이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다.¹⁴²⁾

○ 조사결과

조사결과 김판수가 1951년 음력 1월 무장지서 경찰에게 마을에서 연행되어 1951년 3월 9일(음력 2월 3일) 이후 소식이 끊기고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였지만 연행장면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어 경찰에게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7) 고창읍 덕산리 임인택·엄종섭·김병현·유홍종·엄규섭 사망사건(다-4439호)

○ 진실규명대상자

- 임인택(林仁澤·당시 31세·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엄종섭(嚴種燮·당시 28세·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김병현(金炳鉉·당시 26세·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유홍종(劉弘種·당시 24세·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엄규섭(嚴奎燮·당시 22세·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사건개요

1950년 10월 30일 고창읍 덕산리 백양마을에 낮선 사람 3, 4명이 지나갔고 뒤이어 군인들이 추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마을에 거주하던 청년들도 뒷산으로 피난하였는데 이들 중 5명이 총살된 사건.

○ 사건경위

1950년 10월 30일 고창읍내에서 1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백양동 남쪽에서 낮선 사람 3, 4명이 마을을 지나갔다. 잠시 후 마을에 들어온 군인들이 이들을 추격하였다. 이에 놀란 동네청년들도 마을 뒷산으로 피난을 갔고 노인과 어린 아이는 집에 숨어 있었는데 뒷산으로 피난 갔던 청년 중 5명이 군인들에게 잡혀 총살당하였다.¹⁴³⁾

신청인 유동란(당시 14세)은 “사망한 5명 중 시신 1구는 직접 보았고 나머지 시신도 가족들이 찾아서 매장하였다. 군인들의 소속은 모르겠으나 당시 고창중학교에 주둔하였던 부대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142) 참고인 김두환·김명진 진술녹취(2008.10.31)

143) 신청인 유동란 진술조서(2007.8.24)

제 7 권

사건 당시 마을에 있었던 참고인 유동수(당시 20세)는 “청년들이 산으로 피난을 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피난 행렬에 총을 쏘았다. 군인들이 붙잡은 주민들 중 두 사람은 못난 사람이라 돌려보내고, 노인들도 돌려보냈는데 청년 5명은 총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유흥중, 엄규섭, 임인택, 엄중섭, 김병현이다. 군인들은 그 후 고창읍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¹⁴⁴⁾

○ 조사결과

『한국전쟁사료』59권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날 무렵인 1950년 10월 30일 무렵부터 12월 10일까지 국군 제11사단 13연대 3대대가 고창읍에 주둔하였던 것은 확인된다.¹⁴⁵⁾

1950년 10월 30일 고창읍 백양동마을에서 좌익으로 의심되는 ‘낮선 사람’ 3, 4명이 군인들에게 쫓긴 뒤 이에 놀란 주민들이 피난을 가자 뒤이어 들어온 군인들에게 유흥중, 엄규섭, 임인택, 엄중섭, 김병현 등 5명의 청년들이 군인들에게 살해되었다. 당시 군인들은 제 11사단 13연대 3대대 군인으로 보인다.

8) 대산면 지식리 강응원·신희철·한부덕 사망사건(다-5294호)

○ 진실규명대상자

- 강응원(姜應遠·당시 40세·고창군 대산면 지식리)
- 신희철(辛徽喆·당시 32세·고창군 대산면 지식리)
- 한부덕(韓富德·당시 33세·고창군 대산면 지식리)

○ 사건개요

1950년 12월 2일 새벽 대산면 지식리 407번지 일대에서 야경근무를 하던 주민이 군경에게 총살된 사건.

○ 사건경위

대산지서가 수복된 직후인 1950년 12월 2일 야경을 잘못 섰다는 이유로 강응원,¹⁴⁶⁾ 신희철·한부덕 부부¹⁴⁷⁾가 경찰에게 살해되었다.

144) 참고인 유동수 진술녹취(2008.10.31)

145)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전쟁사료』59권 600쪽에는 ‘제10, 11, 12중대가 고창에 주둔’한 내용과 608쪽에는 ‘제13연대는 단기 4283년 12월 10일 12시 현재 위치인 고창(CQ9224) 일대에 근무 중인 각 중대의 위치를 제20연대에 인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46) 강응원의 제적부에는 사망일자가 1950년 10월 23일 사망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147) 신희철과 한부덕의 제적부를 확인한 결과 1950년 10월 22일 사망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신청인 신길하(1961년 출생)는 “할아버지 신휘철과 할머니 한부덕의 사망사실에 대하여 대산면이 수복될 무렵 그분들은 영광 방향으로 피난을 가다가 군경들에게 총살당한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¹⁴⁸⁾

강응원 등과 한마을에 거주하였던 참고인 김재찬(당시 23세)은 강응원 등의 사망이유에 대하여 “군경이 진주할 무렵이었는데 강응원과 김차석은 보초를 서던 중 총을 든 사람들이 시커멓게 몰려오니 겁에 질려 도망가다가 잡혀 총살되었다. 신휘철과 정재국도 그 사람들에게 잡혀 산봉우리에서 총살되었다.”고 진술하였다.¹⁴⁹⁾

사건 무렵인 1951년 1월 대산지서 학도호국단원이었던 참고인 정창환(당시 19세)은 “경찰토벌대가 지석리에 들어가 마을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¹⁵⁰⁾

○ 조사결과

1950년 12월 2일 대산면이 수복될 무렵 보초 근무 등을 하다가 강응원, 신휘철·한부덕 부부가 마을에 진주한 경찰에게 살해된 사건은 신청인들의 목격·전문 진술과 참고인 김재찬의 목격진술, 그리고 대산지서 학도호국단원 정창환의 진술 및 시신을 수습하였다는 유족의 진술, 제적부와 족보에 기록된 사망일자 등으로 확인되었다.

9) 공음면 덕암리 강봉원 사망사건(다-7629호)

○ 진실규명대상자

- 강봉원¹⁵¹⁾(姜奉遠·당시 36세·고창군 공음면 덕암리)

○ 사건개요

1951년 1월 9일 영광 쪽에서 총성이 있자 대산면 용두마을 주민들이 성송면 암치리 뒷산 생말골로 피난을 갔다가 군인들에게 붙잡혀 총살된 사건.

○ 사건경위

대산면 용두마을 강봉원이 1951년 1월 9일 영광 쪽에서 총성이 울리자 성송면 암치리 뒷산 생말골로 피난을 갔다가 군인들에게 총살되었다. 신청인 강승현(당시 5세)은 아버지

148) 신청인 신길하 진술조서(2007.9.3)

149) 참고인 김재찬 진술녹취(2008.11.20)

150) 참고인 정창환 진술조서(2009.9.22)

151) 강봉원은 대산면 지석리에서 1950년 12월 2일 사망한 강응원(다-5294호)의 동생이다.

제 7 권

강봉원의 시신수습에 대하여 “어머니가 무서워서 시신을 찾으러 가지도 못했다. 아버지는 평소에 빨치산 활동을 한 적도 없고 단지 피난가자고 해서 피난을 가다가 돌아가셨다.”고 진술하였다.¹⁵²⁾

고창군 대산면 회룡리 용두마을에 살았던 참고인 성석천(당시 22세)은 “강봉원과는 한 마을에 살았는데 인공이 들어와 설치던 판이라 그걸 피하려면 피난을 가야했다. 12월 29일 아침밥을 먹고 가다가 피난민 행렬이 군인들에게 이리저리 몰리다가 재수 없는 사람들만 죽었다. 5일 정도 돌아다니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강봉원이 죽은 걸 알았다. 장인과 같이 갔는데 장인은 용케 살아오셨다.”고 진술하였다.¹⁵³⁾

같은 마을에 살았던 참고인 김영우(당시 15세)는 “피난 갔다가 돌아온 어른들이 강봉원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하여 알게 되었다. 시신은 수습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무렵 20연대 군인도 주둔하고 있었고, 경찰도 있었다고도 하는데 누가 죽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¹⁵⁴⁾

○ 조사결과

대산면 용두리 강봉원이 1951년 1월 9일 총성을 듣고 피난을 가다가 군인들에게 총살된 사건은 신청인 강승현(당시 5세)의 전문 진술과 성석천(당시 22세)·강성순(당시 14세)의 진술로 보면 희생사실은 확인되나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다.

10)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공선종·박복기 사망사건(다-9208호)

○ 진실규명대상자

- 공선종(孔璇鍾 · 당시 46세 · 전남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 박복기(朴福己 · 당시 43세 · 전남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 사건개요

1951년 3월 12일 경찰의 지시로 고창국민학교에 집결된 주민 중 경찰에 선별되어 고창경찰서에 연행된 뒤 행방불명된 사건.

152) 신청인 강승현 진술조서(2007.8.29)

153) 참고인 성석천·강성순 진술녹취(2008.10.29)

154) 참고인 김영우 통화보고(2010.4.13)

○ 사건경위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에 살았던 공선중·박복기 부부는 마을이 소개되자 딸 공태임이 살고 있던 고창읍으로 와서 피난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경찰이 읍내 주민들을 고창국민학교에 집결시키고 부역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공선중·박복기 부부는 고창경찰서로 연행되어 살해되었다.¹⁵⁵⁾

공선중·박복기가 경찰에 연행되어 행방불명된 사건에 대하여 공선중의 딸 공태임(당시 19세)은 “결혼하여 고창읍 신흥동에서 살았다. 친정 부모님이 고창으로 피난을 오셔서 피난생활을 하셨는데 경찰이 주민들을 고창국민학교로 집결시켰다. 주민들 중 예비군은 예비군대로, 피난민은 피난민대로, 읍내 거주 주민은 그들대로 세웠다. 집에 들어왔다가 나중에야 가보니 초등학교에는 아무도 없었다. 동생으로부터 ‘부모님이 경찰서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뵈었는데 그 후 소식이 끊겼다. 부모님이 장성에서 오신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진술하였다.¹⁵⁶⁾

○ 조사결과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주민 공선중·박복기가 딸이 있던 고창읍으로 피난을 나왔다가 주민 집결 시 경찰에 의하여 고창경찰서에 연행되어 행방불명된 이 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이 외지인이고 피난 중 연행된 사건이라서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는 참고인을 탐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창경찰서에 연행된 것을 보았다는 공태임의 진술 등으로 보아 공선중·박복기 부부가 연행되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11) 무장면 송계리 김환용 사망사건(다-9655호)

○ 진실규명대상자

- 김환용(金煥容·당시 52세·고창군 무장면 송계리)

○ 사건개요

1950년 12월 14일 무장면 송계리 송림산에서 김환용이 공비특별작전을 벌이던 군경에게 살해된 사건.

155) 신청인 공보현 진술조서(2007.9.3.)

156) 참고인 공태임 진술녹취(2008.11.20.)

제 7 권

○ 사건경위

사건발생 나흘 전인 1950년 12월 10일(음력 11월 2일) 경찰에 쫓기던 김환용은 며칠이 지나 마을 뒤 송림산 중턱에서 총으로 두개골이 관통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김환용의 시신이 발견된 구덩이에는 옆 마을인 도곡리 도산 주민 최판열의 시신도 있었다. 진실규명대상자 김환용의 아들인 신청인 김요현(당시 19세)은 “아버지 시신을 발견하고 내가 직접 매장하였다. 인민군점령기 마을이장을 지낸 아버지는 좌익에게 협조한 것도 없다. 그럼에도 낮에 집에 있으면 군경에게 두들겨 맞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¹⁵⁷⁾

송계리 주민 김요섭(당시 23세)은 “당시 집에 있기가 겁이 나 피난을 다녔는데 저녁때는 3~4킬로미터 떨어진 공음면 두암마을까지 가서 숙식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김환용은 산속에 친척이 피난하고 있어 그곳에 함께 있다가 의용경찰인가, 학도대인가에게 잡혀서 돌아가셨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¹⁵⁸⁾

○ 조사결과

조사결과 인민군점령기 마을이장을 하였다는 것 때문에 군경을 피해 다니던 김환용이 군경에게 살해된 이 사건은, 참고인 진술과 김환용의 시신을 수습한 김요현의 진술 등으로 볼 때 군경에게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12) 무장면 원촌리 오인대 사망사건(다-9700호)¹⁵⁹⁾

○ 진실규명대상자

- 오인대(吳仁大 · 당시 21세 · 고창군 무장면 원촌리)

○ 사건개요

1950년 12월 13일(음력 11월 5일) 학도병 배석장교인 오인대가 집안에 굴을 파고 지냈는데 사건 전날 밤 이 굴에서 좌익들이 자고 간 사실이 경찰에게 발각되어 교흥리에서 총살당한 사건.

157) 신청인 김요현 진술조서(2007.9.7); 신청인 김요현 진술녹취(2008.10.31)

158) 참고인 김요섭 진술녹취(2008.10.31)

159) 이 사건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조사개시되었으나 2008년 12월 3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재배정되었다.

○ 사건경위

고창군 무장면 원촌리 청년 오인대, 손영식, 정구봉 등 3명이 굴을 파고 숨어 지냈는데 무장빨치산이 와서 자고 갔고 다음날 경찰을 데리고 다시 왔다. 오인대의 처 박일순(당시 21세)은 “경찰이 전날 굴속에서 자고 간 사람을 데려 와서 ‘이 사람을 모르느냐, 굴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고 물었다. 세 사람을 끌고 간 후 집에 불을 질렀으며 고창으로 끌려 간 세 사람은 교흥리 인근에서 죽었다. 오인대는 팔에 총을 맞고 엎어져서 죽어 있었고 다른 두 사람은 불에 타서 죽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¹⁶⁰⁾

같은 마을 주민인 참고인 손춘자(당시 15세)¹⁶¹⁾도 그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대한민국이 진주하고 나서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오인대도 그때 경찰에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였다. 오인대가 경찰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으며 그 무렵 마을에서 여럿이 끌려가서 죽었다.”¹⁶²⁾

○ 조사결과

조사결과 오인대는 무장면 원촌리 신기마을에서 굴을 파놓고 굴속에서 생활하다가 빨치산을 재워주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어 교흥리 인근에서 경찰에게 총살당하였다.

13) 심원면 월산리 손재만 사망사건(마-9683호)

○ 진실규명대상자

- 손재만(孫在萬 · 당시 27세 ·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 사건개요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에 거주하던 손재만이 1951년 3월 10일(음력 2월 3일)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사등천변에서 군경에게 총살당한 사건.

○ 사건경위

신청인 이공우(당시 6세)는 “외삼촌 손재만이 1951년 3월 10일(음력 2월 3일) 군경의 좌치

160) 신청인 오유경 진술조서(2008.7.22); 참고인 박일순 진술녹취(2008.10.15); 참고인 손춘자 진술녹취(2008.10.15)

161) 참고인 손춘자는 마-9685호(무장면 원촌리 손판덕 희생사건)의 신청인이다.

162) 참고인 손춘자 통화보고(2010.6.3)

제 7 권

포위작전 때 피난을 다니다가 군경의 총을 맞고 사망하였다고 한다.”고 진술하였다.¹⁶³⁾

마을주민 이사형(당시 25세)은 “손재만은 피난을 다니다가 하전리 바닷가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⁶⁴⁾

또 다른 마을주민 박형채(당시 14세)도 “손재만은 피난을 다니다가 좌치 옆 고막재 부근에서 죽었다. 그날 검당에서 8명이¹⁶⁵⁾ 죽었다. 피난을 갔다가 언덕을 넘어오면서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¹⁶⁶⁾ 주민 김만수(당시 26세)도 “손재만은 피난을 다니다가 경수산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고 진술하였다.¹⁶⁷⁾

○ 조사결과

조사결과 손재만은 1951년 3월경 피난을 다니다가 경찰의 포위작전 때 총살당한 것으로 보인다. 시신을 수습하였고 다수 참고인의 진술로 사망사실이 확인되었다.

사. 김제시지역

1) 봉남면 대송리 윤성학 사망사건(다-6954호)

○ 진실규명대상자

- 윤성학(尹聖學 · 당시 25세 ·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

○ 사건개요

봉남면 대송리에 거주하였던 윤성학이 1949년 3, 4월경 청하면 청하지서 뒷담 집에 거주하는 친지 김○○을 만나러 간다면서 집을 나섰는데 청하지서에 연행되어 김제경찰서를 경유, 전라북도경찰국으로 이송되었으나 행방불명된 사건.

163) 신청인 이공우 진술조서(2009.10.7). 신청인 이공우(당시 6세)는 2008.6.12 진술조서에서 “1951년 3월 19일(음력 2월 12일)경에 당시 심원면 인민위원장인 배창섭 일당이 집에 있는 외삼촌 손재만을 잡으려고 하여 외삼촌은 심원면 소재 장수강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총에 다리를 맞고 용기리와 수다리 사이의 산으로 도피하였으나 배창섭 일당이 쫓아와서 쏜 총에 머리를 맞아 죽었다고 한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164) 참고인 이사형 통화보고(2008.10.6)

165) 같은 마을 주민 참고인 박병옥의 진술(2009.10.7)에 따르면 1951년 3월 10일 토벌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월산리 주민들이 해변가로 피난을 다니다가 검당 선창가에서 12명이 죽었다고 한다.

166) 참고인 박형채 진술조서(2009.11.4)

167) 참고인 김만수 진술조서(2009.11.3)

○ 사건경위

해방 이후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임종연¹⁶⁸⁾과 함께 활동을 하였던 윤성학은 좌익으로 몰려 김제경찰서 봉남지서 경찰에게 체포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6개월의 형을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그 후 김제경찰서 청하지서 뒤에 거주하는 김○○¹⁶⁹⁾을 방문하여 그의 집에서 1박하였다. 다음날 아침 김○○이 청하지서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고 윤성학은 청하지서에 연행되었다. 이후 윤성학은 김제경찰서, 전북도경으로 이송된 후 소식이 끊겼고 시신도 찾지 못했다. 윤성학의 동생인 신청인 윤성남(당시 18세)은 “형님과 비슷한 시기에 전북도경에 연행되어 살해된 김종태의 동생인 김종복으로부터 그 무렵 연행되어 죽은 사람이 50여 명이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¹⁷⁰⁾

신청인 윤성남은 전라북도경찰국에서 윤성학을 전주시내 황방산 또는 산동이라고도 하는 곳으로 끌고 가 죽였다고 하지만 정확한 장소는 어디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¹⁷¹⁾

윤성학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참고인 박용운(당시 25세)은 “윤성학은 좌익활동을 하였다. 그 형제가 윤성호·윤성학·윤성남인데 이리로 이사한 후 성호·성학은 죽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¹⁷²⁾

○ 조사결과

신청인 윤성남과 참고인 박용운의 진술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였던 윤성학이 여순사건 이후인 1949년 3, 4월경 전라북도경찰국에 연행 후 살해된 것으로 보이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다.

2) 봉남면 대송리 임종연·대송리 임종률 사망사건(다-7579호)

○ 진실규명대상자

- 임종연(林鍾年·임호·당시 42세·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168) 임종연은 일제강점기 일본유학 중 동경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임종연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 임호로도 불렸다. 일경에게 조직이 탄로되어 일본경찰에게 체포된 임호는 해방 직전 국내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출소 후 해방이 되자 김제지역에서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하였다. 여순사건 뒤 1949년 서울에서 체포되어 전북도경으로 이송되었다. 임종연의 희생사실과 관련해서는 임소영(다-7579호)이 진실규명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윤성남 진술조서(2008.3.4)

169) 김○○은 1948년 12월경에 감옥에서 출소하였는데 인민군점령기 옥구군 대야면에서 청하면 치안대에게 연행 도중 만경강 청하교에서 투신자살하였다고 들었다. 신청인 윤성남 진술조서(2008.3.4)

170) 신청인 윤성남 진술조서(2008.3.4)

171) 신청인 윤성남 진술조서(2008.3.4)

172) 참고인 박용운 진술녹취(2008.10.17)

제 7 권

- 임종률(林鍾律·당시 27세·김제군 봉남면 신호리)

○ 사건개요

해방 후 좌익활동을 하였던 임종연이 1949년 봄 경찰에 체포되어 전라북도경찰국 유치장에 수용 중 1950년 살해된 사건과 전쟁 발발 후 전주지역 수복 후 임종률이 경찰에 체포되어 살해된 사건.

○ 사건경위

1920년대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임종연이 일경에게 체포되어 1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1939년경에 국내로 들어와 독립운동을 하였고 해방 이후에도 ‘전국평의회’ 활동을 하였다.

임종연은 1948년 음력 10월경 전라북도경찰국에 연행되어 유치장에 수용되었다. 신청인 임소영(당시 10세)은 “큰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임종연이 1950년 6.25 발발 후 총살되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버지께서 수감 중 언제 어디서 총살되었는지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고 진술하였다.¹⁷³⁾

신청인 임소영은 “윤성남¹⁷⁴⁾으로부터 아버지 관련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 중 조카사위가 경찰서 사찰과에 근무한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수감 중인 아버지를 직접 보았는데 출소할 무렵에 아버지가 살해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¹⁷⁵⁾

임종연의 막내동생인 임종률은 중국 유학 후 국내에 돌아와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에서 생활하였는데 여순사건 후 김제경찰서로 연행되어 7개월여 수감 후 폐병에 걸려 출소하여 요양하던 중 김제경찰서에 다시 연행되어¹⁷⁶⁾ 살해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¹⁷⁷⁾

○ 조사결과

임종연이 1949년 3, 4월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김제경찰서를

173) 신청인 임소영 진술조서(2008.3.4)

174) 윤성남은 임종연과 함께 활동하였던 윤성학의 희생사실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신청인 윤성남 진술조서(2008.3.4)

175) 신청인 임소영 진술조서(2008.3.4)

176) 임종률의 형인 임석호는 임종률과 함께 김제경찰서로 연행 도중 차에서 뛰어내려 살았다. 신청인 임소영 진술조서(2008.3.4)

177) 신청인 임소영 진술조서(2008.3.4); 신청인 윤성남 진술조서(2008.3.4)

경유하여 전라북도경찰국으로 연행되어 황방산 혹은 산동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살해된 사실은 확인되었다.¹⁷⁸⁾ 그러나 임종연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고, 임종률¹⁷⁹⁾은 1950년 10월경 전주가 수복된 후 경찰에 체포되어 살해된 것만 추정될 뿐 나머지 사실은 알 수 없었다.

아. 부안군지역

1) 행안면 삼간리 김순옥 사망사건(다-6792호)

○ 진실규명대상자

- 김순옥(金順玉 · 당시 40세 ·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 사건개요

정미소를 운영하던 김순옥이 정미기계가 고장 나 1951년 10월 28일 밤새 불을 켜놓고 고쳤는데 인근에서 빨치산과 교전한 경찰과 치안대가 빨치산과 내통하였다고 의심하고 연행하여 주산지서에서 구금 후 총살한 사건.

○ 사건경위

1951년 10월 28일(음력 9월 28일) 밤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인근에서 빨치산과 경찰, 치안대의 교전이 있었다. 이 마을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김순옥은 발전기가 고장 나서 밤새 불을 켜놓고 발전기를 수리하였다. 다음날 정미소에 몰려온 치안대는 불을 켜놓고 발전기를 고친 것을 빨치산과 내통으로 의심하고 김순옥을 주산면 주산양조장 뒷산 부안 김씨 선산으로 끌고 가서 총살하였다.

진실규명대상자 김순옥의 아들인 신청인 김인석(당시 14세)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빨치산과 경찰치안대가 상서면 간교와 주산면 돈계리 경계에서 교전이 있었는데 그때 치안대장 동생이 빨치산에게 살해되었다. 그 때문에 치안대가 원돈계마을에 들어와 주민을 총살하였다. 아버지 시신은 숙부와 원돈계마을 어른들이 수습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⁸⁰⁾

사건 당시 이웃 마을에 살았던 참고인 김종철(당시 20세)은 “김순옥은 방앗간을 운영

178) 당시 죽은 사람이 50여 명이 되었다고 한다. 신청인 윤성남 진술조서(2008.3.4)

179) 신청인 임소영의 진술에 의하면 막내숙부인 임종률은 여순사건 발생 후 김제경찰서로 끌려가서 7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했다고 하였지만 해당 기록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180) 신청인 김인석 진술조서(2008.6.2)

제 7 권

하려고 이사 왔는데 밤마다 마을에 빨치산이 출몰하자 피난을 다녔다. 그때 소주리 치안대장 박종만의 동생 박종철이 빨치산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다음날 아침 경찰이 돈계리에 들어와 주민들을 집결시키고 전날 밤 불을 밝혔다는 이유와 인민군점령기 부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김순옥, 최병춘, 김재식의 형과 함께 주산지서로 끌고 갔다. 이 중 최병춘이 인민군점령기 가족을 보호해주어서 최병춘의 시신을 찾으러 주산지서로 갔는데 그때 김순옥 시신도 보았다. 경찰이 연행하여 치안대가 살해하였다고 들었다. 돈계리는 빨치산 근거지였던 변산이 바로 보이는 곳으로 빨치산이 교신을 위해 봉홧불을 올리던 곳이었다. 그래서 김순옥이 일하면서 불을 밝혔던 것을 빨치산과 교신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¹⁸¹⁾

○ 조사결과

김순옥이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에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치안대에게 살해된 사건은 시신을 목격한 신청인 김인석, 참고인 김종철의 진술로 확인되었다.

2) 줄포면 파산리 최귀순 사망사건(다-7546호)

○ 진실규명대상자

- 최귀순(崔貴順 · 당시 38세 · 부안군 줄포면 파산리)

○ 사건개요

1951년 11월 17일(음력 10월 19일) 이웃마을에서 귀가하던 최귀순이 잠복 중인 전투부대원들의 총부리에 찢리고 두들겨 맞아 갈비뼈가 부러져 다음날 사망한 사건.

○ 사건경위

1951년 11월 17일 줄포면 파산리¹⁸²⁾ 주민 최귀순은 한골마을에서 농사일을 하고 논길을 따라 파산리 월평마을로 돌아가던 중 잠복하고 있던 전투부대원들에게 붙잡혀 총부리 등으로 찢리고 두들겨 맞고 다음날 사망하였다. 최귀순의 딸인 신청인 최점례(당시 9세)는 “아버지 시신은 어머니가 마을이장¹⁸³⁾과 김래홍(2008년 3월 사망) 등 마을어른과 함

181) 참고인 김종철 진술녹취(2008.10.28):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때 제출한 주민 김종철의 인우보증서(2006.11.2)

182) 줄포면의 파산리는 당시 들녘이어서 깊은 산도 없고,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빨치산과 입산자들이 식량보급을 할 만한 곳도 아니었다. 신청인 최점례 진술조서(2008.6.2)

께 매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¹⁸⁴⁾

○ 조사결과

신청인이 당시 9세로 당시 잠복하였던 부대의 부대장이 최상열¹⁸⁵⁾이라고 진술하는 등 전문 진술이 구체적이지만 시신수습을 하였던 어머니와 김래홍, 당시 잠복하였던 부대의 부대장이 이미 사망하였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제3의 참고인은 없었다.

자. 남원시지역에서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정득용 사망사건(다-2187호)¹⁸⁶⁾

○ 진실규명대상자

- 정득용(鄭得龍 · 당시 44세 ·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 사건개요

1950년 7월 25일경 남원시 운봉면과 번암면 경계지역에 논물을 보러 갔던 정득용이 군인들에게 마을사람 2명과 함께 살해된 사건.

○ 사건경위

남원시 운봉면 소성리에서 태어난 정득용은 결혼 후 경상도 함양을 거쳐 일본에 건너 갔다가 해방 후 귀국하였다. 농사지을 땅을 구하던 정득용은 남원시 운봉면 매요리에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다. 이후 6.25가 났고 정득용은 논에 물을 보러 갔다가 군인들에게 잡혀 살해되었다. 이때 생환한 사람이 매요리에서 남의집살이를 하였던 사람이었는데 그로부터 정득용과 주민 한 사람이 군인들에게 살해되었다는 말을 들었다.¹⁸⁷⁾

정득용의 아들 신청인 정춘조(당시 8세)는 “아버지 시신은 10여 일 만에 운봉면 가산리 진외가 가족들과 사치마을 외숙들이 수습하였다. 어머니가 아버지 시신을 보셨는데 얼굴은 알아볼 수 없어 옷, 허리띠와 손, 발을 보고 확인하였다. 다른 한 분은 남원군 아영면에 살았던 분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¹⁸⁸⁾

183) 이장은 이름도 모르고 사망하여 조사할 수 없었다. 신청인 최점례 진술조서(2008.6.2)

184) 신청인 최점례 진술조서(2008.6.2)

185) 당시 잠복부대는 4개 소대로 나뉘어 마을주변에 배치되었으며 부대장은 최상열(진실규명 신청 당시 80세 · 063-583-7213, 줄포면 줄포리 468번지 후촌1마을에 거주)이었으나 2008년 사망하였다.

186) 진실규명대상자 정득용은 장수군 번암면에 거주하였으나 사망지역이 남원시지역이어서 남원시지역으로 분류하였다.

187) 신청인 정춘조 진술조서(2008.8.21)

제 7 권

시신수습에 관하여 참고인 김용(당시 16세), 장병철(당시 16세)은 “당시가 계엄 하였는데 동네어른들이 현장에 가서 시신수습을 도왔다.”고 진술하였다.¹⁸⁹⁾ 또 참고인 장권섭은 “정득용과 함께 경찰에 잡혔다가 생환한 매요리 주민은 군인의 선처로 살아났다.”고 진술하였다.¹⁹⁰⁾

○ 조사결과

장수군 변암면 유정리 정득용의 사망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용, 장병철 등 참고인과 신청인 정춘조의 진술로 정득용이 남원시 운봉에 있던 논에 물을 보러가다가 군인들에게 잡혀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같은 마을 주민과 함께 총살된 사실이 시신을 매장한 김용과 장권섭, 장병철의 진술로 확인되었다.

차. 진실규명불능 사건¹⁹¹⁾

1) 고창군 신림면 법지리 이강학 사망사건(다-1486(1)호)

○ 진실규명대상자

- 이강학(李康鶴 · 당시 26세 · 고창군 신림면 법지리)

○ 사건개요

부안양조장에서 고용살이를 하던 이강학이 1950년 8월경 부안지서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된 사건.

○ 사건경위

부안 양조장에서 고용살이를 하던 이강학은 부안지서로 연행되었고 고창보통학교 학생이던 이강환은 경찰에 연행된 후 정읍형무소로 이송되었는데 둘 다 돌아오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 이강환의 동생 이강춘(당시 15세)은 “형님의 행방을 찾으려고 신림지서에 가보니 지서에 있었다. 이후 3, 4일이 경과하여도 돌아오지 않아 다시 지서에 가보니 그때는 정읍형무소로 이송한 뒤였다. 신림지서 경찰이 ‘조사만 끝나면 돌아

188) 신청인 정춘조 진술조서(2008.8.21)

189) 군인들이 시켜서 정득용의 시신을 매장하였다. 참고인 김용 진술녹취(2008.8.21.): 참고인 장병철 진술녹취(2008.8.21.)

190) 참고인 장권섭 진술녹취(2008.8.21)

191) 이 결정서 작성에서 진실규명불능 사건은 편의상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결과에 서술하였다.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어머니와 내가 직접 정읍경찰서로 갔는데, '조사 중이어서 이번에는 안 되니 다음에 오라'고 했다. 사흘 후 다시 갔는데, 정읍경찰서에서는 '정읍형무소로 넘겼다'고 하였다. 그 후 이강환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¹⁹²⁾

참고인 이강준(당시 28세)은 "전쟁이 일어났고 강학형님이 부안양조장에 일하고 있으니 어머니가 한번 가보라고 하셔서 갔는데, 이미 지서에 연행된 지 5일이 지났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서에 갔는데, 경찰이 무작정 내쫓아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어머니도 지서에 가셨지만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 후 소식이 없다."고 진술하였다.¹⁹³⁾

○ 조사결과

이강학이 부안양조장에서 일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시기에 대하여 신청인 이강춘은 1950년 8월, 이강춘의 사촌인 참고인 이강준은 가을걷이를 할 때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강학이 경찰에 연행되어 행방불명된 이 사건은 사건발생시기에 관한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서로 달랐고 1950년 8월은 인민군점령기여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불가능하였다.

2)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광동호 사망사건(다-10140호)

○ 진실규명대상자

- 광동호(당시 64세 ·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 사건개요

1951년 11월 2일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대밭에서 광동호가 경찰에게 살해된 사건.

○ 사건경위

진실규명대상자 광동호의 딸인 광인수(당시25세)는 "당시 대한청년단이 저희 재산을 빼앗기 위해 남동생 광삼주가 보도연맹원으로 총살된 것을 빌미로 빨치산 내통자나 좌익 활동 집안으로 몰아세우고 가족들을 괴롭혔다. 1951년 10월 25일경 아버지는 동생들 시집에 쌀을 얻으러 갔다가 대한청년단에게 붙잡혀 원평지서로 연행되었다. 연행된 후 일

192) 신청인 이강춘 진술녹취(2008.11.19)

193) 참고인 이강준 진술녹취(2008.11.19)

제 7 권

주일 정도 밥을 날랐는데 이후로는 밥을 받아주지 않아서 부친이 사망했다고 생각하여 지금도 음력 10월 2일 날 제사를 모시고 있다.”고 진술하였다.¹⁹⁴⁾

곽인수는 “부친이 사망한 뒤 3년이 지나 원평면사무소 뒤편 자갈밭에서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묻혀 있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¹⁹⁵⁾

○ 조사결과

조사결과 곽동호는 딸인 곽인수의 진술에서 사망경위에 관한 진술이 있었고 시신이 수습되었다는 진술로 보아 진실규명대상자 곽동호는 1951년 11월 2일 경찰에 연행되어 총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곽동호의 사망사실에 대한 목격자, 제3의 참고인을 찾을 수 없었다.

3)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돈대리 허은 사망사건(다-8967호)

○ 진실규명대상자

- 허은((許銀· 당시 28세·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돈대리)

○ 사건개요

충북 영동군 상촌면 돈대리에 거주하던 허은이 전라북도 익산의 불명지로 피난하여 생활을 하던 중 1951년 3월경 피난민들과 함께 경찰에게 연행되어 살해된 사건.

○ 사건경위

1950년 11월경, 허은이 동네주민들과 같이 한방에 모여 있었는데 지서에서 나온 순경이 검문을 하였고 연행할만한 근거가 없자 미국산 라이터를 보고 주인이 누구냐며 물은 후 문제가 있다면서 허은을 끌고 갔는데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신청인 허문(당시 2세)은 당시 상황을 어머니 흥만임(당시 22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장을 하시던 아버지가 수복 후 잡혀가셨는데 얼마 뒤 눈을 팔아 보내주면 풀려날 수

194) 참고인 곽인수 진술조서(2008.6.4.); 신청인 곽창원(곽동호의 손자)은 2007년부터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195) 참고인 곽인수 진술조서(2008.6.4.)

있다고 하면서 인편으로 소식을 전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버지는 곧 풀려날 것이라면서 손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석 달 후 경상도 진주 어느 골짜기에서 총살시킨다고 연락이 왔다. 다른 분의 유족이 총살시킨 곳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총살장소에 각각의 시신에 명패가 꽃혀 있었다고 하더라. 어머니는 ‘어른들이 알아서 하시겠지’하면서 가보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였다고 말씀하셨다.”¹⁹⁶⁾

○ 조사결과

충청북도 영동군에 살던 허은이 전라북도 익산에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거나 사망경위를 알 수 없었다. 또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고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허은의 진실규명은 불가능하였다.

3. 사건 조사결과

가. 희생자 신원 및 판단 근거

조사결과 신청사건과 관련된 전북지역 희생자 규모는 73명으로 파악되었으나, 신원이 확인된 수는 62명이다. 이 중 신청된 사람이 51명,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조사결과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9명이었다.

희생자 판단 근거는 △목격자 확인 △참고인 확인 △제적부·족보 일치 여부 △시신수습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목격자가 있거나,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알고 있는 참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참고인 1명에 제적부 기재사항 등이 일치하는 경우는 ‘확인’ 희생자로 판단하였다.¹⁹⁷⁾

신청인 및 유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희생 정황은 드러나지만 제3의 참고인(전문)이 1인 이하인 경우, 시신수습을 못한 경우, 제적부 기록이 일치하지만 제3의 참고인이 없는 경우,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있지만 희생경위가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유족 확인이 안 된 경우는 ‘추정’ 희생자로 분류하였다.

희생사실이 확인된 희생자 62명을 이 기준에 따라 분류한바, ‘확인’은 45명, ‘추정’은 17

196) 신청인 허문 진술조서(2008.8.27); 희생자 허은의 부인 홍만임 자필진술서(2006.11.17); 신청인의 처 유임태의 진술(2008.8.27)

197) 희생자 제적부를 확인한 결과 사망일자가 제대로 기록된 경우가 드물고, 몇 년이 지난 후 신고시점과 가까운 임의의 날짜로 사망 신고한 예가 많았다. 연도는 다르지만 날짜가 같거나 기일로 기재된 경우는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적부와 달리 족보에는 실제 사망일로 기록된 경우가 많았다. 제적부가 불일치하지만 족보에 사망일자가 일치하는 경우 ‘족보 일치’로 표기하였다.

제 7 권

명이다.

조사결과 진실규명대상자 이강학(李康鶴·다-1486(1)), 허은(許銀·다-8967호), 곽동호(다-10140호)는 이강학의 경우 신청인 이강춘은 이강학의 사망시기를 1950년 8월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참고인 이강준은 1950년 가을걷이를 할 때라고 하였다. 또 진실규명대상자 허은, 곽동호의 경우 한국전쟁 기간 중 경찰에 의해 총살된 것으로 보이나, 목격자나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알고 있는 참고인이 없고 이들이 군경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진실규명된 희생자의 신원 및 판단 근거는 <표 5>, 진실규명불능 사건의 판단 근거는 <표 6>과 같다.

<표 5> 희생자 신원 및 판단 근거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판단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시기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제적 확인	
정읍시											
1	215	최호범 (崔虎範)	남	19	1951.3~4월	도레미산		양명섭 장호상	○	일치	확인
2	216	채영달 (蔡永達)	남	49	1951.1.9.	매정교 부근		최인옥 최도범	○		확인
3	217	최성대 (崔成大)	남	20	1951.3~4월	웅동면 삼리	채봉건 양명섭	최인옥	○		확인
4	6641	한용수 (韓鏞洙)	남	36	1950.12.27.	우동마을 치안대		한병택 신서균	○		확인
5	미신청	한학순 ¹⁹⁸⁾ (韓學順)	남	37	1950.12.27.	우동마을 치안대	한병택	한병직	○	일치	확인
6	미신청	한태수 (韓泰水)	남	26	1950.12.27.	우동마을 치안대	한병택		○	일치	확인
7	미신청	한상수 (韓相洙)	남	31	1950.12.27.	우동마을 치안대	한병택		○		확인
8	미신청	김순기 ¹⁹⁹⁾ (金順基)	남	23	1950.12.27.	우동마을 치안대	한병택	김호철	○		확인
9	미신청	권태일 (權泰一)	남	20대	1950.9.25.	웅동면 산성리 모정	최종식 신서균	한병택	○	없음	확인
10	9568	최인기 (崔仁麒)	남	26	1951.3.	웅동면 정동부락		최도범	×		추정
11	972 ²⁰⁰⁾	김영출 (金英出)	남	45	1951.2.18.	신정동 군령지		김갑선 김소수	×		확인
12		김위도 (金衛道)	남	19	1951.2.18.	신정동 군령지			×		확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판단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시기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제적 확인	
13	10189	안재성 (安載晟)	남	30	1950.12.22.	입암면 신정리		김재남 안석근	○	일치	확인
14	9351	신복균 (申福均)	남	37	1950.11.	소성면		이옥순 김봉석	×		추정
장수군											
15	4799	김호진 (金浩鎭)	남	16	1951.9.28.	산서면 봉서리	정판동 김광임	정영식 김락희	○		확인
16	6142	김갑봉 (金甲奉)	남	26	1951.1.	장수읍 싸리재		박영호 박종홍	×	일치	추정
17	6546	김의철 (金義喆)	남	44	1951.1.10.	장수읍 싸리재		정계현 정남수	×		추정
18	6714	이영호 (李永浩)	남	36	1950.11~12월	장수읍 싸리재		이주영 방재혁	×		추정
19	7736	이혁호 (李赫浩)	남	23	1950.12.	장수읍 싸리재		이주영 방재혁	×		추정
군산시											
20	6828	채판묵 (蔡判默)	남	45	1951.3.15.	나포면 주곡리		김형희 홍명식	○	일치	확인
21		이동자 (李東慈)	여	70	1951.3.19.	나포면 주곡리		마을주민 3명	○	일치	확인
22	7112	고신곤 (高信坤)	남	32	1950.10.12.	군산 만경강	고수옥	김재구 전만식	○	일치	확인
23	9375	김용길 (金容吉)	남	26	1950.10.13.	군산 만경강	김양중	김재구 강정래	○	날짜 일치	확인
24	미신청	김용학 (金龍學)	남	42	1950.9.2.(음)	회현면 창고	김기순 (유족)		○	없음	확인
무주군											
25	483	전씨	여	60	1950.10.19.	안성면 죽천리	박영조 이춘임		○		확인
26		박성여 (朴姓女)	여	35	1950.10.19.	안성면 죽천리			○	없음	확인
27		박현모 (朴顯謨)	남	30	1950.1.29.	평촌마을 앞산		이석문 박동열 두상영	○	○	확인
28		박동열 (朴東烈)	남	20	1950.2.	용포리 골짜기		김병길 이명열			확인
29	9773	김수근	남	18	1951.11.18.	설천면 삼공리	조승윤 이용규	김영욱	○	없음	확인
30		김정갑 (金正甲)	남	40	1951.11.18.	설천면 삼공리		김진영	○		확인

제 7 권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판단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시기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제적 확인	
진안군											
31	3089	양재춘 (梁在春)	남	24	1950.10.경	부귀면 정곡리	방영신	정길수 김옥생	×	날짜 일치	확인
32	미신청	정문표	남	30	1950.10.경	부귀면 정곡리			×	없음	확인
33	미신청	김기성	남	24	1950.10.경	부귀면 정곡리			×	없음	추정 201)
34	미신청	김철주	남	20	1950.10.경	부귀면 정곡리			×	없음	추정 202)
35	9092	이정옥 (李正玉)	남	32	1950.10.23.	성수면 좌포리	이인선 이양선	김봉규	○	일치	확인
고창군											
36	4439	임인택 (林仁澤)	남	32	1950.10.30.	고창읍 백양마을	유동란	유동수	○		확인
37		엄종섭 (嚴種燮)	남	29	1950.10.30.	고창읍 백양마을			○		확인
38		김병현 (金炳鉉)	남	27	1950.10.30.	고창읍 백양마을			○		확인
39		유홍종 (劉弘種)	남	25	1950.10.30.	고창읍 백양마을			○		확인
40		엄규섭 (嚴奎燮)	남	23	1950.10.30.	고창읍 백양마을			○	미기 재	확인
41	5294	강응원 (姜應遠)	남	40	1950.12.2.	대산면 지석리	김재찬	정창환	○	일치	확인
42		신휘철 (辛徽喆)	남	32	1950.12.2.	대산면 지석리			○	일치	확인
43		한부덕 (韓富德)	여	33	1950.12.2.	대산면 지석리			○	일치	확인
44	6520	정만수 (丁滿秀)	남	20	1950.12.20.	고창읍 도산리	성문기	최장호	×		확인
45	7629	강봉원 (姜奉遠)	남	36	1951.1.15.	대산면 해룡리		성석천 김영우	×	없음	추정
46	8946	강금동 (姜金同)	남	33	1951.1.6.	대산면 춘산리	강태원 황경선 소상호		○	없음	확인
47	9208	공선종 (孔琓鍾)	남	46	1951.3.12.	고창읍	공태임		×		추정
48		박복기 (朴福己)	여	43	1951.3.12.	고창읍			×		추정
49	9629	김중철 (金鍾哲)	남	27	1952.10.20.	흥덕면 송암리		이재남 오달상	×		추정
50	9634	김흥채 (金興采)	남	56	1951.1.2.	무장면 옥산리	김태원		○		확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판단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시기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제적 확인	
51	9655	김환용 (金煥容)	남	52	1950.12.14.	무장면 송계리	김요현	김요섭	○	일치	확인
52	9657	김원철 (金元喆)	남	31	1950.12.29.	무장면 송현리	주기순	김숙환 서태영	○	일치	확인
53		김철주 (金撤住)	남	21	1950.12.29.	무장면 송현리			○		확인
54	9683	손재만 (孫在萬)	남	27	1951.3.10.	월산리 사등천변		이사형 박형채 김만수	○		확인
55	9700	오인대 (吳仁大)	남	21	1950.12.13.	무장면 원촌리	박일순 손춘자		○	일치	확인
56	10603	김판수 (金判洙)	남	33	1951.1. 중순	무장면 고리리	김두환 김명진		×		추정 203)
김제시											
57	6954	윤성학 (尹聖學)	남	25	1949.3~4월	청하면, 전북도경		박용운 입소영	×	없음	추정
58	7579	임중연 (林鍾年)	남	42	1949.4.	전주, 전북도경		윤성남	×		추정
59		임중률 (林鍾律)	남	27	1950.10.	전주			×	없음	추정
부안군											
60	6792	김순옥 (金順玉)	남	40	1951.10.30.	주산면 돈계리	김종철		○	일치	확인
61	7546	최귀순 (崔貴順)	남	38	1951.10.19.(음)	줄모면 파산리			○		추정 204)
남원시											
62	2187	정득용 (鄭得龍)	남	44	1950.7.26.	남원 운봉면, 장수 번 암면 경계	김용	장병철 장권섭	○		확인

198) 미신청사건의 희생자 한학수는 한영수로도 불렸다.

199) 미신청사건의 희생자 김순기는 김복만으로도 불렸다.

200) 사건관련 기록으로 추정되는 『한국경찰대일일보고』를 확인한 결과 1951년 2월 철도경찰대가 내장산 주변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 미신청사건으로 유족 확인이 되지 않아 '추정'으로 판단하였다.

202) 미신청사건으로 유족 확인이 되지 않아 '추정'으로 판단하였다.

203) 김판수의 연행장면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어 '추정'으로 판단하였다.

204)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제3의 참고인인 마을이장, 김래홍, 신청인의 어머니가 현재는 사망하여 직접 조사는 못하였으나 당시 시신 매장을 하였다는 진술(2008.6.2 신청인 최점례 진술조서)에 의해 '추정'으로 판단하였다.

〈표 6〉 진실규명불능 사건

사건 번호	신청인 (당시 나이)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판단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연월일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제적확인	
1486(1)	이강춘 (15)	이강학 (李康鶴)	남	26	1950.8	고창군 흥덕면		이강춘	×		불능
8967	허문 (2)	허은 (許銀)	남	28	1951. 3.	진주시 골짜기	없음	없음	미수습	사망신고 안 됨	불능
10140	곽창원 (미출생)	곽동호	남	64	1951.11.2.	금산면 원평리	없음	없음	수습	없음	불능

나. 가해주체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정읍경찰서, 장수경찰서, 군산경찰서, 무주경찰서, 진안경찰서, 고창경찰서, 김제경찰서, 부안경찰서, 남원경찰서와 관할 지서 경찰이었다. 또 빨치산 토벌 작전을 폈던 제18전투경찰대대 및 이 부대와 합동작전을 하였던 해당지역 주둔 군인 및 방위대이다.

다만, ‘고창군 고창읍 백양마을 사건’(다-4439호)의 가해자는 국군 제11사단 13연대 3대대 소속의 군인이었음이 『한국전쟁사료』59권에서 확인되었다.

희생자들은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 1949년 3월부터 한국전쟁기인 1952년 9월까지의 시기에 국군과 사건지역 경찰 및 제18전투경찰대대, 방위대에게 법적 절차 없이 살해되었다.

당시 방위대원으로 정읍경찰서 용동지서·소성지서, 군산경찰서 회현면 치안대 등에서 근무했던 민용식(80세), 노상영(81세), 김재구(87세) 등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순경과 방위대가 부역자들을 연행한 후 죽일 사람은 죽이고 풀어줄 사람은 풀어주었는데 살해여부는 경찰이 결정하였다. 총살대상자는 지서 부근에서 총살하였다. 경찰은 특히 감시대상자는 명단을 만들어 감시하였으며 전향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켰고 전향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직접 동네에서 총살하였다.”고 진술하였다.²⁰⁵⁾

“수복 후 치안대는 수백 명의 부역자를 군산경찰서 회현지서로 잡아들였고 당시 법무관 두○○ 대위의 명령으로 10여 명을 골라내어 신기촌 강가에서 총살하였다. 총살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군산형무소로 압송하였으며 집단처형을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²⁰⁶⁾

“부역자들을 지서에 연행하여 당일 밤에 지서 근처 산에서 총살하였다. 하루 저녁에 대

205) 참고인 민용식 진술녹취(2009.5.28)

206) 참고인 김재구 진술녹취(2009.5.27)

여섯, 여남은 명을 죽이기도 하였다.”고²⁰⁷⁾ 진술하는 등 사건발생 당시 전라북도에서 경찰 및 방위대원으로 근무했던 군경 측 참고인 13명은 경찰과 토벌대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다. 가해의 위법 여부

이 사건은 부역자 처벌과 빨치산 토벌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군인이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하여 일어난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전시로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기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비록 전시 상황이었다고 하나 “국민의 권리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원칙²⁰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국민의 생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 있는 법적 공백상태는 아니었다.

특히 자의건 타의건 부역을 하거나 빨치산에게 협력한 사람에게는 『국방경비법』이나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을 적용하여 재판을 거쳐 형벌이 집행되도록 하는 실제적·절차적 규정이 있었으나 희생자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²⁰⁹⁾

정읍시 용동면의 경우 수복 이후 용동지서에는 정식 경찰과 지역 청년들로 이뤄진 치안대가 지역 치안을 담당하였는데, 백○○은 정식 경찰로 방위대와 함께 다니면서 마을에서 전황을 일삼았다고 하였다.²¹⁰⁾ 백○○이 지서에 근무하면서 임의적인 부역자 처벌을 하는 기간 내내²¹¹⁾ 용동지서 주임도 백○○의 임의적인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진술은 없었다.²¹²⁾

가해자로 거명되었던 백○○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²¹³⁾

207) 참고인 노상영 진술녹취(2009.5.27)

208)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대한민국헌법」(1948년) 제 28조

209) 이 사건 희생자들에게서 이런 법규를 적용할 정도의 무거운 혐의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현장에서 살해한 점, 처형자 명부가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재판 역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10) 참고인 이현주 진술녹취(2009.5.27.): 참고인 민용식 진술녹취(2009.5.28.)

211) 백○○의 공식적인 근무기간을 알 수 없으나, 주민을 총살한 일자가 수복 당시부터 1951년 10월 말까지로 확인되고 있어 최소 1년 이상 용동면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12) 참고인 이현주 진술녹취(2009.5.28.)

213) 정읍경찰서에 경찰명부 열람 요청을 하여 경무과를 방문하였으나 현재 소장기록은 1952년 이후 경찰명부 및 전사자 명부가 유일하고 백씨 성을 가진 총 10명 이내의 명단을 확보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경찰 명부 열람 요청」(조사4탐-1011호, 2008.10.27),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출장조사 결과보고」(조사4탐-1088호, 2008.11.12)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경찰과 군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가 경찰 및 전투경찰, 방위대원, 제11사단13연대3대대 군인이었으며, 지휘책임은 사건지역 경찰서장과 전라북도경찰국장, 3대대장- 13연대장 - 11사단장에게 있으며, 나아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에게도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라북도 정읍시 등 9개 지역에서 최호범 등 62명의 민간인이 1949년 3월부터 1952년 10월까지 사이에 부역을 했다거나, 빨치산에 협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 군인에게 임의로 살해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나. 이 기간 중 경찰 및 향토방위대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명령 아래 군대는 관할 사단장의 지휘·명령 아래 부역혐의자 색출활동과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면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민간인들을 ‘빨치산’, 또는 ‘부역자’ 등의 혐의로 살해하였다.

다.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최호범(崔虎範, 다-215), 채영달(蔡永達, 다-216), 최성대(崔成大, 다-217), 한용수(韓鏞洙, 다-6641), 김영출(金英出, 다-972), 김위도(金衛道, 다-972), 안재성(安載晟, 다-10189), 김호진(金浩鎭, 다-4799), 채판묵(蔡判默, 다-6828), 이동자(李東慈, 다-6828), 고신곤(高信坤, 다-7112), 김용길(金容吉, 다-9375), 전씨(다-483), 박성여(朴姓女, 다-483), 박현모(朴顯謨, 다-6125), 박동열(朴東烈, 다-6125), 김수근(다-9773), 김정갑(金正甲, 다-9773), 양재춘(梁在春, 다-3089), 이정옥(李正玉, 다-9092), 임인택(林仁澤, 다-4439), 엄종섭(嚴種燮, 다-4439), 김병현(金炳鉉, 다-4439), 유흥종(劉弘種, 다-4439), 엄규섭(嚴奎燮, 다-4439), 강응원(姜應遠, 다-5294), 신휘철(辛徽喆, 다-5294), 한부덕(韓富德, 다-5294), 정만수(丁滿秀, 다-6520), 강금동(姜金同, 다-8946), 김홍채(金映采, 다-9634), 김환용(金煥容, 다-9655), 김원철(金元喆, 다-9657), 김철주(金撤住, 다-9657), 손재만(孫在萬, 다-9683), 오인대(吳仁

大, 다-9700), 김순옥(金順玉, 다-6792), 정득용(鄭得龍, 다-2187), 한학순(韓學順), 한태수(韓泰水), 한상수(韓相洙), 김순기(金順基), 권태일, 김용학(金龍學, 이상 미신청) 등 43명이다.

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 사람은 신복균(申福均, 다-9351), 최인기(崔仁麒, 다-9568), 김갑봉(金甲奉, 다-6142), 김의철(金義喆, 다-6546), 이영호(李永浩, 다-6714), 이혁호(李赫浩, 다-7736), 강봉원(姜奉遠, 다-7629), 공선종(孔琰鍾, 다-9208), 박복기(朴福己, 다-9208), 김종철(金鍾哲, 다-9629), 김판수(金判洙, 다-10603), 윤성학(尹聲學, 다-6954), 임종연(林鍾年, 다-7579), 임종률(林鍾律, 다-7579), 최귀순(崔貴順, 다-7546), 김철주, 김기성(이상 미신청) 등 17명이다.

라.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전라북도경찰국 및 9개 지역의 경찰서 소속의 경찰과 군인이 확인되었다. 특히 다-4439호의 가해주체는 11사단 13연대 3대대 소속 군인이다.

마. 이 사건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던 전시 수복 과정의 극히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군경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바. 다-1486(1)호, 다-8967호, 다-10140호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강학(李康鶴)의 사망시기에 대하여 신청인은 1950년 8월이라고 하였으나 참고인은 1950년 가을이라고 하는 등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고 허은(許銀), 광동호가 한국전쟁 기간 중 경찰에 의해 살해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이들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나 자료가 없어서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2. 권고사항

이 사건 중 진실이 규명된 사건에 대하여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의 공식사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권력이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집단살해한 데 대해 국가는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희생자의 위령사업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희생현장 주변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다.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 정정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희생자 대부분이 사망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제적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라. 역사기록의 수정 및 등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록물에 이 사건의 내용을 보완·추가하여 이 사건의 진실규명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국가는 군경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내 법과 관련 국제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